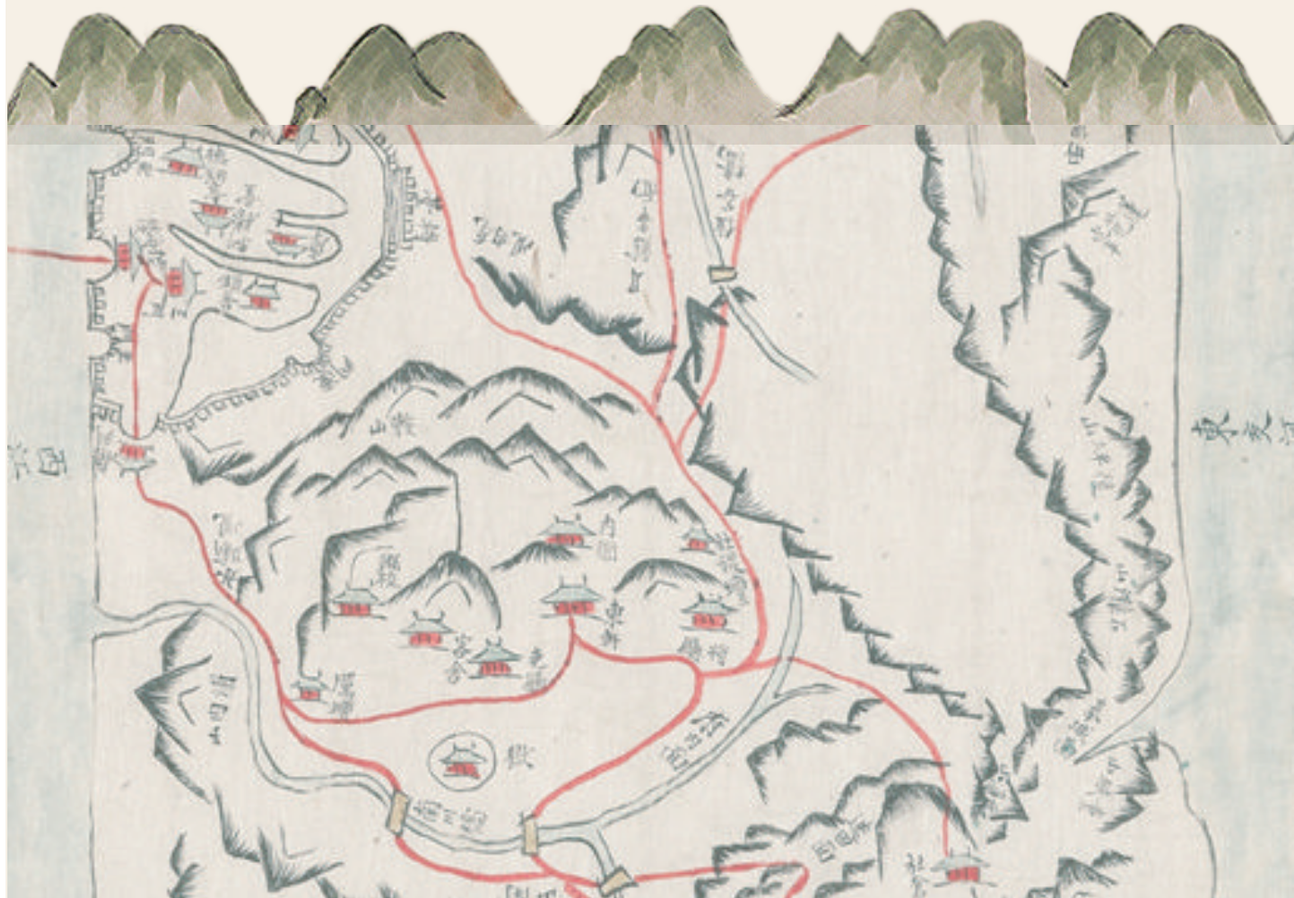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마을

옛 관청을 품고 있는 마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마을



머리말

2017년은 김포 정명(定名) 1,2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천여 년 간 김포(金浦)라는 이름에 걸맞게 비옥한 옥토를 바탕으로 농촌 중심의 역사를 일구어왔다면, 이제 김포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거듭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한강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표되는 도시화의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도 많다.

특히 오랜 세월동안 켜켜이 쌓여져왔던 마을과 마을의 흔적과 기억들이, 미처 기록하고 주워 담기도 전에 도시화로 인하여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마을로서의 역사와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경기도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책으로 엮어내는 경기 마을 기록 사업이, 2011년 용강리 마을 기록지에 이어 올해 김포에서 두 번째로 추진된 것은 매우 반갑고 뜻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포에는 나름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간직한 셀 수 없는 마을들이 있지만, 특히 이번에 월곶면 군하리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기록지를 발간한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과거 김포는 김포현, 양천현, 통진현 등 크게 세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통진현은 조선시대 숙종 20년(1694)에 경기도의 8도호부 가운데 하나로 승격되었을 정도로 김포에서 가장 번성했던 지역이었다.

그리고 군하리 일원은 (현재는 월곶면에 편입되어 있지만) 통진현청 소재지로서 통진현의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를 잘 말해주듯이 지금도 군하리에는 통진향교, 통진이청, 통진현감·부사 선정비, 군하리 봉수대 등 과거의 문화유산들이 그 어느 마을보다 많이 남아있다. 또한, 아직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과거 전통 마을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군하리 마을이 도시화로 인하여 옛 모습을 잃기 전에, 또한 주민들의 고령화 속에서 옛 기억을 간직한 마을 어르신들이 한분이라도 생전에 계실 때, 지금이라도 군하리 마을의 생생한 모습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에 발간된 군하리 마을기록지는 앞으로 군하리 마을만의 고유한 전통과 특색을 잘 살린 이야기를 발굴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마을을 가꾸어가는데 큰 지침서이자 이정표가 될 것이다. 후대에도 길이 좋은 기록으로 남길 바란다.

군하리 마을기록지 발간을 계기로 하여 현재는 과거의 명성에 비해 조용해진 군하리 마을이 역사와 문화가 있는 김포의 대표적인 문화마을로 새롭게 거듭나 다시금 활기가 넘칠 날을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주신 윤여빈 경기학연구센터장님, 이하준 김포문화원장님, 집필진 여러분 그리고 김창모 월곶면장님과 군하1·2·3리 마을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6년 12월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해왕

머리말 _ 4

군하리 마을의 역사문화적 가치

1. 김포와 군하리 11
2. 김포시의 형성과 월곶면의 변천 12
3. 군하리의 변천과 역사·문화 16
4. 군하리 역사·문화의 가치 20

군하리 마을 개관

1. 군하리 마을 연혁 25
2. 군하리 마을 자연환경 27
3. 군하리 마을 인문·사회 환경 30
4. 군하리 마을 지명 유래 35
5. 군하리 마을 인물 48
6. 군하리 마을 조직 53

군하리 마을의 변천과 역사적 사건

1. 군하리 마을 변천 71
2. 군하리 마을 역사적 사건 90

군하리 마을의 생활과 놀이

1. 군하리 마을 의식주 119
2. 군하리 마을 민간신앙 135
3. 군하리 마을 풍속과 의례 139
4. 군하리 마을 일과 놀이 148

군하리 마을의 문화자원

1. 군하리 마을 문화유산 159
2. 군하리 마을 구비전승 171

군하리 마을의 삶

1. 군하리 마을 토착민의 삶 187
2. 군하리 마을 시집 온 여성의 삶 213

맺음말 _ 222

[특별기고]

군하리 마을의 역사문화적 가치

김포문화원장
이하준

1. 김포와 군하리

현재 김포 지역은 나날이 팽창하고 있다. 서울 근교인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김포 지역의 개발을 마냥 반가워할 수만은 없다. 지역발전이라는 논리 속에 자칫 지역의 문화유산이 소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포 지역은 현재 정치·경제·군사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문화적인 자산 역시 매우 풍부하다. 그 중 역사·문화적 자산은 랄프 옌센이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예견한 콘텐츠 전쟁(content war)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다. 랄프 옌센은 지식정보화사회 다음은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 즉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도시의 미래를 논하면서 문화적 전통이나 신화, 그리고 유명 인물 등의 소재를 이야기로 변형시키고 활용할 줄 아는 도시를 '스토리텔링 도시'(storytelling city)라고 명명했다. 따라서 역사·문화적 유산을 잃는 것은 미래사회를 열어갈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동력을 잃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김포 지역 문화유산의 보고인 군하리의 형성 과정과 그 문화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려 한다. 이것이 이후 보전 방안 모색에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먼저, 김포의 형성과 군하리가 속해 있는 월곶면의 변천 과정을 살펴서 김포 지역의 전체적인 지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피려 한다. 그 다음, 군하리의 형성 과정에서 명칭의 유래를 논의하고, 통진향교, 통진 현감·부사 선정비, 통진이청, 봉수대, 군하리장, 진따배기, 군하리 만세운동 등 군하리의 유무형의 역사·문화가

갖는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하리가 김포지역 더 나아가 수도권에서 갖는 역사·문화적 의의가 조금씩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2. 김포시의 형성과 월곶면의 변천

1) 김포시의 형성

현재 김포는 경기도 28시, 3군의 하나이다. 본래 고구려 때에는 금포현(黔浦縣)이었는데 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757)에 김포(金浦)로 정했다.[1] 금포현(黔浦縣)일 때는 김포현(金浦縣, 김포·고촌·검단 지역), 분진현(월곶·통진 지역), 동성현(하성 지역), 술성현(양촌·대곶 지역), 공암현(양서·양동 지역) 5개 현으로 나뉘었다. 이때 처음 김포라는 이름이 나타난다.

이후 김포는 장제군(長堤郡, 부평)에 붙었다가, 고려 제19대 명종 2년(1182)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고 제20대 신종 원년(1198) 임금의 태가 묻힌 곳이라 하여 현령(縣令)으로 올렸다가, 조선 제3대 태종 14년(1414) 8월 양천현(陽川縣)을 합하여 김양현(金陽縣)이라 하였다.[2] 그 뒤 10월에 다시 갈라 양천현을 금주(衿州 : 시흥군)로, 본 고을은 부평부(富平府)에 붙였는데 태종 16년(1416) 7월에 다시 김포현으로 복귀되어 현령을 두었다. 제16대 인조 5년(1627)에 양주로부터 원종(元宗 : 인조의 생아버지)의 묘소를 이장하고, 인조 10년(1632)에 군으로 올리어 군내(郡內), 석한(石閑), 고현내(古縣內), 검단(黔丹), 노장(蘆長), 고란태(高蘭台), 임촌(臨村), 마산(馬山)의 8개 면을 관할하였다. 그 후 제26대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인천부(仁川府)에 딸렸다가, 그 다음 해(1896)에 경기도의 관할이 되고,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통진군(通津郡)의 군내(郡內), 보구곶(甫口串), 질전(迭田), 고리곶(古里串), 대파(大坡), 반이촌(伴伊村), 상곶(桑串), 양릉(陽陵), 봉성(奉城), 하은(霞隱), 소이포(所伊浦)의 11면과 양천군(陽川郡)의 군내(郡內), 남산(南山), 장군소(將軍所), 가곡(加谷), 삼정(三井) 5면을 병합하여 다시 김포군이라 하고, 군내·검단·고촌·월곶·대곶·양촌·하성·양동·양서의 9개면 88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1938년 1월 군내면을 김포면으로 고치고, 1962년 11월 21일 법률 제1172호 서울특별시 구역 확장에 의하여 양동·양서의 2개 면을 서울특별시로 넘겨주어 7개면이 되었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부천군 오정면의 대장·도당·약대·삼정·내리·오정·원종·고강·작리·여월의 10개리와 계양면의 전역(박촌·병방·용종·방축·임학·동양·귤현·상야·하야·평리·노오지·선주지·장기·이화·오류·갈산·다남·목상·뚝섬 19리)을 편입하여 9개면이 되었다. 다시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7호에 의하여 오정면을 부천시로 넘겨주어 8개면이 되고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에 의하여 김포면을 읍으로 승격하였다.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따라 양촌면의 마송·도사·수참 등 3개리, 월곶면의 옹정·고정·서암·귀전·동을산 5개리, 대곶면의 가현리를 병합하여 통진면을 설치해서 당시 1읍 8면 92개리가 되었다.

1995년 3월 1일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고, 1998년 2월 3일 김포시 승격과 함께 김포읍이 김포1동(북변동·감정동·걸포동), 김포2동(운양동·장기동), 김포3동(사우동·풍무동)으로 분동됐다. 2003년 12월 30일 통진면이 통진읍으로 승격, 2009년 9월 1일 고촌면이 고촌읍으로 승격됐다. 2010년 5월 20일 김포3동이 사우동, 풍무동으로 분동되고, 2011년 11월 14일 양촌면이 양촌읍으로 승격됐다. 2012년 9월 24일 장기동이 신설되고, 2013년 10월 28일 김포2동에서 구래동이 분동됐다. 2015년 2월 2일 김포2동에서 운양동이 분동돼 현재 3읍 3면 7동이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김포는 동쪽은 한강 건너 파주군 금촌읍·교하면과 고양군 중면·지도면, 남쪽은 서울특별시와 부천시, 서쪽은 바다 건너 강화군 강화읍·선원면·불은면·길상면, 북쪽은 한강 건너 개풍군(開豊郡) 임한면(臨漢面)·흥교면(興敎面)에 닿아 있는 지역이 되었다.

1 이를 근거로 757년을 金浦 定名 元年으로 한다. 그러므로 2017년은 김포 정명 1260년이 되는 해가 된다. 그 의미는 역사문화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2 김양현(金陽縣)은 김포와 양천의 이름을 합한 것이다.

2) 월곶면의 변천 과정

월곶면은 김포시 3읍 7동 3면의 하나이다. 월곶면은 삼한시대에 분진현에 속했다가 고려 초에 통진현으로, 조선시대에 다시 통진부로 승격되었다가 1903년 통진군으로 또 다시 승격되었다.

영조 36년(1760)에 각 고을의 읍지(邑誌)를 모아 엮은 『여지도서(輿地圖書)』의 통진부 방리(坊里 : 면·리)에 따르면 현 월곶면(月串面) 지역에는 부내면(府內面), 보구곶면(甫口串面), 월여곶면(月余串面), 겁을전면(迭乙田面)이 있었지만 이들 면이 모두 월곶면이 된 것은 아니고 후대에 얼마간의 변동이 있었다고 한다.

본래 통진군의 지역으로서 통진군청이 있으므로 군내면(郡內面)이라 하여 군하(郡下)·옹정(瓮井)·갈산(葛山)·점동(店洞)·고읍(古邑)·초막(草幕)·고양포(高陽浦)·능동(陵洞)·포내(浦內)의 9개 동리로 관할하였다. 그러다 1914년 군면(郡面) 폐합에 따라 보구곶면(甫口串面)의 보구곶(甫口串)·동막(東幕)·성내(城內)·강령(康寧)·흥룡(興龍)의 5개 동리와 질전면(迭田面)의 질전(迭田)·귀로(歸老)·동을산(冬乙山)·원통(元通)의 4개 동리, 월여곶면(月餘串面)의 개야(開野)·조산현(鳥山峴)·위곡(位谷)·고척산(高尺山)·남정(南亭)·서명(西明)·검암(黔岩)·조강포(祖江浦)·돌산(乭山)의 9개 동리를 병합, 월여곶과 보구곶의 이름을 따서 월곶면(月串面)이라 하여 김포군(金浦郡)으로 편입했다. 군하(郡下)·고막(古幕)·갈산(葛山)·옹정(瓮井)·고양(高陽)·포내(浦內)·성동(城東)·보구곶(甫口串)·용강(龍康)·조강(祖江)·개곡(開谷)·고정(高亭)·서암(西岩)·귀전(歸田)·동을산(冬乙山) 등의 15리로 개편 관할하였던 것이다.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옹정·고정·서암·귀전·동을산의 5개리를 통진면에 넘겨주어 10개리가 되었다.

면치소재(面治所在)는 군하리이며 1991년 이전에는 옛 통진군 감영(監營)을 면사무소로 사용하다가 1991년 군하로 276번길 20 위치에 면사무소를 건축해 2016년 6월까지 운영했다. 2016년 7월 4일 월곶면 군하로 263에 지상 3층 규모(연면적 2,338.72㎡)로 면정업무와 주민자치센터로 구성된 복합청사로 이전 개관했다.

월곶은 동쪽은 하성면(霞城面)과 통진면(通津面), 남쪽은 대곶면(大串面), 서쪽은 바다

〈표 1〉 월곶면 법정명 변천

여지도서	호구총수 (1789년)	통진부읍지 (1842/1871년)	통진읍지 (1899년)	조선지지자료 (1911년)	1914년 행정개편	1983년	1998년 시승격
부내면	부내면(府內面)	–	군내면(郡內面)	군내면(郡內面)	월곶면(月串面)	월곶면(月串面)	월곶면(月串面)
–	동변리(東邊里) 서변리(西邊里)	–	군하리(郡下里)	군하리(郡下里)	군하리(郡下里)	군하리(郡下里)	군하리(郡下里)
	고읍리(古邑里)	–	고읍리(古邑里)(남살골)	고읍리(古邑里)(남살골)	고막리(古幕里)	고막리(古幕里)	고막리(古幕里)
	–	–	초막동(草幕洞)(지막골)	초막동(草幕洞)(지막골)			
	–	–	갈산리(葛山里)(갈미)	갈산리(葛山里)(갈미)	갈산리(葛山里)	갈산리(葛山里)	갈산리(葛山里)
	고양포리(高陽浦里)	–	고양포리(고양지)	고양포리(고양지)	고양리(高陽里)	고양리(高陽里)	고양리(高陽里)
	능동(陵洞)	–	능동(陵洞)	능동(陵洞)			
	포내리(浦內里)	–	포내리(浦內里)	포내리(浦內里)	포내리(浦內里)	포내리(浦內里)	포내리(浦內里)
보구곶면	보구곶면(甫口串面)	보구곶면	보곶면(甫串面)	보구곶면(甫口串面)			
–	성내리(城內里)	–	성내리(城內里)	산성리(山城里)	성동리(城東里)	성동리(城東里)	성동리(城東里)
	동막리(東幕里)	–	동막리(東幕里)	동막리(東幕里)			
	보구곶리(甫口串里)	–	보곶리(甫串里)	보구곶리(보십곳지)	보구곶리(甫口串里)	보구곶리(甫口串里)	보구곶리(甫口串里)
	흥룡리(興龍里)	–	흥룡리(興龍里)	흥룡리(興龍里)(이기울)	용강리(龍康里)	용강리(龍康里)	용강리(龍康里)
	–	–	강령포(康寧浦)	강령포(康寧浦)			
월여곶면	월여곶면(月餘串面)	월여곶면	월여곶면(月餘串面)	월여곶면(月餘串面)	조강리(祖江里)	조강리(祖江里)	조강리(祖江里)
–	조강리(祖江里)	–	조강리(祖江里)	조강리(祖江里)			
	우을내리(右乙內里)	–	울내리(蔚內里)	울내리(蔚內里)(울안이)			
	–	–	개야리(開野里)	–	개곡리(開谷里)	개곡리(開谷里)	개곡리(開谷里)
	위곡리(位谷里)	–	위곡리(位谷里)(가우르)	위곡리(位谷里)(가우르)			
	–	–	조산현(鳥山縣)	조산현(鳥山縣)(조산재)			
부내면	부내면(府內面)	부내면	군내면(郡內面)	군내면(郡內面)	옹정리(甕井里) 〈통진면으로 이관〉		
–	옹정리(甕井里)	–	–	옹정리(甕井里)			
	신대리(新垈里)	–	신대리(新垈里)				
월여곶면	월여곶면(月餘串面)	월여곶면	월여곶면	월여곶면(月餘串面)			
–	서명동리(西明洞里)	–	서명동(西明洞)(셔명골)	서명동(西明洞)(셔명골)	서암리(西岩里)	서암리(西岩里) 〈통진면으로 이관〉	
	–	–	검암리(黔岩里)	검암리(黔岩里)(검바위)			
	고척산리(高尺山里)	–	고척산(高尺山)	고척산(고자메)	고정리(高亭里)	고정리(高亭里) 〈통진면으로 이관〉	
	남정동리(南亭洞里)	–	남정동(南亭洞)	남정동(南亭洞)(남정골)			
겁을전면	조을전면(造乙田面)	겁을전면	질전면(迭田面)(질앗면)	질전면(迭田面)	귀전리(歸田里)	귀전리(歸田里) 〈통진면으로 이관〉	
–	귀로리(歸老里)	–	귀로리(歸老里)	귀로리(歸老里)			
	조을전리(造乙田里)	–	질전리(迭田里)	질전리(迭田里)(질앗)			
	동을산리(冬乙山里)	–	동을산(冬乙山)	동을산리(들미)	동을산리(冬乙山里)	동을산리 〈통진면으로 이관〉	
	원통리(元通里)	–	원통리(元通里)	원통리(元通里)			
	등산리(登山里)	–	일부지역 등산리(登山里)	등산리(登山里)	동을산리 〈통진면으로 이관〉	양택리(楊澤里) 〈하성면으로 이관〉	
	택동리(澤桐里)	–	일부지역 택동리(澤桐里)	택동(澤桐)(숫못)			

건너 강화군(江華郡) 선원면(仙源面)과 강화읍(江華邑), 북쪽은 바다 건너 개풍군(開豊郡) 임한면(臨漢面)에 닿아있다.

3. 군하리의 변천과 역사·문화

군하리는 본래 통진군 군내면의 지역으로서 고읍리에 있던 통진현의 아래쪽에 위치했으므로 군하리라 하였다. 한편, 통진 고을이 이곳으로 옮겨와 있었으므로 통진읍·통진 또는 읍내라고도 하였다.

1) 군하리의 변천 과정과 구성

군하리의 연혁과 명칭

숙종 25년(1695) 문수산성의 축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이전까지 현(縣)이었던 통진이 통진부(通津府)로 승읍호(陞邑號)하여 모든 제도가 부격(府格)에 맞게 바뀌었다.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의 통진부 방리(方里 : 면·리)에 비로소 부내면 소속으로 동변리(東邊里)와 서변리(西邊里)가 있고, 광무 3년(1899)의 『통진읍지(通津邑誌)』의 방리에는 앞의 두개 리를 합해 동서리(東西里)라 했다. 1914년 일제가 전국의 행정구역을 폐합할 때 앞의 동서리를 군하리(郡下里)로 변경해 신설된 월곶면에 편입하였다. 이러한 편제는 광복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는 1리 시장, 2리 봉골, 3리 곰배를 두었다.

'군하리(郡下里)'라는 명칭은 '군치소재(郡治所在)의 아랫마을'이란 뜻으로 1914년 통진군을 폐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붙인 이름이다. 예전부터 통진읍이라 불러왔는데 '통진읍'은 옛 통진부(군)의 읍치소재(邑治所在)가 있던 마을만을 가리킨다.

군하리의 구성

군하리는 군하1리 시장·2리 봉골, 군하3리 곰배로 구성된다. 군하1리 시장·2리 봉골은 군하리의 역사와 같이 옛 부내면의 동변리(東邊里)와 서변리(西邊里)였으나 광무 3년(1899)의 『통진읍지』에는 앞의 두 개 리(里)를 합해 동서리(東西里)라 했다가 1914년 군하리(郡下里)를 두면서부터 옛 통진읍을 1리 시장이라 했다.

이 지역은 상고시대부터 통진현, 부, 군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전통의 마을이다. 옛 읍지의 지도에는 아사(衙舍)를 중심으로 그 북동편에 사직단(社稷壇), 즉 토지신과 곡신(穀津)에게 제사지내던 제단과 사창(司倉), 즉 관곡(官穀) 보관 창고, 그리고 서남쪽에 객사(客舍), 즉 임금의 영(令)을 받고 출장 오는 관원을 유숙시키는 숙박시설로 궐패(闕牌)를 모셔두던 곳과 여단(厲壇), 즉 여귀(厲鬼 : 제사를 못 받고 떠도는 원혼)를 제사하던 제단 등이 그려져 있으나 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김포군지』에 인조 5년(1627) 정묘호란 때 인조가 강화로 몽진하는 도중에 통진에서 정월 28, 29일 이틀간 머물면서 대신들과 국정(國政)을 논의한 역사도 기록되어 있다.

옛 아사, 남산 봉수대(烽燧臺) 등 조상의 숨결이 서려 있던 유적들을 복원하여 문수산성과 함께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도시화하는 일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과 건설은 후대에도 가능하지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떠나면 복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지명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존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본다.

한편, 군하3리 곰배는 문화 류씨(文化柳氏), 합천 이씨(陜川李氏)가 선거인(先居人)으로 여러 대를 세거(世居)해 왔다고 한다. 방향으로 볼 때 정조 13년(1789)의 『호구총수』에 기록된 통진부 방리(方里) 중에서 서변리(西邊里)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곰배(곰바위·웅암리·웅암동·웅암)는 곰바위가 있는 마을을 뜻한다. 통진읍 서남쪽에는 곰바위[熊岩]라고 불리는 있는 큰 바위가 있다.

이 지역은 마을 이름이 매우 정감이 가며 마을도 앞산에 막히기는 했으나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다. 마을 이름 자체는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닌 인상을 갖게 하나 마을에는 내세울 유물·유적은 없다. 10년 만에 부자가 되어 떠나라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생활에

불편이 많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군하리의 역사·문화 유적

통진향교

통진향교는 1127년(고려인종 5)에 창건됐다. 1413년(태종 13)에 현감을 둔 것으로 보아도 아마도 그 무렵에 제대로 운영되었을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통진현」 조에 '향교는 현 북쪽 1리 지점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

통진향교는 전학후묘 형태로 되어 있다. 홍살문을 지나 안으로 50미터쯤 들어가면 외삼문 역할을 하는 풍화루(風化樓)를 볼 수 있다. 경내 오른쪽에는 교육 공간인 명륜당과 동재가, 그 위의 솟을삼문 안에는 제사 공간인 대성전과 동무·서무가 위치한다. 대성전에는 5성과 2현 및 18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역사 속에서 몇 번의 재건을 거쳤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현재 건물은 공포(栱包:처마 끝의 무게를 받치려고 기둥머리에 짜 맞추어 댄 나무쪽) 형태와 수법으로 볼 때 17세기 말의 건물로 보이며 도내 향교 건축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조선 말기에 몇 차례 중수되었다가 일제 강점기에 김포향교에 합설되면서 폐쇄되었다. 광복 후 그 기능을 되찾았다. 봄(5월 11일)과 가을(9월 28일)에 두 차례 석전을 봉행한다. 1983년 9월 19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30호로 지정되었다.

통진 현감·부사 선정비

월곶면 군하리 83-4번지, 구 월곶면사무소에는 17기의 비가 일렬로 늘어서 있다. 이 비군은 이 고장에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었던 현감, 부사, 관찰사 등 목민관들의 선정 불망비(不忘碑)이다. 조선 중기에서 후기에 걸쳐 건립된 것들로서 향토사와 역대 행정관들의 치적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1986년 3월 3일 향토유적 제5호로 지정되었다. 비를 세운 시기는 1656년부터 1890년에 이르며 재료는 대리석 또는 화강암으로 제작되었다.

통진이청

조선시대 관아 건축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통진이청'(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66호)은 2013년 9월 복원됐다. 조선시대 통진부 이청 건물로 일제 강점기 동안 주재소로 사용됐다. 통진이청은 옛 통진현의 부속 건물로 측면 2칸 규모다. 기록으로는 정면 7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이었지만 복원 전까지는 서리들의 집무처로 사용되던 건물만 남아 있었다.

복원은 가급적 사용 가능한 구재를 모두 재활용하고 문화재 자문위원들의 철저한 검증과 자문 등을 거쳐 정면 7칸 측면 2칸, 총 14칸 규모의 원형 그대로 복원됐다.

봉수대

김포에는 월곶면의 남산 봉수, 북변동의 냉정산 봉수, 대곶면의 수안산 봉수가 있었다. 이외에 인천의 백석산 봉수, 서울 양천의 개화산 봉수도 예전에는 김포에 속해 있었다. 김포의 봉수는 제5로의 연변 봉수 직봉에 해당했는데 『증보문헌비고』에 따르면 그 연결 노선은 순천에서 충청도와 경기도를 거쳐 백석산(인천), 수안산(대곶면), 대모성(강화), 진강산(강화), 망산(강화), 교동규산(강화), 하음산(강화, 남산(강화), 남산(월곶면), 냉정산(북변동), 개화산(서울), 경봉수로 이어졌다.

월곶면의 남산 봉수는 현재 군하리 봉수대지로 불리는 곳에 있었다. 월곶면 군하리 323번지에 있는 해발 180미터의 남산 정상으로 향토유적 제6호(1986. 3. 30)로 지정되었다. 『신동국여지승람』 통진현 봉수조에서는 "남산 봉수는 동쪽으로 김포현 북성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강화 송악산에 응한다."라고 하였다.

군하리장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 기존의 원통장을 대신한 장이 월곶면 군하리장과 하성면 마곡장이다. 통진이 별도의 군에서 김포군으로 흡수되면서 월곶면, 대곶면, 양촌면, 하성면의 4개면이 되었다. 군하리장은 강화 부내장과의 연결을 염두에 둔 장이어서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우시장도 있을만큼 구색을 갖춘 장이었다.

군하리 만세운동

월곶면 군하리의 만세운동은 김포 지역에서 최초로 전개된 만세시위운동으로서 의의가 있다. 박용희(목사), 성태영, 백일환, 이살눔(본명 이경덕) 등이 주도한 월곶면의 만세시위운동에 대해서는 기록에 따라 주도자가 박용희 또는 이살눔으로 파악된다.

김포 지역에서 3·1민족운동이 전개된 것은 1919년 3월 22일 당시 월곶면 군하리와 검단면에서 만세시위운동이 시작된 이후부터이다. 김포 지역의 3·1민족운동에 참가한 총 인원은 약 1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이에 대한 일제의 탄압으로 120명이 부상 당하고, 200명이 체포 당하였다.

진따배기

통진읍에서 오리정으로 향하는 48번 국도 동편의 들 중 진따배기라는 곳이 있다. 진따배기란 삼한시대에 소도(蘇塗 : 삼한시대에 천신을 제사하던 성지)에 세웠던 장대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 소도에 신과 교감하는 의구(儀具)로서 장대를 세우고 그 끝에 새, 용의 조각이나 방울, 북 등을 달아 천신제를 지냈다. 소도는 지역에 따라 소터·솔터·솟대 등으로, 장대는 짐대로 변화해 전국 여러 곳의 지명에 남아 있다. 마을의 소지명에 짐대배기, 진따배기, 진또배기 등 여러 변형으로 남아있고, 마을 이름에는 짐댓말·진담말로, 방울을 달았던 곳은 영촌(鈴村) 또는 방울터라 불러왔다. 이런 지명이 남아 있는 마을은 삼한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되고 있었고, 또 그런 마을에는 제사장을 겸한 존장(尊長)이 살았었다는 의미가 된다.

4. 군하리 역사·문화의 가치

월곶면은 삼한시대부터 분진현이 위치한 역사가 있는 지역이다. 현재 10개 법정리에 22개 행정리로 되어 있으며, 그 중 7개리가 접경 지역으로 휴전선과 불과 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안보의 요충지다. 접경 지역인 관계로 항공대가 위치해 있고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제한을 받고 있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선시대까지 통진군(현 월곶, 통진, 대곶, 양촌)은 한강을 이용한 십여 개의 뱃길을 끼고 있어 조선시대까지 포구의 고장으로 많은 역사를 품고 있다. 조선시대 말 통진군은 3등 군수가, 김포군은 4등 군수가 다스리는 지역이었다. 통진군의 행정의 중심지가 군하리다. 과거 행정중심지로 많은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곳이고, 개발의 손길에서는 멀리 떨어져 많은 유적들의 발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마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누대에 걸쳐 쌓아 오며 구전(口傳)되던 마을 문화가 점차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상당수는 이미 소실돼 버렸다. 더 이상의 전통문화의 소실을 막기 위해서는 발굴 및 기록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I

군하리 마을 개관

1. 군하리 마을 연혁

김포의 작은 농촌 마을인 월곶면 군하리는 조선시대 통진읍치가 있었던 유서 깊은 마을이다. 지금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의 중심에 위치한 마을로 위도는 37° 42′ N이고, 경도는 126° 33′ E이다. 남북으로 흐르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화도의 동쪽에 위치한 군하리는 군하1리, 2리, 3리로 나뉘어 각각의 이장이 관리하고 있다.

군하리에서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서해와 한강의 풍부한 수산자원과 해상을 통한 교통의 편리, 그리고 농경에 적합한 비옥한 토양을 갖추고 있어 아주 오래 전부터 이곳에 사람이 살아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많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발굴조사된 선사시대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김포군 통진면 가현리에서 출토된 양질의 토탄층(니탄층)은 선사시대부터 이 지역에서 쌀농사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할 수 있으며, 김포군 검단면 대곡리, 통진면 고정리, 김포읍 운양리 등에서 조사된 지석묘는 천혜의 농경문화의 개화와 함께 지석묘 사회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1] 이러한 기반 아래 이곳은 삼국시대로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삼국시대에 이 일대는 삼국의 각축장이었다. 월곶·통진 지역은 고구려의 영토에 속해 있을 때 평회압현(平淮押縣)이라 하여 김포와 함께 군사적 요충지에 해당되었다. 이후 평회압현은 신라 경덕왕 16년에 분진현(汾津縣)으로 고쳐 장제군의 속현이 되었다가 고려 때 통진현으로 고친 다음 공양왕 3년(1391)에 동성, 수안 두 현을 합병하고 비로소 감무를 두었고,

1 기원전 2000년경을 상회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쌀농사의 기원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한다. 김포군지 편찬위원회, 『김포군지』, 1993, pp.1300~1326 참조

〈표 2〉 시대별 군하리 명칭

시대	명칭	내용
삼국시대(고구려)	평회압현(平淮押縣)	· 월곶, 통진 지역
통일신라시대	분진현(分津縣)	· 신라 경덕왕 16년
고려시대	통진현(通津縣)	· 공양왕 3년(1391)에 동성현(하성 지역), 수안현(양촌, 대곶지역)을 합병, 감무를 둠
조선시대	통진현(通津縣) 부내면	· 태종 13년(1413) 현감을 둠
	통진부(府) 부내면	· 숙종 20년(1694) 부(府)로 승격
	통진군(郡) 군내면	· 고종 32년, 33년
1914년	통진군 군내면 군하리 → 김포군 월곶면 군하리	· 김포군에 병합 · 월곶면, 하성면, 양촌면, 대곶면으로 분할 조정 · 군내면 군하리에서 월곶면 군하리로 변경 됨
1983년	김포군 월곶면 군하리 (통진읍 신설)	· 월곶, 하성, 양촌, 대곶면을 분할 합병하여 신설함
1998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조선조에 들어와 태종 13년(1413년)에 현감을 두었다.[2] 숙종20년(1694년)에 통진부(府)로 승격되었다가 고종 32년 개편 때 다시 통진군으로 되었고, 고종 33년에는 3등 군수가 다스리는 군이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통진현의 읍치는 군하리에 있었다. 조선시대 지리지인 『여지도서』에는 "동쪽으로는 교하까지 20리이고, 서쪽으로는 강화까지 10리, 남쪽으로는 김포까지 30리, 북쪽으로는 풍덕까지 10리 떨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14년 3월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통진군에 속했던 부내면(府內面), 보구곶면(甫口串面), 월여곶면(月余串面), 겁을전면(迭乙田面), 소이곶면, 고리곶면, 반이촌면, 질전면, 봉성면, 대파면, 양릉면, 상곶면 등이 지역 조정을 거쳐 월곶, 하성, 양촌, 대곶면으로 되었다. 통진읍치가 있었던 군하리는 부내면(府內面)에서 월곶면(月串面)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3]

1983년 1월 10일 대통령령 11027호에 따라 통진면이 신설되었는데, 월곶, 하성, 양촌, 대곶면의 일부를 분할·합병한 것이다. 이때 월곶면도 축소되었으나, 군하리는 현재까지 월곶면의 면소재지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1998년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함에 따라 현재는 김포시 소속이다.[4] 삼국시대부터의 명칭 변화를 살펴보면, 통진은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본래 독립된 현으로서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평회압현(平淮押縣)으로, 신라 경덕왕 때에는 분진현(分津縣)으로 불리다가 고려시대에 통진현(通津縣)으로 개칭되었다. '분진'과 '통진'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분진'은 월곶면의 북쪽을 동에서 서로 흐르는 조강(祖江)이 유도(留島)를 기점으로 다시 남과 서로 갈라져 흐르기 때문에 분진(分津)이라 하였다 한다. 분진은 갈래나루보다는 큰 나루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성이 있고, 그것을 또 다른 훈차의 방법으로 표기한 것이 통진(通津)이다. 통(通)의 의미가 '달통하다'이고 달(達)은 고대의 지명표기에서 '높다(高)' 또는 '크다(大)'의 뜻으로 사용되므로, 평회압·분진·통진은 모두 '큰·강·고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지명이라 할 수 있다.[5]

2. 군하리 마을 자연환경

군하리는 지역적으로 강화도 인근의 김포시 권역에 있어 이 일대의 자연환경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포시 일대는 군하리가 속한 월곶면을 포함해 하성면, 대곶면, 양촌면, 통진읍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적으로 산지 면적이 34%에 불과하여 산지라고 해도 비교적 평탄하며, 해발 100m 이하의 저산성 구릉지가 서북쪽으로 분포할 뿐 대부분이 평탄한 평야지형을 이룬다. 비교적 높은 산으로는 월곶면 문수산(文殊山, 376m)과 검단면 가현산(歌絃山, 215m), 김포시의 장릉산(章陵山, 150m)이 있다. 김포시는 서해로부터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그림 1〉 경기도 김포시 행정구역도

2 「김포시의 연혁」, 김포시청 홈페이지 참조
3 앞의 책, pp.5~8 참조
4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2008. p.12.
5 국토지리정보원, 통진읍(通津邑, Tongjin-eup),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 2008. p.12.

〈그림 2〉 군하리 주변 지형도

데, 한강 유역을 따라 양촌면, 하성면으로 김포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다.

북쪽과 동쪽으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각각 북한 개풍군과 파주시·고양시, 남쪽과 염하를 사이에 둔 서쪽으로 인천광역시, 남동쪽으로 서울특별시에 접한다. 강화만 및 한강 하구부·염하 등이 3면을 둘러싸 반도 형태를 이루어 김포반도라 부른다. 기반암은 주로 시생대의 화강편마암과 중생대 대동계의 혈암 및 사암으로 되어 있다. 서부에 문수산(文殊山, 376m)·장릉산(章陵山, 150m)·수안산(遂安山, 147m) 등의 낮은 산들이 소구릉군을 이루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준평원화되어 있다. 한강에 의한 토사의 운반·퇴적으로 이루어진 영등포에서 김포에 이르는 넓은 지역으로, 농경에 적합한 김포평야를 이룬다. 한국 최초의 벼 재배지이자 농경문화의 근원지이다.

해안에 있어 내륙인 서울보다 온화한 기후를 나타내지만, 같은 위도의 동해안에 비하면 겨울에 북서풍의 영향으로 훨씬 춥다. 연평균 기온 11.7℃, 1월 평균 0.1℃, 8월 평균 25.3℃이며, 강수량은 연평균 1,319mm로 비교적 많다. 동경 126°32′ ~ 126°48′, 북위 37°24′ ~ 37°46′에 위치하고 있다.

군하리가 있는 월곶면의 북쪽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휴전선 너머 개풍군과 대하고, 동쪽은 하성면(霞城面)·통진읍(通津邑), 남쪽은 대곶면(大串面)·양촌읍(陽村邑)과 접하며, 서쪽은 염하(鹽河)를 건너 강화읍과 마주본다. 김포반도에서 가장 높은 문수산(文殊山, 376m)이 면의 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서고동저(西高東低)의 지형을 나타낸다. 해발고도 300~400m의 구릉이 보일 뿐 대체로 평야지대이다. 북부의 한강 하구와 중부 저지대에서는 벼농사, 서부 지역에서는 주로 밭농사가 이루어진다. 주요 농산물은 쌀·보리·콩·인삼 등이며, 그밖에 채소·과일 등의 수확도 많다. 또한 수산업도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강화 간 4차선 국도가 면의 동서를 관통하고 있으며, 국도가 지나는 군하리(郡下里)가 교통의 요지를 이룬다.[6]

군하리 주변의 자연환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북쪽으로 해발 376.1m의 문수산 지맥이 내려와 마을의 배산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그 산줄기가 동서로 연장되어 군하리를 감싸고 있다. 마을의 남쪽으로는 동에서 서로 흘러 한강과 합류하는 지천인 남천(南川)이 있고, 그 주변(마을의 남쪽과 남동쪽)으로 넓은 농토가 위치해 있다. 마을의 남쪽에는 남산이 안산으로 마주하고 있으며, 그 동쪽 갈산리에도 야트막한 구릉이 자리잡고 있어 전체적으로 배산임수 등 풍수 지리적으로 길지임을 알 수 있다. 북동쪽 강화도 방향에서 내려오는 48번 국도는 통진읍과 양촌읍, 김포시로 향해 있는데, 군하리가 강화도와 서울을 이어주는 관문 역할을 한다. 이 48번 국도는 서쪽으로 강화대교와 이어져 강화도로 연결된다. 남천은 포내천(浦內川)이라고도 하는데, 발원지는 통진읍 옹정리 절골이고, 하구는 월곶면 포내리 해안선이다. 길이는 총 11km인데, 주변으로 포내리, 문수산성, 문수산, 것고개, 오봉산, 180고지, 포내리가 위치해 있다.

포내천의 교량으로는 갑산교, 오리교, 갈산교, 군하교(군하리 마을 동쪽과 서쪽에 2개소 있음)가 있다. 포내천이 지나는 행정구역은 통진읍 옹정리와 월곶면 갈산리, 군하리, 포내리이다. 포내천의 유로를 따라 살펴보면, 통진읍 옹정리와 가현리, 대곶면 석정리 경계의 야트막한 산지(해발 70m)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흐르는데, 월곶면 갈산리 서쪽에서 유로를 서쪽으로 바꾸고 군하리 남동쪽 문수산에서 발원한 냇물과 합쳐 흐른다. 포내리 남쪽에서 유로를 북쪽으로 꺾었다가 다시 북서쪽으로 감입 곡류하여 흐르다가 염하로 흘러든다.[7]

6 김포시(Gimpo-si, 金浦市), 두산백과 참조

7 김포군, 『김포군지』, 1993, pp.14~31 참조

3. 군하리 마을 인문·사회 환경[8]

군하리는 월곶면에 속한 마을로 월곶면사무소가 위치해 있으며 월곶면의 면소재지이기도 하다. 월곶면의 면적은 51.91km²이고, 인구수는 5,697명이다. 총 10개의 리로 구성되어있고, 행정리로는 22개리로 구성되어 있다.[9] 군하리는 1리, 2리, 3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48번 국도와 포내천을 중심에 두고 1리와 2·3리가 나뉘어 있다.

군하리의 총 세대수는 500세대이다. 이 중 군하1리가 385세대로 총 500세대 중 77%를 차지하는데, 이를 통해서도 군하1리가 마을을 중심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군하2리(봉골)가 66세대이고, 군하3리(곰배)가 49세대로 가장 적다. 군하리의 전체 인구수는 총 937명인데, 이중 남자가 525명으로 여자에 비해 조금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군하리의 인구수는 월곶면 전체 인구수 대비 약 17%인데, 10개리임을 생각할 때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군하1리가 월곶면사무소 소재지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10]

월곶면사무소는 원래 월곶초등학교 동쪽(통진관아터)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2016년 5월 30일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였다. 구 월곶면사무소에서 30년 동안 이 지역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이를 마감하고 신청사로 이전한 것이다. 먼저 구청사를 살펴보면, 본관과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2층 규모이다. 본관 1층에는 민원실(복지, 민원, 산업개발팀), 보건지소가 있었고, 2층에는 면장실과 주민자치위원회실, 총무팀, 농업인상담소 등이 위치해 있었다. 별관에는 환경반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신청사는 군하로 263번지(군하리 188-11) 일대로 마을중심도로에서 남쪽에 해당하는 부지로 이전하였다. 신청사는 복합청사로 구성되었는데, 월곶면 복지회관이 위치한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2,338.72㎡)로 62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존의 면사무소 업무 뿐 아니라 헬스장, 에어로빅, 요가, 노래교실 등 주민의 문화와 여가를 지

8 김포시, 『金浦市史 Ⅵ』, 2011, 참조

9 일반현황은 2016년 7월 말 현재 기준이며, 월곶면사무소 홈페이지(http://www.gimpo.go.kr/wolgot)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10 월곶면 관내현황(월곶면사무소 제공, 2016년 6월 30일 기준)

〈그림 3〉 구 월곶면사무소(관아터)

〈그림 4〉 현 월곶면사무소

〈표 3〉 월곶면 행정통계 및 군하리 세대수, 인구수 (2016년 6월 30일 기준)

면적	세대수	인구수	주민조직		주택수		
			통	반	총계	농가	비농가
51.91㎢	2,960	5,697	22	45	2,948	737	2,211
법정리	행정리						
군하리	군하1리, 군하2리, 군하3리						
고막리	고막1리, 고막2리						
갈산리	갈산1리, 갈산2리, 갈산3리						
고양리	고양1리, 고양2리						
포내리	포내1리, 포내2리						
성동리	성동1리, 성동2리						
보구곶리	보구곶리						
용강리	용강리						
조강리	조강1리, 조강2리						
개곡리	개곡1리, 개곡2리, 개곡3리, 개곡4리						
행정리명	세대수(비율)	남자수	여자수	전체인구수	비율(%) (월곶면 전체 인구 대비)		
군하1리	385(77%)	387	313	700	12		
군하2리	66(13%)	88	56	144	3		
군하3리	49(10%)	50	43	93	2		
계	500(100%)	525	412	937	17		

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지상 1층은 복지팀, 민원팀, 산업개발팀 업무를 위한 공간과 보건지소로, 지상 2층은

〈그림 5〉 월곶국민학교 전경(1965년)

〈그림 6〉 월곶초등학교

〈그림 7〉 분진중학교 전경

〈그림 8〉 김포국제조각공원, 청소년수련관 전경

총무팀을 비롯한 농업인상담소, 주민자치위원회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지상 3층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과 대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다.[11]

교육시설은 월곶초등학교와 분진중학교가 있고, 전통교육시설로는 통진향교가 있다.[12]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월곶초등학교는 1908년 4월 10일 분진학당 설립을 시작으로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1910년 3월 '통진공립보통학교'로 4년제 인가를 받았고, 1941년 4월에는 '월곳국민학교'로 교명이 개명되었다.(6년제) 1952년 7월에는 현재의 위치로 학교가 이전되었고, 1995년 3월에는 문수초등학교와 통·폐합되었다. 1997

11 "김포시 월곶면사무소 새 청사시대 맞는다", 경기일보, 2016년 05월 24일 화요일 기사 참조

12 통진향교는 뒤에서 별도로 다루고자 한다.

〈표 4〉 군하리 공공시설

위치	명칭	위치	비고
군하1리	월곶면사무소	군하리 188-10	군하노인회 사무실
	월곶면 보건지소	군하리 83-2	
	월곶의용소방대	군하리 83-2	
	월곶파출소	군하리 214	
	김포월곶우체국	군하리 204	
	농협신김포월곶지점	군하리 108	
	군하1리 경로당	군하리 136	
군하2리	군하2리 마을회관, 경로당	군하리 323-89	봉골
군하3리	군하3리 새마을회관, 경로당	군하리 410-2	곰배

년 1월 교명이 월곳에서 월곶으로 변경되었으며, 2005년에는 학교 숲 조성이 준공되었다. 2011년 기준 교직원 40명, 학생 187명이다.

군하리 노인회장이신 황용군(76) 어르신의 증언에 따르면, 원래의 학교자리는 향교 앞 도로변에 있었다고 한다. 그 자리는 조선시대 분진관(객사)이 있던 자리이다.[13] 이후 6·25전쟁 때 공습을 받아 국민학교가 완전히 불에 전소되었고, 이로 인해 학생 일부는 고양리에 있는 '미곡공출창고(일제시대 건물)'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그곳으로 배우러 다녔고, 일부 학생은 개곡4리에 있는 가오루교회로 배우러 다녔다고 한다. 그 후에 통진향교에 모여서 공부하다가 미군들이 정문 오른쪽에 단층목조 4동을 지어주면서 학교터를 잡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때가 아마도 1952년 7월의 일로 추정된다.

분진중학교는 월곶면 군하리 70번지에 위치해 있는데, 옛 지명으로 보았을 때 구생골 끝자락에 해당한다. 1962~1964년에는 분진고등공민학교로 불렸으며, 1964년 3월 분진중학교로 개교하였다. 1979년 12월 학교법인 분진학원이 부지를 매입해서 1983년 3월에는 신축 교사로 이전하였다. 1991년 6월 특별실과 강당, 화장실 등이 준공되었으며, 2003년 3월에는 도서관이 개관하였다.

공원으로는 김포국제조각공원이 있는데, 일부가 군하리에 포함되어 있다. 월곶면 고

13 전 김포문화재단 류지만 선생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객사를 초등학교로 이용했었는데, '월곶신상소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한다. 당시 객사 정청을 강학 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림 9〉 군하1리 경로당

〈그림 10〉 군하2리 경로당, 마을회관

〈그림 11〉 군하3리 경로당, 마을회관

〈그림 12〉 월곶의용소방대

〈그림 13〉 월곶파출소

〈그림 14〉 월곶우체국

막리 435-14번지에 위치해 있는 '통일'을 테마로 만들어진 세계 유일의 테마공원으로, 지오바니 안셀모 등 세계적 조각 작가 16명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되어있다고 한다.

이밖에 공공시설로는 월곶면사무소와 월곶면보건지소, 월곶의용소방대, 월곶파출소, 김포월곶우체국, 농협신김포월곶지점 등이 있는데, 대부분 구 월곶면사무소 인근에 모여 있다. 한편, 마을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있는데, 군하2리와 3리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한 건물이다. 월곶면사무소에는 군하노인회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종교시설로는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월곶제일교회가 있다.

4. 군하리 마을 지명 유래

1) 통진, 통진시장 등

군하리는 옛 통진현 읍치가 있던 곳으로 지금까지 그 지명이 많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 지방 읍치는 지방 고을의 중심 공간을 말하는데, 군하리 역시 이 일대의 중심이었다. 군하리는 일명 '통진(通津)마을'이라고도 하는데, 옛 읍터가 있던 마을이라 '읍내(邑內)'

〈표 5〉 군하리 옛 지명

지명	구분	내용 / 동일 지명
통진(通津)	마을	옛 군하리 지명 / 통진읍(通津邑), 읍내(邑內), 통진고을터
통진군청(通津郡廳)터	터	옛 통진읍 서쪽에 있는 옛 통진현의 관아터, 예전 면사무소가 터 / 통진부터(通津府)
사청터	터	구시장 안쪽 군하리 137번지에 있는 옛 통진현의 사창터
사청우물(우물)	터	통진현의 사창터에 있던 우물
보도청터	터	군하리 137번지에 있는 옛 통진현의 포도청터
통진시장(通津市場)	터	옛 통진읍 동쪽에 있는 시장, 3일, 8일에 섰는데 서암리로 옮겨감 / 통진읍장(通津邑場), 통진장(通津場), 통진장(通津場)터, 읍내장(邑內場), 읍내장터(마을), 시장터(마을), 구시장(마을)
통진향교(通津鄕校)	고적	군하리 88번지에 있는 통진 고을의 향교, 조선 제2대 정종 때 창건되었는데, 일제강점기 김포향교에 합쳤다가 해방 뒤 복구됨
향교말	마을	통진향교 주변 마을/ 향교촌(鄕校村), 향곳골, 향교촌봉골

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또한 옛 월곶면사무소터가 통진읍치가 있던 터인데, '통진고을터[통진군청터, 통진부터, 사청터(군하리 137번지)]'라고도 하며, 이곳에 우물이 있었는데 이를 '사청우물'이라 불렀고, '보도청터'는 군하리 137번지에 있었던 옛 통진현의 포도청터라고 한다.

통진에는 큰 시장이 열렸는데, 읍치의 남쪽 대로변이 시장터로 3일, 8일에 장이 섰다고 한다. '통진시장(通津市場)', '통진읍장(通津邑場)', '통진장(通津場)', '읍내장(邑內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지방 읍치는 고을의 행정이 행해지는 곳으로 각종 관청과 부속 건물, 사직단과 같은 제사시설, 교육시설인 향교, 상업시설인 장시 등이 들어선다. 군하리에도 통진향교가 관아터 서쪽 풍광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마을사람들은 이곳을 '향교말(향교마을)', '웃마을' 등으로 지금까지 부르고 있다.

2) 마을, 골짜기

옛 지명에 '골'은 골짜기를 뜻하기도 하고, '고을'의 준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군하리도 산에 기대어 자연지형 지세에 순응하며 자리 잡은 고을로, 각 골짜기마다 지명이 있고, 작은 마을에도 나름의 지명이 남아 있다.

우선, 옛 읍치가 있던 군하1리는 3개의 지명으로 나뉘는데, 향교 주변을 '웃말', 읍치가 있던 곳은 '간뎃말', 그 아래쪽 마을 초입을 '아랫말'이라 한다. 지형으로 보았을 때 포내천이 동에서 서쪽으로 흘러 향교 쪽이 가장 하류에 해당하는데 이곳을 '웃말'이라 한 이유는 옛 선현들이 모셔져 있기 때문이라 한다. 인문학적 위계가 자연 지형지세 보다 우위를 차지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차례로 가장 상류 쪽이 '아랫말'이 되었으며, 그 중간이 '간뎃말'이 된 것이라 한다.

군하2리는 '봉골'이라 불리는데, 남산 봉수대와 관련이 깊다. 군하1리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안산 역할을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이 남산이다. 남산에는 봉수대가 있고, 그 아랫마을이 봉골이다. 봉수대로 올라가는 골짜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은 마을로 자리 잡았다. 봉골 '한우' 노인회장님 인터뷰를 통해 봉골의 자세한 유래를 알 수 있었다.

> "군하2리는 봉골, 봉호뚝이라고 하는데, 남산에 봉화불을 지피러 가는 길과 관련이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이곳에 왜놈이 한 놈 살았는데, 묘목을 키워 다발로 묶어 팔았다. 7, 8세 때 나도 해본적이 있다. 이 일대는 왜놈들 땅이었다. 광복 이후 대곶면 이장이 와서 이곳을 접수했는데, 그 때만해도 이곳에는 1집만 있었다. 6·25 이후 군하리에서 피난 온 사람과 주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와서 마을을 이루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17살 때 대곶에서 소작농을 하다가 이곳에 들어왔다(1931년경,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지금 102살 되신다). 6·25 때까지 남산 봉수대가 남아 있었는데, 미군들이 들어와서 파괴했다. 7명이 주둔하면서 파괴했다. 그 인근에 우물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이곳에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너머 봉골에는 열녀문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다. 6·25 이후 집을 새로 지을 때 이곳에서 기와가 많이 나왔다. 6·25 이후 이곳에 산 사람은 4집밖에 없었다."

군하3리는 '곰배'라 불리는데, '곰배'는 '곰바위'의 준말이다. '곰바위'에서 '곰'은 동물 곰같이 생겼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하지만 '크다', '큰'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곰바위는 '큰바위'로 그 의미를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14]

군하1리에서 포내리로 넘어가는 지점에 곰바위가 있는데 그 맞은편 마을이 곰배마을이다. 곰배는 웅암이라고도 불린다. 마을 어귀 포내천변에는 병풍처럼 생긴 평풍바위도 있다.[15] 이 밖에도 통진읍 서북쪽에 있는 고무랫골, 곰배 남쪽의 길골, 곰배 동쪽에 있는 골짜기인 배나무골, 군하리와 포내리 경계에 있는 능굴(능골), 분진중학교 인근의 구생골, 봉골 서쪽 남산에 있는 남산골 등의 지명이 있다. 아헛물은 통진현터 뒤에 있는 우물이라 하기도 하고, 골짜기 물이라고도 한다.

14 전 김포문화원장 류지만 선생님의 의견에 따른 것임.

15 전 김포문화원장 류지만 선생님에 따르면 평풍바위에 너구리굴이 있었는데, 불을 피워서 너구리를 잡기도 했다고 한다.

〈표 6〉 군하리 마을 지명

지명	구분	내용 / 동일 지명
웃말	마을	옛 통진읍의 위쪽 마을, 윗말
간뎃말	마을	옛 통진읍의 위쪽 마을
아랫말	마을	옛 통진읍의 위쪽 마을
봉골	마을	곰배 동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봉웃둑(군 산천) 밑임. 남산에 있는 봉수대로 올라가는 옛길이 있었다고 함. / 봉곡(峰谷), 봉웃골, 봉웃굴, 봉웃골
곰바위(곰배)	마을	곰배, 곰바위, 웅암리, 웅암동, 웅암이라고도 하는데, 마을 입구의 곰바위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 웅암(熊岩), 곰배, 웅암동, 웅암리(熊岩里), 웅앰
곰바위	바위	군하1리에서 곰배마을로 돌아 넘어가는 곳에 있는 큰 바위이다. / 웅암(熊岩), 곰바위
곰배모퉁이(모롱이)	모퉁이	곰배 서쪽에 있는 모퉁이라 한다.
곰배약수터	약수터	곰배모퉁이에 있는 미륵당터를 지나서 현재 실버타운을 짓고 있는 자리 안쪽에 약수터가 있었다고 한다.
평풍바위(바위)	바위	곰배 서쪽에 있는 바위, 병풍처럼 생겼다고 한다. 하수종말처리장 앞 건너편에 있는 바위이다. 평풍바위 모퉁이 또는 평풍바위 모롱이는 평풍바위 밑에 있는 모퉁이를 뜻한다. / 편풍바위, 병풍바위
고무랫골	골짜기	옛 통진읍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고무래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현재 한성레미콘 안쪽 골짜기를 이른다.
배나뭇골(뱃골)	골짜기	곰바위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배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능굴	골짜기	군하리와 포내리 경계에 있는 골짜기로 골짜기 안쪽에 능이 있었다 한다. / 능딧굴, 능등골
구생골	골짜기	마을의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그 끝에는 현재 분진중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예전에 이곳에 통진향교가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 우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승굴우물이다.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 구승굴, 구생골, 구승굴, 구숭굴
긴 골	골짜기 고개	곰바위 남쪽에 있는 긴 골짜기로 이 골짜기를 넘어가면 고양리이다. / 긴골고개
남산골	골짜기	봉골 서쪽 남산(군 산천)에 있는 골짜기이다. / 남산골짜기
아헛물(골짜기)	골짜기 우물	통진 이청 뒤편, 통진군터 뒤에 있는 우물로 현재 통진초등학교 인근이다. 아헛물 위에 있는 골짜기가 아헛물 골짜기이다. / 암물, 아헛물, 아후물, 암물골짜기, 아후물, 아헛골짜기, 아후물골짜기

황용군 노인회장님에 따르면 문수산에서 내려오는 물 아홉 갈래가 모여든다고 하여 아홉에서 아헛이 나왔다고 한다. 예전에는 물이 매우 맑고 시원했다고 한다. 지금은 그 자리가 없어졌는데, 현재의 통진초등학교 운동장 산기슭을 돌아 나오는 계곡물이 아헛물의 흔적이다. 이 물은 옛 면사무소 인근(의용소방대)에서 모였다고 한다.

군하리는 농촌마을답게 주변에 농경지가 넓게 자리잡고 있다. 군하1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면사무소 중심도로 너머로 포내천까지 논밭이 펼쳐져 있고, 포내천 너머와

〈표 7〉 군하리 경작지 지명

지명	구분	내용 / 동일 지명
한섬지기	논	옛 통진읍 동남쪽에 있는 논으로 큰 웅덩이가 있었고, 10가마니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논으로 약 2,000평 정도라고 한다.
진따배기	논	옛 통진읍 앞에 있는 논, 짐대가 섰던 논이라고 한다.
옥텃논	논	군하리 201의 4번지에 있는 논, 통진현의 감옥이 있던 자리라고 한다.
보밑	논	한섬지기 위에 있는 논, 보 밑이 된다.
보안	들	곰배 서쪽에 있는 들로, 포내보 안쪽에 있는 들이라고 한다.
둔전(屯田)들	들	옛 통진읍 앞에 있는 들, 둔전이 있었다고 한다. 한섬지기 위쪽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고만배기	논	남천교 동쪽에 있는 논이다.
밤나무밭	밭	옛 통진읍 서쪽에 있던 밤나무 밭으로 지금은 월곶초등학교 남쪽 산에 지금도 밤나무가 많이 있다.
밭논들	들	봉골 북쪽에 있는 들과 밭이라고 한다.
드래미	논	진따배기 아래에 있는 논이다.
남천교(南川橋)	다리	군하교(郡下橋)로 군하리 동쪽 어귀에 포내천을 건너 군하1리로 들어오는 다리이다.
군하릿보	보	군하리에 있는 보이다.
둔전보(屯田洑)	보	둔전들에 있는 보이다.
강남	모퉁이	곰배 서쪽에 있는 모퉁이, 강담모퉁이는 곰배 서쪽에 있는 모퉁이라고 하는데, 평풍바위 인근으로 추정된다. / 강담 모퉁이, 강담
노루번덕지(버덩)	들	긴골 서쪽에 있는 버덩으로 노루가 많았다 한다. / 노루번데집
청룡뿌리	터	군하리 청룡(왼쪽)에 있는 산부리라고 한다.
대나룻고개	고개	곰배 서남쪽 포내리의 대나루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이다.
둥더모퉁이	모퉁이	군하리와 고막리 경계의 모퉁이다. / 둥더모퉁이, 둥두모퉁이(모롱이), 둥더모퉁이
망재	산	옛 통진 동남쪽에 있는 낮은 산으로 망보던 곳이라고 한다.
무네밋고개	고개	군하리에서 포내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수유현
미력당터	터	곰배모퉁이에 있는 미륵당의 터, 높이 약 1.2m의 미륵이 있던 장소이다. 미륵불은 현재 곰배마을에 있다.
용허리길	길	봉골 중간에 동서로 난 옛길이다. 부잣집 며느리의 인심에 대한 전설이 내려온다.

군하리 동편 일대, 곰배마을 북쪽 일대가 모두 경작지이다. 각각의 경작지 마다 별도의 지명이 있어 넓은 농경지에서 그 위치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섬지기는 통진읍 동남쪽에 있는 논으로 추수를 하였을 때 한 섬 정도의 곡식이 생산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고, 진따배기는 짐대가 섰던 자리의 농경지라고 한다. 옥텃논은 통진현 시절 감옥이 있었던 자리이고, 보밑은 말 그대로 보 밑에 있는 논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보안들은 곰배 서쪽에 있는 포내보 안쪽에 있는 논이고, 둔전들은 통

〈그림 15〉 군하리 옛 지명(1966년 통진 수치지형도에 표기)

〈그림 16〉 군하리 옛 지명[현재 지도(Daum지도)에 옛 지명 표기]

진읍 바로 앞에 있었던 논으로 추정된다. 고만배기는 남천교 동쪽에 있는 논이고, 밤나무 밭은 월곶초등학교 자리에 많았던 밤나무 숲을 가리킨다. 밭, 논들은 봉골 북쪽에 있는 들이라 하며, 드래미는 진따배기 아래에 있는 논이라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마을 앞은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포내천을 따라 다리와 보가 설치되어있는데, 남천교는 군하교의 다른 이름이다. 군하리에는 '군하교'라는 이름의 총 4개의 다리가 있다. 갈산사거리에서 군하리로 들어오는 다리(남천교, 군하교)와 월곶면사무소 남쪽에 있는 다리, 김포대로에 포내천을 건너는 다리, 마지막으로 군하1리와 군하3리(곰배)를 잇는 다리이다. 포내천에는 '보'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포내보만 확인 가능하고, 군하보는 사라지고 없다.

군하리는 포내천이 동쪽에서 합류해서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곰배에서 굽이쳐 흘러 북쪽 포내리 방향으로 틀어 염하로 흘러든다. 또한 주변에 문수산 자락과 남산 등이 있어 산세가 수려하다. 이러한 자연환경에서 옛길은 모퉁이를 돌아가거나, 고개나 재를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특정 지형마다 지명이 있어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지역

〈그림 17〉 군하1리(옛 통진읍치) 마을 전경

〈그림 18〉 제일교회에서 바라본 군하리 마을 전경 및 남산 봉수대

정보와 지형 정보를 제공해 주어 편리하고 안전한 여정이 되도록 도움을 준다.

강남모퉁이는 곰배 서쪽에 있는 모퉁이라고 하는데, 평풍바위 인근으로 추정된다. 노루번덕지는 긴골 서쪽 버덩에 노루가 많이 출몰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군하3리 류지형 이장님에 따르면 지금도 노루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 10여 년 전에도 이곳에서 노루를 잡았다고 한다. 참 이상하게도 노루가 산으로 다니다가 밤이면 이곳을 찾아 자고 간다고 한다. 위치는 평풍바위 앞쪽 논 인근이라고 한다.

청룡뿌리는 군하리 청룡(왼쪽)의 산부리라고 하는데, 봉골 노인회장인 '한우' 선생님에 따르면 봉골과 갈산리 사이인 포내천과 갈산교 주변을 청룡뿌리라 불렀다고 한다. 대나룻고개는 곰배마을 서남쪽에 있는 고개로 포내리 대나루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칭하며, 둥더모퉁이는 군하리와 고막리의 경계를 지칭하는 지명으로 서경빌라 인근의 산모퉁이를 살짝 돌아가는 곳이다.

망재는 군하리 동남쪽에 있는 작은 언덕배기로 예전에 망을 보던 곳이라고 한다. 무네밋고개는 고지도에 수유현이라 되어 있는데, 군하리에서 포내리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지칭한다. 무네밋고개와 포내천 사이에 굽이쳐 솟아 오른 봉우리를 태봉산이라 하는데, 옛날 어느 공주의 '태(胎)'를 묻었다 하여 '태봉산'이라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미럭당터는 '미륵당터'의 지역 발음으로, 곰배모퉁이에 미륵불(석불)이 서 있던 곳이라 한다. 미륵불은 현재 곰배마을에 있다.[16]

용허리길은 봉골 중간을 가로지르는 길로 이 길과 관련된 전설이 내려오는데, 곰배에 큰 부자가 살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거지들이 날마다 모여 밥을 얻어먹었다고 한다. 그 집 며느리가 이것을 몹시 싫어하던 끝에 동냥 온 중에게 사람들이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물었더니 집 뒤편으로 길을 내고 밤중에 머리를 풀고 빗질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대로 하였더니 그 부잣집은 얼마 못 가 망해버렸다고 한다. 이렇듯 군하리(통진, 곰배, 봉골)에는 옛 지명이 많이 남아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비교적 총기가 있으신 몇몇 어르신들을 제외하면 옛 지명을 기억하는 사람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명은 주로 마을 이름(통진, 곰배, 봉골)과 웃말, 간뎃말, 아랫말, 장터 등이 있다.

16 전 김포문화원장을 역임하신 류지만 선생님에 따르면 미륵당터에 초가집이 하나 있었는데, 방 한 칸에 미륵불을 모셔놓고, 다른 방에는 한학을 하신 이진용 선생님(소아마비 장애가 있으셨다고 한다)이 생활하고 계셨다고 한다. 류지만 선생님은 유년시절 이진용 선생님에게 한문을 배웠다고 한다.

〈그림 19〉 통진향교와 향곳말 (웃말)

〈그림 20〉 구월곶면사무소(통진관아터)
[아래부터 객사터(구 월곶초등학교터), 통진이청, 월곶초등학교]

〈그림 21〉 아헛물 터(월곶초등학교)

〈그림 22〉 통진관아 터(사청터)

〈그림 23〉 남산, 남산봉수대

〈그림 24〉 통진장터

〈그림 25〉 옛 우시장 터

〈그림 26〉 구생골

〈그림 27〉 구생골

〈그림 28〉 둥더모퉁이

〈그림 29〉 포내천(남천)

〈그림 30〉 옥터논, 둔전들, 진따배기

〈그림 31〉 군하리보 자리

〈그림 32〉 무네미고개(수현)

〈그림 33〉 능골

〈그림 34〉 강남모퉁이, 미륵당터(군하1리에서 촬영)

〈그림 35〉 긴골

〈그림 36〉 고무렛골(한성레미콘)

〈그림 37〉 포내보

〈그림 38〉 편풍바위(병풍바위)

〈그림 39〉 보안들, 노루번덕지

〈그림 40〉 한섬지기

〈그림 41〉 용허리길(이 길 너머에 너머봉골이 있음)

〈그림 42〉 너머봉골

〈그림 43〉 통진향교

〈그림 44〉 미륵불

5. 군하리 마을 인물

1) 주요 성씨

군하리 토박이 문화 류씨와 강화 덕포에서 입향한 전주 류씨

전술했듯이 군하리는 한반도의 중심지에서 서부로 가는 가장 중요한 도로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농업 중심 촌락과 입향조와는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인 농업 중심 촌락에서 입향조라 함은 주요가문의 최소 5대 정도의 거주와 집성촌, 그리고 성씨의 세거지 등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러나 군하리는 고대부터 언제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촌락의 입향조와 같은 주요 가문이나 성씨를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대 이상 군하리에서 거주하여 마을의 의사 결정에 중심 역할을 하는 주요 성씨는 존재한다. 다음은 문화 류씨의 군하리 입향에 관한 증언이다.

"(그 문화 류씨가 군하리에서 오래 사신 집안에 속하잖아요. 맨 처음에 할아버지는 몇 대손 할아버지가 내려오셨어요?) 저희요? 제가 알기로는 30대, 제가, 제가 33손이니깐 20, 28대. 27~28대일 걸요. 아마. 왜냐면은 제가 시향하는 거기에 (시향 하세요?) 그럼요. 시향 지내죠. 거기 비에 보면은 몇 대손, 몇 대손 나오잖아요. (27대 아니면 28대조가 내려오셨다는 거죠.) 예예, 그때 군하리에 계셨을 거예요. (군하1리로요. 그때 왜 어디 계시다가 내려와서 자리를 잡게 되셨는지 혹시 뭐 옛날 어른들한테 들으신 거?) 글쎄, 그거는 뭐 원래 시흥인데, 시흥이요. 어 지금 거기 다 문화재로 해놨어요. 류지만 형님이. 그건 뭐 지만이 형님한테 여쭤봐야 잘 알거고. 원래는 황해도 구월산서부터 내려온건데 (황해도) 구월산. 거기 무슨 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 지만이 형님한테 다 여쭤봐야 알지. 저도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서 여쭤 볼 관심이 없어갖고. (황해도에서 시흥으로 갔다가 시흥에서 이쪽 27대, 28대 입향 하셨어요.) 예예. 그러셨을거야 아마. 제가 알기에는 저희하고 백 씨네하고 한 씨네하고 세 집이 군하리에 아마 제일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류씨, 백씨, 한씨 세 가문) (그러면 그 류지만 형님? 사촌형님이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하고는 열춘간이에요. 10촌 됐어요 10촌. (10촌. 그 분은 역대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런 얘기를 잘 아세요?) 아, 그럼요. 그 형님은 문화원장도 하셨고. 그래서 (그 내력을 공부를 많이 하셨겠네요?) 아, 그럼요. 원래 국어선생님이셨고. 또 그 문화재, 김포시 문화재 발간 책자 그런 거 다 개입해서 하셨고, 또 우리 그 문화 류씨, 안산 종친회 그런데 지금도 회장이시고 하지만, 그 시향 지내고 이런 걸 다 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다 시흥시에서 관리를 해요. 거기서 다 총괄. 시흥에 가면 우리. (시흥에서?) 예, 그런 거를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깐 뭐 시간을 못 내실 정도로 바쁘시지. 엊그저께도 저번에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오셨더랬는데. 연세 많으시고 지금 여든 하나인가 둘인가 되셨어요. (이장님은 여기 이장을 언제부터 하신거예요?) 저요? 저 올해 6년째 보는 거예요. 올해 마지막이에요. (2년씩 3번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3년씩 두 번째 마지막 해에요. (그리고 2010년부터 하셨어요? 이번엔 연임 못 하시나요 이제?) 이제 못 해요. 안 할 거죠. 저 농협에 이사가 되갖고 힘들어요. 거기 쪽 일보느라고.

〈그림 45〉 류지형(60년생), 군하3리 이장

류지형 / 군하3리 이장[17]

위 기사의 문화 류씨의 입향처럼 5대 내외 정도 군하리에 거주 하며 현재 군하리를 선도하는 주요 성씨는 오씨, 조씨, 전씨, 김씨가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에 이주한 각성받이가 많다. 전형적인 농업 촌락에 비해 그 종류가 많은데 씨족별 거주의 역사가 길지 않고 근현대에 이주한 이주민 주요 성씨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각 성씨의 집성촌은 따로 없으며 군하리의 농지와 주요 상가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다. 전주 류씨는 강화에서 군하리로 입향하였으며 지역에 정착한 세대는 3대 정도로 길지 않으나 이미 군하리의 주요 성씨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17 류지형(56세) 인터뷰 채록, 2016. 7. 11, 군하3리, 조사자 남찬원.

2) 군하리를 빛낸 인물

조선 이후 군하리의 근현대 역사에서 지역민의 생활을 확연하게 변화시킨 가장 큰 사건은 경술국치로 대표되는 한일강제합병일 것이다. 실제로 3·1만세운동은 당일 서울에서의 만세 운동 이후 각 지역으로 전파되어 일시에 차이를 두고 각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진다. 군하리 역시 지역 만세운동이 벌어진 중심지였다.

3·1만세운동 이후 김포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만세운동이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군하리에서 벌어진 운동은 '월곶면 군하리장터 만세운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월곶면 군하리장터 만세운동은 월곶면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만세운동 중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개된 세 차례의 만세운동을 함께 부르는 명칭이다. 이 세 차례 만세운동의 중심지가 현재 군하1리의 가운데 지역에 위치한 군하리장터였다.

〈그림 46〉 월곶면 만세운동 유적비 안내판

일제 법원기록에 나타난 사건 개요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29일의 조강리 만세운동을 제외하고 군하리장터 중심의 만세운동은 다음과 같은 경과로 진행된다.

개요에 드러난 기록이 남아 있는 주요 독립운동가는 성태영, 백일환, 이살눔, 박용희, 조남윤, 정인교, 윤종근, 민창식, 임용우, 최복석, 윤영규이며 이중 군하리 출신이면서 동시에 군하리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백일환과 이살눔이다.

〈표 8〉 월곶면 군하리장터 만세운동 개요

일시	장소	주요인물(주동자)
3월 22일 오후 2시	군하리장터	성태영, 백일환, 이살눔, 박용희
3월 29일 오전 11시	군하리장터	조남윤, 정인교, 윤종근, 민창식
3월 29일 오전 12시	조강리, 갈산리	임용우, 최복석, 윤영규
기록된 사건 개요		
월곶면 군하리장터, 갈산리 등에서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시위 전개		

〈그림 47〉 월곶면 만세운동 유적비 전면

〈그림 48〉 월곶면 만세운동 유적비 후면

이다.

만세운동은 경성 이화학당 학생이었던 이살눔(본명 : 이경덕)이 독립선언서 수십 장을 옷속에 감추고 고향인 군하리로 돌아와서 각 면의 유지 인사에게 비밀히 배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선언서를 받은 성태영, 박용희, 조남윤, 윤종근, 최복석 등은 각기 동지를 규합하여 태극기를 작성하고 의거할 것을 결의하였다.

3월 22일 만세운동은 판결문에 따르면 월곶면 고양리의 박용희, 성태영과 군하리의 백일환, 이화학당 신학생인 이살눔 등이 주도하여 만세시위를 벌였다.[18]

이병린의 판결문에 "군하리 시장에서 여기에 많은 이민들이 모여 있으매 박용희란 자와 공모하여 이들 군중을 선동하여 만세를 부르게 함으로써 조선독립 시위운동을 하려고 기도하여"[19]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성태영의 신문조서에 "경성 기타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러 조선독립운동을 한

1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 3·1운동(상), p.154. : 판결문에 따르면 시위주모자로 성태영, 백일환, 이살눔에 대해 재판 내용이 기술되고 있으나 박용희에 대한 판결 내용이 없다. 단지 조서 내용 중 시위 주모자로만 기술되고 있을 뿐이다. 이 사실을 근거로 보면 박용희는 만세시위 후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박용희의 유족 공적서에 따르면 박용희는 만세시위를 주도한 후 만주 길림성으로 도피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1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1971),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3·1운동 재판기록), p.326.

다는 것을 전해 듣고 있던 차, 음력 2월 21일(22일) 면내의 통진 장날 그 시장에 가서 주막에서 술을 마시는데 박용희가 와서 '독립운동을 하라'고 하여서 나도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의하고 군중에게 대하여 '공자묘로 가서 만세를 부르라'고 권유하였다"[20]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용희와 합류하여 선두에 서서 시위를 지휘하여 나갔으며 군중들과 함께 면사무소로 행진하였다. 이들은 면사무소 서기 조원석 등에게 '만세를 외치라'고 주문하였으며 성태영은 높은 단에 올라가 독립만세를 선창하고 독립에 대하여 연설을 시작하려 하자 출동한 군하경찰관 주재소 순사 야마다가 제지하였다. 그러나 백일환이 군중 속에서 뛰쳐나와 순사를 구타하고 군중과 함께 주재소로 행진하여 포위하였다. 주재소를 포위한 군중과 백일환은 순사보 이성창을 주재소로부터 끌어내어 폭행하였다. 대곶면 쇄암리 사는 이병린은 순사보 이성창에게 만세를 부를 것을 요구하며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일경(日警)은 만세시위자들에게 해산을 종용하였으나 군중들은 응하지 않았으며 이성창에게 '당신은 조선인이니 독립만세 외치라'고 하자 일경은 이성창 순사보에게 '죽어도 단연코 만세를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백일환과 군중은 순사보를 붙잡아 심하게 구타를 했다.[21]

주재소에서 순사보를 폭행한 후 다시 면사무소 앞으로 온 군중들은 박용희 등과 함께 면서기 조원석 외 3명에게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22]

이살눔은 예수를 믿는 신학생으로 경성 예수학교(이화학당)에 재학 중이었다. 이씨는 한국국기(태극기)를 휘두르며 맨발로 군중들을 향해 독립만세를 외치며 주도하였고 특히 여성들을 향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외치기도 했다.[23]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20 앞의 책, p.330.
21 앞의 책, p.329.
22 앞의 책, p.329.
23 이살눔은 이 사건으로 체포된 후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중 대정 8년 10월 27일 병으로 가출옥되었다. 이살눔은 출옥 후(연도미상) 군하리에서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 중 알 수 없는 병을 얻어 사망하여 아들이 동네 주민 몰래 근처 공동묘지에 안장하였다고 며느리가 증언하고 있다. 묘지를 찾아내려 하였으나 며느리는 기억해 내지 못하고 있다. 앞의 책, pp.331~332.

면사무소 만세시위 참가자는 300명으로 시작하여 40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백일환은 순사를 폭행한 후 총기를 빼앗으려고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날 시위로 김포경찰서장과 12명의 헌병이 출동하여 주모자 10명을 연행하고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이후 판결문에 따르면 3월 29일 만세시위는 오전 11시와 오후 12시에 각각 전개되었으나 같은 장소인 읍내(군하리장터, 공자묘 등)에서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오전 11시 시위는 최우석이 22일 군하리장터 시위에 참석한 후 28일 당인표 집에서 조남윤, 정인교, 윤종근, 민창식과 거사계획을 논의했다.[24] 이들은 "주민들에게 명 29일 오전 11시경 전통진 읍내로 집합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라"는 취지의 문서 7통을 작성하여 각 동네(월곶면 갈산, 서암, 을산, 고정, 조강, 개곡, 복전)에 배포하였다.[25] 29일 오전 11시경 읍내에 있는 공자묘(향교)에 400명의 군중이 모여들자 이들을 지휘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전날 28일에는 정인교, 윤종근, 민창식은 주민 수십 명과 함반산 정상에서 만세시위를 외치기도 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조남윤, 최우석, 정인교, 윤종근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민창식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26]

군하리장터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은 위와 같은 경과로 진행되었다. 이살눔의 후손인 아들과 며느리가 군하리에 거주하였으나 현재 사망하였고 백일환의 아들 백재학은 현재 군하리에서 마송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손자인 백한섭은 군하리에 거주하고 있다.

6. 군하리 마을 조직

현재 김포시 월곶면의 중심 행정구역인 군하리는 월곶면의 면소재지로서 자연부락 기준 1리, 2리, 3리로 나뉘어져 있다. 1리는 과거 향교 인근 행정관청인 구 면소재지를 중심

24 앞의 책, pp.325~326.
25 앞의 책, p.326.
26 이상 군하리장터 만세운동 경과, 『김포항일독립운동사』, 김진수, 김포문화원, 2006,.

으로 3개의 자연부락으로 나뉜다. 중심지는 간뎃말(가운뎃말), 장터말로 불리며 간뎃말의 북동쪽으로는 웃말, 간뎃말의 남서쪽은 아랫말로 칭한다. 행정구역상 군하2리로 분류되는 지역은 곰배(곰바위), 3리는 봉골로 지칭된다. 각각의 자연부락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 조직의 특성도 정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곰배와 봉골(2리와 3리)은 한국전쟁 이전 시기까지 거주민이 거의 없는 1리의 배후 농지로 경작 위주의 지역이었다. 따라서 해당 시기까지의 마을 조직은 1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전쟁 시기 이후는 기존의 전통 촌락 조직은 모두 급격히 소멸하고 새로운 형태의 마을 조직들이 등장한다.

1) 마을 조직

노인회

군하리 거주 마을 주민 중 65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회의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군하1리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만큼 남성 노인회와 여성 노인회가 각각 조직되어 개별 활동을 한다. 2리와 3리는 남녀가 함께 노인회를 조직한다.

군하리 노인회는 매년 노인 효도관광 사업을 봄, 가을로 2회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연 1회로 축소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림 49〉 군하1리 노인회장 황용군

〈그림 50〉 군하2리 노인회장 한우

부녀회

마을의 성인 여성이 가입할 수 있는 부녀회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청년회

군하리 거주민의 청년 계층(20~30대)의 부재로 인하여 현재 청년회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장년회로 바꾸어 사용한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부터 군하리 청년회는 주로 마을 봉사를 위주로 조직력을 발휘했다. 청년회가 활발했을 당시(70~80년대) 군하리 한가위 노래자랑 사업(추석에 이틀간 진행) 등 자체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장년회와 마을회

청년회의 조직이 그대로 장년회로 옮겨졌다.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주민 노래자랑 행사 등을 조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달집태우기는 전통적으로 마을에서 진행한 사업은 아니지만 5, 6년 전부터 장년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장년회는 대부분 마을의 이장들이 맡고 있는 주축이므로 현재 해당 사업들은 자연스럽게 마을회로 이관되어 진행된다.

4-H구락부

4-H구락부(이하 4H클럽)는 농업구조와 농촌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 청소년의 학습단체이다. 4-H란 머리(HEAD), 마음(HEART), 손(HANDS), 건강(HEALTH)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머리글자 네 개를 뜻하며 각각 지(智), 덕(德), 노(勞), 체(體)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4H회, 크로바회 등의 명칭으로도 불린다. 군하리 청년회는 농촌 청소년 학습단체인 4H클럽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청년회의 거의 모두가 4H클럽의 회원이었기 때문이다. 4H클럽은 주로 청년들을 조직하여 마을 발전을 위한 노동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는 4H클럽

〈그림 51〉 4H클럽 로고

이 '새마을운동'의 일련의 하부조직 형태였기에 당시 정부 시책과 맞물려 어렵지 않게 발전할 수 있었다.

군하1리, 2리, 3리 전체의 청년회원들이 4H클럽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4H클럽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월곶제일교회의 경우 교회 건립에 군하리 4H클럽 회원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월곶제일교회의 김윤수 장로는 군하리 청년회 회원으로 70년대 군하리 4H클럽의 회장을 맡고 있었다.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이] 자재도 훔쳐가고) 그런데 그 후에 인제 길을 포장을 하게 되었드랬어요. 포장을 하고 그랬는데, 돌맹이를 깔고 포장을 할 거 아니예요. 포장을 하니깐 그러니까 손수레가 뭐이 제대로 있어요? 그 당시에 있다는 게 경운기도 농촌에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나 경운기 있었지, 소농가들은 경운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도 협조를 많이 했죠. 저 용강리라는데 돌산에 가 가지고 돌을 실어다가 그냥 여자들이 경운기 타고 돌을 실어다가 길 포장하고 고생들을 많이 했지. (여기 주민분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냥 주민분들도 협조를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내가 4H구락부 회장을 하면서 청년들을 이렇게 유도하기 때문에 협조를 많이 했죠, 그분들이. 그분들이 자라가면서 참 많이 했죠. 그 당시 사진도 남아 있고, 저희들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군하리 주민들이."

김윤수 / 월곶제일교회 장로

월곶제일교회는 1952년 군하리에 설립된 감리교회이다. 교회의 시작부터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과 함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립한 교회로 유명한데, 생존해 있는 김윤수 장로의 제보에 따르면 아무것도 없는 산 밑의 땅을 교회부지로 설립할 당시 교회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시설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한다. 김윤수 장로는 당시 4H클럽의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위치를 십분 활용하여 4H클럽의 회원인 청년들을 교회에 다니도록 전도하고 청년들과 함께 교회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개척하거나 교회 발전을 위한 상품 작물 판매 등의 수익사업을 벌이기도 하였다.

농업생산조직

① 두레농기

70년대 이전까지 군하리에는 품앗이 조직이 존재했으며 두레라는 명칭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두레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농사(農社), 농청(農廳), 농기(農旗), 갹사(醵社), 농계(農契), 목청(牧廳), 김매기, 두레, 길쌈, 품앗이 등의 명칭이 사용된다. 호남 지역에서 두레는 주로 여성의 공동노동을 의미하며 중부 지역에서의 두레는 주로 농악을 의미한다. 군하리의 두레 명칭은 '농기(農旗)', '품앗이' 등을 명칭으로 사용했으며 주로 모내기, 김매기 등의 집약적 노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직을 이용하였다.

〈그림 52〉 통진 두레농기(재현)

군하리의 제보를 분석해 보면 두레 조직의 명칭에서 공동노동을 의미하는 부분은 주로 '품앗이'로 호칭되며 농기(農旗)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농악과 공동노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를 구성하는 농악 놀이패는 '두레놀이' 또는 '두레농기'라고 칭하였으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 쓰인 농기를 메고 농악을 치며 20~30명 가량의 인원이 함께 모내기를 하거나 5~6명이 모여 김매기를 하였다. 좌상이 소리로 흥을 돋구어 노동을 독려하는 형식이다.

"그거 인제 농악 있어 농악, 그건 후야. 옛날 보담 후고 그때 인제 농악이라고 있어서 꽹과리 치면서 한바탕 뛰고 놀고 그러지. (여기 군하리도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도 그렇게 했지. (그걸 두레라고 그러진 않았나요?) 그게 인제 두레놀이라 그러지 인제. 그게 두레놀이야. 두레놀이라 그랬어. (깃발도 세우고 그랬었어요? 들에 나갈 때?) 그 인제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는 깃발이 있어요. 깃발을 들고 큰 대에다 매달아 가지고 메고 댕겼지. (소리하는 사람 없었어요?) 있지.

농기 인제 좌상이라고 있어요 좌상. 농기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 좌상이라 그러지. 좌상님이 나와서 꽹과리 쳐 가면서 노래도 부르면서 놀고. 쉴 참에."

전순복 / 군하1리 거주

농기 조직은 3벌을 매는 군하리의 김매기 시기에는 소규모 형태로 조직되어 움직였으며 모내기에 비해 소규모였으므로 농악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김매기는 논호미라고 부르는 일반 호미에 비해 더 큰 호미(논호미)를 이용하였다. 김매기 3벌을 칭하는 용어는 타 지역과 다른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 매는 김을 '애벌 매기'라고 칭하며, 두 번째 매는 김을 '두벌 매기', 마지막 세 번째 매는 김을 '훔치기'로 칭한다.

김매기 이후 군하리 농기는 일종의 호미씻이를 7월에 행하는데 군하리에서의 호미씻이는 '농기파장'으로 불리며 농기파장 날에는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며 논다. 이 3벌의 김매기와 농기파장 이후 군하리의 공동노동조직인 '농기'의 활동은 쌀 수확 전까지는 일단락된다.

이렇게 군하리의 농업생산에 일조한 품앗이 조직으로서의 군하리 '농기(農旗)'는 1970년대를 전후로 하여 소멸하게 된다. 농업생산력에 관한 부분이 농약 보급과 기계화 영농에 따라 다중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이다. 농업생산조직으로서의 군하리의 농기가 소멸하면서 '농기'가 행하던 노동조직의 기능은 쇠퇴하였으나 제보에 따르면 이후 유희의 기능은 어느 정도 남아 설·대보름·추석 등 명절이나 잔치 때의 걸립이나, 농기싸움(기세배) 등을 하다가 80년대에는 이마저도 완전히 소멸한다.[27]

1983년에는 행정구역이 개편되며 군하리의 공동노동권역에 속하던 옹정리, 고정리, 서암리, 귀전리, 동을산리가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마송 지역 중심의 새로운 통진면에 편입되었다. 신설 통진면을 중심으로 농기의 유희 기능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어 1997년 '통진두레놀이'라는 명칭으로 놀이 기능이 재구성되었으며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1998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다. 현재는 김포시에서 통진두레문화센터를 개설하여 두레놀이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기도 민속놀이 「통진두레놀이」의 한장면. 「박산—안홍민기자」

경기 「통진두레놀이」 대통령상

〈그림 53〉 통진두레놀이 대통령상 수상
(『동아일보』 1997. 10. 18.)

이후 군하리에서는 마을행사 등에서 농악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통진두레문화센터나 옹정리 등에서 놀이패를 조직해 들어와 활용하게 되었으나 군하리는 과거 통진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던 월곶면(구 통진군) 고유의 놀이문화를 복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통진두레놀이와는 다른 '노나메기' 농악 놀이패를 조직하게 되었다. 과거 통진군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군하리의 자부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조직된 농악 놀이패 '노나메기'는 초기에는 농악놀이 전문단체 '살판'의 박희정씨가 지역색을 갖춘 상쇠를 잡고 풍물패를 조직하였으나 현재는 군하리 주민들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② 농업협동조합

농업생산조직으로서의 군하리 '농기(農旗)'는 유희기능과 생산기능이 분리되어 유희기능을 가진 농악만 재구성되어 현존하고 있다. 군하리 농기가 가졌던 마을 단위의 생산기능은 국가 단위의 행정조직으로 편입되었다. 비료, 농약, 기계화 영농으로 대변되는 농촌 생산력 지원 기능은 전국단위 협동조합인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으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군하리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삼는 농민은 주로 농협에 소속되어 있으며 월곶면 농협 조합원은 약 780여 명이다. 월곶면 농협은 현재 신김포 농협으로 통합되어 월

27 주강현(『한국의 두레』, 집문당, 1997)이 주장한 전국적 두레 소멸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주강현은 194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10여 년간 약80%의 두레가 소멸되었으며 20%의 두레만이 이어져 오다가 60~70년대에 나머지 두레도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군하리에서는 '두레놀이' 또는 '농기'라고 칭하는 두레의 일부 유희적 기능이 80년대까지 이어져 왔다.

곶면, 통진면, 하성면, 대곶면 농협이 신김포 농협에 속해 있다. 신김포 농협의 전체규모는 8,22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총자산 1조 원 규모이다. 군하리의 조합원은 군하1리 100~110여 명, 군하2리 20~30여 명, 군하3리 30~40여 명으로 합계 170여 명의 군하리 주민이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상업조직

① 장돌림 구조와 군하리 5일장

군하리는 여타의 농업 중심성 촌락 구조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사회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군하리(郡下里)의 명칭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관련이 있다. 조선시기부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진현, 통진유수부, 통진군 등 김포와 강화의 중간지점에 놓인 행정구역의 관청 소재지로 오랫동안 기능해 왔던 곳이 군하리이다. 군하(郡下)라는 명칭이 관청 소재지를 의미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관청 소재 지역은 관청의 기능에 따라 인근 자연부락의 특수성이 결정된다. 통진(옛 통진)은 염하를 건너 강화와 연결되는 주요 길목이며 한강 하구의 조강포, 강령포를 통해 개풍군으로 넘어가기 위한 유숙지이다. 동시에 한강과 서해의 수로를 이용해 인천과 서울로 이동하기 위한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다. 더불어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군하리는 관청 소재지로서의 특징이 마을 조직에도 반영되어 있다. 상업조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군하리는 인근 지역에서 '장터거리'로 불릴 만큼 5일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군하리장의 중요성은 과거부터 강화장과 김포장의 중간지대에 형성되어 인근지역의 장돌림 구조와 맞물려 운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표 9〉의 장돌림 구조표에서와 같이 군하리장(옛 통진장)은 김포와 강화를 포괄하는 장돌림판의 주축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다. 군하리장의 규모는 다수의 제보자에게서 그 규모가 상당했음을 증언받을 수 있었다. 보통 전통적 5일장의 규모 기준은 우시장의 존재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는데, 군하리장은 우시장의 존재가 명확하게 확인된다. 군하

〈표 9〉 김포, 통진, 강화 장돌림 구조

5일장 일시(매10일)	장소	명칭
1일 / 6일	양곡	
2일 / 7일	김포	
3일 / 8일	마송	원 명칭은 조강리장, 또는 마송장, 현재는 통진장으로 부름
4일 / 9일	하성	
5일 / 10일	통진	읍장, 군하리장, 옛 통진장

리는 강화에서 김포, 김포에서 서울을 잇는 강화로의 중간 기착지이며 동시에 조강을 통한 한강의 수운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는 유통의 중추 지역이었기 때문에 육로 유통과 수로 유통의 중요 접점으로 소를 비롯한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었다.

제보에 따르면 당시 군하리장에서는 쇠전(우시장), 포목(비단, 명주, 광목, 옥양목, 한삼 모시), 의류, 미곡, 생활용품, 잡화가 모두 거래되었으며 비누의 대체품이었던 양잿물까지 거래되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거래품목은 통진·강화·김포 권역의 장돌뱅이들의 취급품목과 일치한다. 이중 일부 품목의 경우는 군하리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는 품목이 있는데 첫째가 미곡의 거래이다. 통진·강화·김포는 질 좋은 미곡의 생산지로 유명하며 군하리장이 서는 날은 다수의 말감고[28]가 통진의 주변 지역에서 들어오는 미곡을 먼저 매집하려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특색 있는 두 번째 품목은 포목으로 강화와 통진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모시가 다량 거래되었다.

〈그림 54〉 군하리장 우시장 터 파노라마 사진 – 좌측의 농협건물 자리가 우시장 터

28 말강고, 말감고, 됫강고, 댓강고, 감구, 강구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말감고'는 미곡 중간수집상이다. 쌀을 포함한 콩, 수수, 조 등의 미곡을 장날에 개인이 들고 나오면 이들 '말감고'가 이것들을 되나 말로 계량하여 매집한다. 매집 후 미곡상에 도매로 넘기거나 소매로 판매하기도 한다.

〈그림 55〉 군하리 장터거리 1

〈그림 56〉 군하리 장터거리 2

〈그림 57〉 군하리 장터거리 3

〈그림 58〉 군하리 장터거리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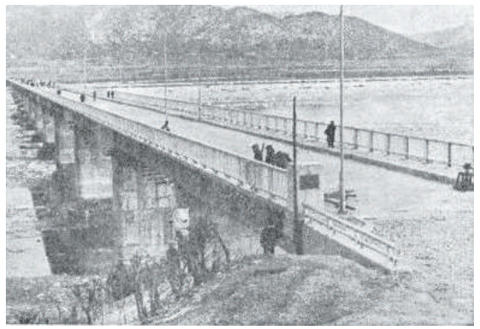
군하리장은 〈그림 54〉 사진의 우시장터를 포함하여 현재 지번 주소상 군하1리 99번지 앞으로부터 다음 사진 〈그림 55〉~〈그림 58〉에 보이는 거리 모두를 장터로 이용하였는데, 군하리장의 주요 거래 품목인 미곡과 포목은 5일장에서 나아가 싸전과 포목점으로 상설점포화하였으며 〈그림 57〉의 위치가 싸전이 있던 장소이다.

군하리장의 거래 품목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첫 번째로 어염류의 거래가 없었던 것과 당시 군하리의 주요 상품작물이었던 인삼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하리장에서 소금과 새우젓 등의 어염류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조강포구와의 인접한 지리적 특성이 이유가 된다. 조강포는 대규모의 어염 유통 루트였으며 당연히 조강포에 인접한 군하리에도 해당 품목이 유통되어왔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이후 인천

〈그림 59〉 조강 루트와 군하리

에서 염하와 조강, 임진강, 한강 하구, 마포로 이어지던 어염의 유통 루트가 막히며 조강포는 수운 기착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군하리장의 어염 거래는 완전히 막히게 된다. 이 때문에 전쟁 이후의 군하리장을 주로 기억하는 마을 주민들의 기억 속에 어염은 군하리장의 거래 품목에 들어 있지 않다. 인삼의 경우는 군하리와 인근 지역이 개풍군(개성)에서 이전된 인삼 재배 기술로 매우 넓은 인삼 재배 지역이었음에도 인삼이 조선시대부터 전략적으로 거래가 통제된 상품이기 때문에 조합을 이용하여야만 거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특기할 만한 점은 상당수의 숙박업소와 주점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특히 술집, 주막, 주점 등으로 불린 업소들은 대부분 3명 가량의 접객을 하는 여성을 두고 있었다고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이는 조선 후기부터 이어져온 전통적 지역 특성이 1970년대까지 남아 있었던 흔적인데, 〈그림 59〉의 조강 루트를 살펴보면 인천, 강화에서 들어오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조강을 거쳐야 서울로 진입할 수 있었다. 한강의 수운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조선시대부터 1950년대 한국전쟁 이전 시기까지는 수많은 물류 선박과 여객선이 조강포를 거쳐 다녔다. 그런데 조석차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림 60〉 강화교 개통 경향신문 1970. 1. 26.

염하인 한강 하구는 물때가 맞지 않으면 동력선이 아닌 이상 배가 운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강포는 수많은 선박과 이용객들이 이동을 위해 물때를 기다리며 12시간 이상 머물러야 했던 장소였다.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인근의 군하리에서 숙박을 해야 했으며 물때를 기다리며 머무는 손님들에게 숙박과 식사, 술을 제공해야했던 군하리의 접객 업소는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선박의 이용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군사적 이유로 쇠퇴, 소멸하게 되지만 전쟁 이후로 군하리는 군사 지역의 배후 지역으로 취급되어 주변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과 한국군이 군하리의 숙박·접객업소를 이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군하리의 숙박, 접객업소는 70년대까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70년대까지 군하리 5일장은 위와 같은 몇 가지 사유로 그 큰 규모를 유지해 왔으나 곧 완전히 쇠퇴하여 소멸하게 된다. 5일장의 시대가 변화하며 도로의 개통, 유통망의 다변화 등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군하리 주민들이 체감한 가장 직접적인 사유는 강화교의 개통이었다. 강화교는 폭 10m, 연장 694m의 연륙교로 1970년에 개통됐다. 당시 강화와 김포는 나룻배를 이용하여 강을 건너다녔으며 당시 기사[29]를 살펴보면 나룻배를 이용한 도강(渡江) 시간은 평균 30분이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단순 도강시간과 도강을 위한 대기시간까지 감안하면 1시간 이상이 강을 건너는 데 소요되었으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강을 건너지 않는 제약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는 경제적 요인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발전의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군하리 주민들이 제보하는 군하리 장의 소멸의 가장 큰 요인과 들어맞는 것이다.

이렇게 70년대에 들어서 급격하게 소멸된 군하리 5일장은 최근 10년 내외간(2005년 경)에 장돌뱅이들에 의해 10개소 정도의 이동 점포가 개설되는 소규모 장으로 부활되어 운영되고 있다.

29 (전략)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로서 충무교, 완도교에 이어 세 번째로 건설된 강화교는 지금까지 나룻배에 의존하던 교통수단을 자동차로 전환, 연간 4천1백만원의 도선비를 절약하고 평균 30분이 걸리던 도강 시간을 3분대로 단축시켰다. 『중앙일보』 '강화교 개통' 1970. 01. 26.

② 군하리의 상설점포 발달과 상가번영회

군하리 상업은 현재까지 상가번영회가 유지될 정도로 유래가 깊다. 군하리 상업 발전의 첫 번째 요인은 군하리장의 발전과 맞물려 실제 지역 주민들이 상업에 종사하는 계기를 만들게 된 점이다. 두 번째 요인은 전술했다시피 조강포를 드나들던 인천, 강화의 선박 이용자들이 군하리의 상업시설을 반드시 이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림 61〉 삼양철물 박재덕(56년생)

이에 따라 군하리의 상업은 5일장보다 더 빈번하게 소규모 상품이 필요했던 수요자가 존재했기에 군하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상설점포를 운영하게 된다. 이는 제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대에 걸쳐 군하리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 박재덕씨는 해병대에 복무하던 시절 군하리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인연으로 그의 아버지가 군하리에 정착하여 상설점포를 운영하며 군하리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나고 군하리에 들어온 박재덕씨의 아버지는 토박이였던 박재덕씨의 어머니와 결혼하며 군하리에 정착한다.

한국전쟁 이후 군사주둔지로서의 특성을 가지게 된 군하리는 광복 전후의 군하리장의 명맥을 이어받듯 잡화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만물상 형태의 상설점포가 주민들에 의해 다양하게 운영된다. 제보에 따르면 당시 거래되던 품목들은 미군에 의해 반입되던 초콜릿, 사탕, 시레이션 등의 간식류와 인천에서 떼어다 팔던 주류와 각종 청과물, 생활용품 일체, 승차표, 심지어 굴건제복과 관 등의 장례용품까지 취급하였다. 이러한 상설점포들은 당연하다는 듯 군하리장터가 위치했던 장소 주변에 들어섰으며 현재 군하리

상가의 전신이 된다. 잡화류 상점과 더불어 또 한 축을 이루고 있던 상점 형태는 숙박업과 요식업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군하리는 조강포를 이용하는 선박 이용객들의 주정소였는데 제보에 따르면 이를 뒷받침하듯 주점, 여관, 음식점 등이 성업을 하였다고 한다. 다만 주점의 경우는 미군의 주둔이 끝나고 대부분 소멸한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유지되었던 이러한 주점의 경우 조강포의 선박 통행이 가능하던 시기에는 조강포 선박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쟁 이후 선박 운행이 막히자 군인을 영업 대상으로 하였으나 미군 주둔이 종료되자 영업 대상 요인이 모두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레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군하리는 상설점포들이 번성하였고 자연스레 번영회가 조직된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국전쟁까지 군하리 상가 초기에는 군하리 주민들이 상가번영회의 주축이었으나 인구 감소 및 우회도로 개통 등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군하리의 상업이 급격하게 위축되었고, 현재는 군하리 상가의 상당수가 외지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기 때문에 토박이 주민 중심의 조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016년 현재 번영회의 회장은 조안식 회장이 맡고 있다.

2) 계

상포계

군하리는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상포계가 존재하였다. 마을 주민들의 상이 있을 때 쌀을 두 되씩 걷어 추렴하여 경비에 부조하는 형태였다. 상여곳간이 아직 남아 있으며, 90년대까지 상여를 유지하였다. 상여는 전통적인 메는 상여였으나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90년대에 노동력 부족으로 현 군하3리 이장인 류지형씨가 바퀴달린 형태로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마저도 현재 마을에 보관하고 있지 않다. 현재는 장례 형태가 상여를 이용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면서 상포계는 자연스럽게 소멸케 되었다. 소멸 시기 역시 90년대로 제보되고 있다.

의무계

마을에 비용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이 쌀 두 되씩을 추렴하여 환자가 발생한 가구에 지급하였다. 의무계는 10여 년 전까지 유지되었으나 보험 등이 강화되며 역시 현재는 소멸하였다.

대동계

마을 주민 모두가 가입하는 기본적인 마을 조직인 대동회의 대동계는 마을 주민 모두가 쌀을 한 되씩 추렴하여 마을의 세시 행사의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주민이 감소하고 대동회 자체가 소멸하며 대동계 역시 소멸하였다. 대동계로 모아진 비용으로 유지하던 마을 행사는 노인회, 부녀회 등의 다른 마을 조직의 회비를 이용하도록 변경되었다.

기타 조직

마을 중심 조직이나 상업 조직이 아닌 직능 중심, 목적 중심의 현존하는 군하리 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월곶 의용소방대

명칭은 월곶면 의용소방대이나 군하리 주민(주로 남성)이 주축이 된다. 의용소방대의 조직 범위는 조금 특별하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범위의 주민을 소집해야 하므로 명칭은 월곶 의용소방대이지만 군하리 주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소방 활동 외에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설 전날 척사대회를 주최하며, 축구대회 등을 진행한다. 현재 의용소방대장은 윤문수 대장이 맡고 있다.

② 여성소방대

의용소방대와 동일하나 구성원이 군하리 여성 중심이다.

③ 자율방범대

지역 내 주민자치 치안활동을 한다. 월곶 자치 소방대인 의용소방대가 군하리 주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게 자율 방범대는 고막리, 포내리의 청장년층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Ⅱ

군하리 마을의 변천과 역사적 사건

1. 군하리 마을 변천

군하리의 민속은 보편적인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 생활 민속과 큰 차이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농업이나 어업 등 하나의 생업을 삶의 주축으로 하는 지역은 1년을 관통하는 순환적인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생활이 반복된다. 농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년간의 생활이 24절기와 명절에 맞추어 매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여기에 개인의 일생 역시 각 개인마다 1회씩 반복되는 출생, 관례, 혼례, 장례가 순환한다. 이러한 반복적 순환 구조는 고착화된 생활양식이 되며 곧 문화화된다.

이러한 순환적 생활양식을 변형시키는 것이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이다.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충격은 일종의 거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지배계층의 변동이나 전쟁 등이 그 사례가 될 것이다. 한 지역에서 이러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양태는 곧 지역의 고착된 생활 양태가 즉, 마을의 문화 구조가 변경되어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게 된다. 외부 충격이 거의 없는 지역은 순환적이고 고착된 문화 구조가 변형 없이 고스란히 남게 되지만 외부 충격이 잦은 지역은 끊임없이 이 문화 구조가 변형된다.

군하리가 바로 이러한 지역에 속한다. 군하리는 농업 중심 생활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했으나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며 서해에 이르는 주요 도로[1]의 한 가운데에 놓여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따라 계속적으로 행정 관청이 설치되었으며 중앙정부의 변경에 따라 관청의 성격 역시 변화해 왔다. 따라서 조선시기에도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남북이 분단된 한국전쟁의 폭풍에도 한가운데에

1 신경준의 조선 6대로 중 〈강화로〉, 『여암 신경준과 역주 도로고』, 류명환, 역사문화, 2014.

서 있던 지역이 군하리였다. 그러므로 군하리의 민속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들을 충분히 이해하여 대입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1) 옛 지도를 통해 본 통진읍치와 군하리[2]

조선시대 전국 읍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 통진은 "동쪽으로는 교하까지 20리이고, 서쪽으로는 강화까지 10리, 남쪽으로는 김포까지 30리, 북쪽으로는 풍덕까지 10리 떨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부내는 통진부의 중심지이고 경계까지는 10리이다. 월여곶(月餘串)은 통진부의 동쪽에 위치하였으며, 보구곶은 북쪽에 위치하였다."고 수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부내면은 통진부의 관문으로부터 사방 5리 이내의 지역을 가리키며, 군내면은 행정구역이 부에서 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등장한 지명이다. 이로 보았을 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읍치가 있던 부내면이 김포 지역의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14년에 행정구역이 통폐합됨에 따라 이들 4개 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병하여 월곶면(月串面)으로 명명하고 김포군에 편입하였다. 1998년에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함에 따라 현재는 김포시 소속이다.[3] 군하리는 1914년까지 조선시대 읍치인 통진현의 관아가 있던 유서 깊은 마을이다. 통진현 옛 지도를 통해 조선시대 통진현 현황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림 62〉 통진군지도(『通津郡邑誌』, 1899년)

「통진군지도」(『通津郡邑誌』, 1899년)

1899년 편찬된 경기도 『통진군지도(通津郡邑誌)』에 수록된 지도이다. 지도의 중앙에 읍치가 잘 표현되어 있다. 읍치에는 내아(內衙), 동헌(東軒), 이청(吏廳), 객사(客使) 건물이 그려져 있고, 관아 앞에 감옥의 위치도 표시되어 있다. 읍치 주변에 향교(鄕校)와 여단(厲壇), 사직단(社稷壇)이 위치하였다. 고을 곳곳에 소재한 봉수, 역원, 다리, 창고들도 표시해 주었다. 고을에서 다른 군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붉은색으로, 곳곳에 흐르는 하천들은 푸른색으로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김포에서 오는 길은 통진현을 거쳐 가거나 우회해서 문수산성으로 이어지고 다시 문수산성에서 염하를 건너 강화로 이어진다.

「통진도호부 지도」(『경기지』 2책 수록, 1842년)

1842년(헌종 8년)과 1843년경에 편찬된 『경기지』 2책에 수록된 통진도호부 지도다. 통진도호부는 김포시 대곶면·양촌면·월곶면·통진면·하성면에 걸쳐 있었다. 지도 가운데에 통진부(通津府, 동헌)와 객사(客舍) 등이 표시된 고을의 중심지는 월곶면의 군하리 일대에 있었다. 서울과 강화를 잇는 큰길[大路]은 오른쪽의 서울 방향에서 들어와 고을 중심지의 장터다리[場基橋]를 지나고 무너미고개[水踰峴]를 넘어 문수산성에서 갑구지나루[甲串津]를 건넌다.[4]

〈그림 63〉 「통진도호부 지도」(『경기지』 2책 수록, 1842년)

「통진부지도」(서울대 규장각 소장, 1872년)[5]

통진을 중심으로 한강, 염하, 조강, 인근 고을의 모습과 산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문수산

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지리지 종합정보(http://kyujanggak.snu.ac.kr/geo) 참조

3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 2008. 12., 국토지리정보원

4 이기봉,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지리지 종합정보(http://kyujanggak.snu.ac.kr/geo) 참조

5 『경기지도집성 I 』, 경기도의 옛 지도, 경기도, 2005, p.108 참조

〈그림 64〉「통진부지도」(서울대 규장각 소장, 1872년)

과 같은 일부 산은 회화적으로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다. 읍치에는 아사(衙舍), 객사(客舍) 등의 관청 건물과 제단이 그려져 있다. 문수산성에도 각종 건물과 성곽, 문루의 모습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특히 나루터로 이어지는 계단의 모습까지 그려져 있다. 서울로 통하는 대로뿐만 아니라 관내 지역을 연결하는 지로(支路), 그리고 염하나 강을 건너는 길까지도 모두 표시되어 있다. 적색 테두리에 황색으로 채색된 원형 안에 각 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읍치로부터의 거리가 아울러 기재되어 있다. 주요 산들은 적색 테두리에 백색의 사각형 안에 쓰여 있고, 남산(南山)과 수안산(守安山)의 봉대에는 봉화표시가 있다.[6]

「통진부지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복원된 통진이청 안내판에는 조선시대 통진부 읍치를 알 수 있도록 지도를 수록해 놓았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통진부지도」라고 한다. 지도는 읍치의 구성 건물을 대부분 그려 놓았는데, 주변의 산과 함께 포내천, 길 등을 각각의 색채로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강화에서 김포로 이어지는 길이 두 갈래로 표현되어 있고[7] 향교와 관아 뒤편으로 산이 감싸고 있으며, 남쪽으로 포내천이 표현되어 있다. 읍치의 가장 서쪽 산 중턱에 1칸

6 남산 봉수대는 군하2리 봉골에서 올라간다.

7 길은 강화 방향에서 통진향교에 거의 다다라서 갈라지는데, 읍치를 들르지 않고 곧장 김포로 가는 길과 향교를 지나 관아의 외삼문을 거쳐 사창을 지나 김포로 가는 길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 6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통진부지도」(통진부 확대 및 편집)

규모의 여단(厲壇)이 있는데,[8] 지도에서의 위치를 고려하면 곰배산 중턱 인근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여단의 동편에 남북방향으로 통진향교가 위치해 있다. 외신문과 명륜당, 동·서재, 그 뒤로 내신문과 대성전, 동·서무가 잘 갖추어진 전학후묘 형식의 조선시대 향교건축 배치가 잘 표현되어 있다. 그 동편으로 객사(客舍)가 위치해 있는데, 중앙의 정청에는 '분진관(分津館)'이라 표기되어 있다. 그 옆으로 통진이청(通津吏廳)[9]과 관청(官廳), 고사(庫舍), 향리청(鄕吏廳) 등이 외삼문루(外三門樓)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 외삼문루 동쪽으로 사령청(使令廳址), 집사청(執事廳), 향청(鄕廳)[10] 등의 부속건물들이 자리잡고 있다. 외삼문루를 지나 관아로 들어가면, 통진아문(通津衙門)이 나오고 이를 지나면 근민당(近民堂)이란 동헌(東軒) 건물과 군기고, 화약고 등의 군사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동헌은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정무가 행해지던 중심 건물로 관찰사,

8 주인 없는 외로운 혼령을 국가에서 제사 지내주어 돌림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단으로 1401년(태종 1) 처음으로 북교에 여단을 쌓아 여귀(厲鬼)에게 제사 지낸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 뒤 각 주현에 명하여 여단을 만들어 여제를 지내도록 하였다.

9 조선시대 지방의 각 관청에 근무하던 하급관리(향리)들이 일하던 곳으로, 향리들의 집무처는 공식적으로 인리청(人吏廳), 아전청(衙前廳), 성청(星廳), 또는 이청(吏廳)이라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작청(作廳)이라 일컬었다.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화성의궤』, 2002, 한국콘텐츠진흥원 참조

10 조선시대 지방의 수령을 자문·보좌하던 향토자치기구이다.

〈표 10〉 통진지도에 표시된 통진읍치 시설

시설명	건물명	규모
내아	내아	16칸
	중문	–
	행랑	4칸
	책실	3칸
동헌	동헌(근민당)	10칸
	화약고	1칸
	관노청	6칸
	군기고	3칸
통진아문	내삼문	3칸
	누고	2칸
	사령직방	5칸
	월랑	3칸
	집사청	6칸
외삼문루	외삼문루	6칸
분진관 (객사)	객사대청	6칸
	동랑	4칸
	서랑	4칸
	중문	3칸
	외삼문	3칸
통진향교	대성전	8칸
	동무	7칸 반
	서무	7칸 반
	대신문	3칸
	명륜당	6칸
	동재	7칸 반
	서재	7칸 반
	외신문	3칸
	전사청	3칸
관청 부속건물	관청	7칸 반
	고사	9칸
	형리청	6칸
	사령청	9칸
	향청	7칸
	장관청	6칸
	형옥	4칸
사창	봉상대청	10칸
	포사번방(동)	10칸
	포사번방(서)	10칸
	사창고사	26칸
통진이청	이청	14칸
여단	여단	1칸
사직단	사직단	1칸

병사, 수사(水使), 수령(守令)들의 정청으로서 지방의 일반 행정업무와 재판 등이 여기서 행하여졌다. 동헌 안쪽 가장 내밀한 곳에 내아(內衙) 건물이 있는데, 내아는 지방수령의 가족이 거처하던 안채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관사(官舍)정도가 될 듯한데, 지도상에서는 그 규모가 제법 큰 것을 알 수 있다.

관아의 동쪽 인근 지방으로의 길이 만나는 곳에 사창(司倉)이 큰 규모로 자리잡고 있는데, 사창고사(司倉庫舍) 건물이 26칸, 양쪽 포사번방(砲士藩房)이 각 10칸, 그리고 중심에 봉상대청(捧上大廳)이 10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변은 담장으로 구획지어 놓았다. 이곳은 조세와 공물의 보관과 운반을 담당하던 기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읍치의 서남쪽 외진 곳에 형옥(刑獄)과 장관청(將官廳)이 있어서 죄지은 자들을 가두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던 곳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을의 가장 동쪽에 사직단(社稷壇)이 표기되어 있다. 사직단은 일제강점기까지 그 위치를 알 수 있었는데, 사직단 자리에 신사를 꾸며놓고 참배를 강요했다고 한다.[11]

옛 지도를 통해 통진부 읍치를 살펴보았는데, 읍치의 핵심 구성요소인 동헌과 내아, 객사, 향교가 잘 갖추어져 있고, 사직단과 여단과 같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던 시설, 사창과 형옥, 이청 등 관아 부속시설들이 지형과 지세에 순응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1918년 임야원도와 지적원도를 통해 본 조선시대 군하리

임야원도(1918년)

국가기록원을 통해 군하리의 임야원도를 입수할 수 있었다. 1918년(大正七年 七月十四日)에 조사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축척은 1/6000, 조사한 필지는 총 47필(筆)로 기록되어 있다. 서쪽으로 포내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으로 고양리, 남서쪽으로 갈산리가 경계로 표시되어 있다. 논과 밭, 대지는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이곳은 실질적인 마을사람들의 생활터전이다. 그 외의 지역은 '山○林'로 표시되어 있어 산(山), 임야(林野)로 표기해 놓았다. 군하리 중심에는 포내천을 파랑색으로 표시하였는데, 지금의 직선화된 하천 수로에 비해 곡류(曲流)가

〈그림 66〉 김포군 월곶면 군하리 임야원도(1918년 조사)

11 전 김포문화원장 류지만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정월 초하루나 일왕 생일에 참배를 강요했는데, 참배를 하고 나오면 찹쌀떡(찹쌀모찌)을 하나씩 나눠주었다고 한다.

심하고, 불규칙하여 하천이 정비되기 전 자연하천의 모습이 잘 조사되어 있다. 한편, 길은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직선화된 두 줄의 길은 일제 강점기 당시 새롭게 난 신작로로 판단된다. 도로망이 그물처럼 밀집되어 있는 곳이 현재의 군하1리임을 알 수 있으며, 군하2리(봉골)는 남산 방향으로 길게 길이 뻗어 있다. 군하3리(곰배)에도 마을 깊숙이 길이 표시되어 있는데, 긴골임을 알 수 있다.[12]

지적원도(1914년)

국가기록원을 통해 군하리의 지적원도를 입수하여 하나의 도면으로 편집하였다. 지적원도의 표지에는 '明治 사십사년 오월 측량'이라 되어 있어 1911년 측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축척은 1/1,200이라 표시되었다. 1914년(大正三年 十一月 七日) '이동지측도(異動地測圖)'라 기록되어 있어 이때 지도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적원도를 CAD도면으로 제작한 후 하천과 도로, 대지(垈地)만 별도로 표시하였다. 임야원도와 마찬가지로 포내천의 곡류(曲流)가 현재보다 자연하천에 가깝고, 길은 빨강

〈그림 67〉 김포군 월곶면 군하리 지적원도(1914년)

12 한국전쟁 당시 군하1리에서 곰배마을과 봉골마을로 사람들이 피난을 왔다고 한다. 곰배마을에는 그 이전에도 사람들은 살고 있었으나 작은 초가집이나 움막 정도의 집들이 있었고, 봉골 역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기와집들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나,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반 거의 사라졌다가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것은 1950년대 이후로 판단된다.

〈그림 68〉 김포군 월곶면 군하리 지적원도 재편집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군하리를 중심으로 지적이 복잡하게 표시되어 있다. 대지(垈地)는 군하1리만 집중적으로 있고, 군하2리와 3리는 없어 당시 이곳에는 가옥이 없이 농경지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군하1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을의 서편부터 규모가 큰 대지가 있는데, 향교터와 객사터, 이청터, 내아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동헌이나 향청터 주변으로는 필지가 분화되고, 마을 내부 길이 그물망처럼 연결되면서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사청 고사터 길은 마을의 동남쪽 세 갈래 길이 만나는 곳의 규모가 큰 대지로 판단된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미 관아와 관련된 건물은 사라졌겠지만, 그 터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록색으로 그려진 직선은 필지선을 무시

하고 직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한 신작로로 판단된다. 이 신작로는 현재의 군하1리 도로망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군하1리 도로망과 마을의 공간구조는 1900년대 초반에 형성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3) 1960년대 지도를 통해 본 군하리의 모습

군하리가 1900년대 초반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변하는 과정의 모습은 1966년 수치지형도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 할 수 있다. 우선 도로는 1914년 지적원도에서 확인한 바 있는 신작로가 군하3리(곰배마을)를 지나, 군하1리를 거쳐 군하2리(봉골)를 마지막으로 김포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군하1리를 우회하는 48번 국도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군하1리에는 월곶면사무소와 월곶국민학교, 월곶지소 등의 관공서가 마을의 서쪽에 표기되어 있으며, 마을의 중심부는 3개의 블록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집들이 30~40여 호로 표기되어 있다. 블록으로 표현된 곳이 통진시장, 우시장 등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던 장소로 짐작된다. 구생골을 따라 작은 하천이 있고, 그 주변에도 수십여 호의 집들이 표시되어 있다.

〈그림 69〉 통진(通津) 수치지형도(1966년, 1:25,000)

곰배마을에는 점선으로 소로가 표기되어 있는데, 남산골과 긴골, 대나룻고개로 이어지고 있다. 곰배마을 초입을 중심으로 20여 호의 가옥이 표기되어 있어 당시의 가구 수를 짐작 할 수 있다.

포내천을 건너 김포 방향으로 가다보면, '오리정'에 이르지 못해서 '봉골'이 있는데, 마을 중심에 교차하는 십자로가 있고, 그 주변으로 8~9호의 집이 표기되어 있다. 남서쪽으로 이어진 길은 남산 봉수대로 이어지고 있다. 1900년 지도에 대지(垈地)가 보이지 않아 사람이 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었던 곰배마을과 봉골에 집들이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전쟁 이후 주변마을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살았다는 봉골 한우 노인회장님의 증언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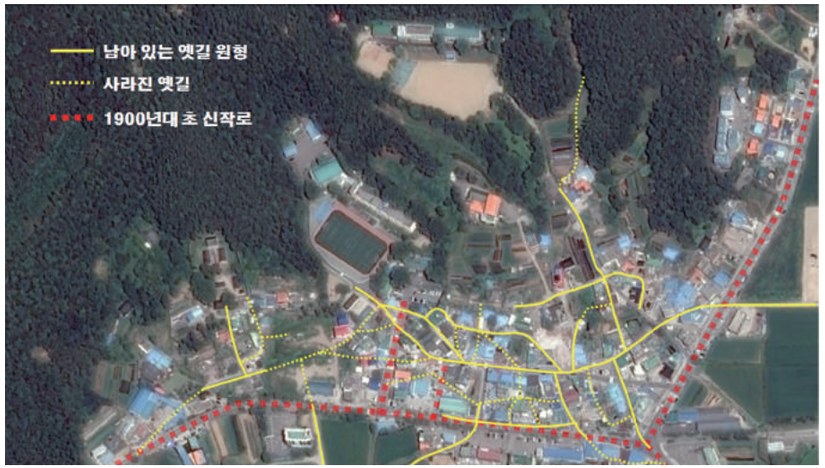
4) 군하리의 현재 모습

군하1리 통진

① 옛길이 남아 있는 군하1리

통진읍치가 있었던 군하1리는 역사가 오래된 마을인 만큼 오래된 옛길도 남아 있다. 비록 일제 강점과 도시화로 인해 사라져버린 옛길도 많지만, 아직까지 좁은 골목길이나 샛길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1914년 제작된 지적원도는 본격적인 일제의 간섭을 받기 이전 조선 후기 군하리 마



〈그림 70〉 군하리 옛길과 사라진 옛길

을의 모습을 온전히 담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지적원도에 표시되어 있는 옛길을 현재의 위성사진과 현장조사를 통해 남아 있는 옛길을 찾을 수 있었다. 지적원도에는 아직 개설하지 않은 신작로가 자연스런 필지와 무관하게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현재 군하리 마을의 주도로와 일치한다. 일제 강점기에 새롭게 신설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때 만들어진 주도로가 현재 군하리의 마을 공간구조를 결정하게 되었다. 주도로는 김포 방향에서 포내천을 건너 군하1리로 들어와 갈라지는데, 서쪽으로 지금의 면사무소 앞을 지나 강화도 방향으로 이어지고, 다른 하나는 56번 지방도로 북동쪽으로 꺾여 개곡리를 지나 하성면사무소로 이어진다.

이 주도로는 1900년대 초반에 개설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근대와 현대로 접어들면서 주도로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군하리의 중심부를 우회하는 차도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도로가 들어서기 이전 마을의 주도로는 한 블록 북쪽에 있는 길이다. 이 길은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건너 포내리에 닿으면 이 길을 따라 군하리로 들어와 향교와 이청, 관아를 지나 동쪽으로 이어져 김포로 향하는 길이다. 당시로는 비교적 넓은 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수레나 파발이 지나던 길로 이 길을 따라 주요 상행위가 이루어진 번화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길은 향교 앞과 구 면사무소 앞 일부가 사라졌을 뿐 간뎃말과 아랫말에는 비교적 잘 남아 있다. 구생골로 이어지는 길도 비교적 잘 남아 있는데, 분진중학교를 못 가 산으로 이어지던 길이 사라지고 대신 분진중학교까지 연결되는 길이 새로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마을 중심에 그물망처럼 연결되던 옛길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경사지에서 지형에 순응하며 자연스럽게 생긴 길로 큰길에 면한 블록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읍치가 있던 마을 북쪽에는 비교적 잘 남아 있다. 큰길에 면한 곳은 도시화로 인한 격자형 도로망의 등장으로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쪽은 경사가 비교적 급하고,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도시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와 함께 주거지의 성격상 아주 오래전부터 대지(垈地)와 길이 고착화되어 나름의 원형길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 여겨진다.

② 향꽂말(웃말)과 공공시설

향꽂말은 지금의 향교가 있는 주변 마을을 일컫는데, 복원된 이청 건물의 동쪽에 해당한다. 예전부터 이곳을 웃말이라고도 불렀는데, 선현들이 모셔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림 71〉 향꽂말 전경

향꽂말은 예나 지금이나 주택들이 모여 있는 조용한 마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을 서쪽 끝자락에 몇몇 공장건물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택들이 경사진 대지에 자리 잡고 있다. 향교가 가장 위계가 높은 위쪽에 위치해 있고, 그 외 주택들은 등고선을 따라 남향하여 배치되어 있다. 70년대 전후로 지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ㄱ' 또는 'ㄷ', 'ㅡ' 배치의 주택들이 대체로 많고,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조적조주택이나 목조주택, 단층 슬라브집 등도 곳곳에 눈에 띈다. 뒷산에 기대어 비교적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마을이다.

③ 장터와 상업시설(간뎃말)

간뎃말은 조선시대 통진읍치가 있던 마을로 예나 지금이나 가장 번화한 곳이다. 마을의 가장 위쪽에는 교회와 월곶초등학교, 구 면사무소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구 면사무소 앞으로 난 큰길을 따라 공공시설(의용소방대, 파출소, 우체국 등)이 큰길까지 차례로 위치해 있고, 동서로 난 큰길과 안쪽 길을 따라 상업시설이 있다. 상업시설 뒤편의 경사지에 주택들이 지형에 순응

〈그림 72〉 간뎃말 전경

〈그림 73〉 현재의 주도로

〈그림 74〉 조선시대 주도로(옛길)

〈그림 75〉 군하1리 경로당 앞 옛길

〈그림 76〉 가옥 옆으로 난 옛길과 구거(溝渠)

하는 배치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큰길을 따라 각종 음식점을 비롯해 슈퍼, 이발소, 미용실, 커피숍, 철물점, 건축설비, 의상실, 세탁소 등 면소재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주변 마을에서 소비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신협, 농협 등 금융시설과 농협창고, 농약판매점, 농기계수리점 등 농업과 관련된 서비스 시설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 2층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로 되어 있는데, 간혹 시멘트블럭조로 된 단층 건물도 눈에 띈다.

간뎃말 중심인 농협 월곶지점 사이 골목에는 5일장이 들어서는데 이 장 이름이 통진장이다. 예전에는 우시장이 있을 정도로 이 일대에 지금보다 훨씬 큰 장이 들어섰던 곳이라 한다. 주변마을인 포내리, 갈산리, 고막리, 옹정리 일대에서 장을 보러 통진장에 모

〈그림 77〉 옛 면사무소와 공공시설

〈그림 78〉 군하리 장터 현재의 모습

〈그림 79〉 이면도로 옆 옛 상업시설(옛 중심도로)

〈그림 80〉 옛 목조주택을 개량한 주택

〈그림 81〉 70년대 말 지어진 개량주택(불란서 지붕집)

〈그림 82〉 최근에 지어진 2층 다세대주택

여들었다고 한다. 이면도로 북쪽으로는 단층 주택들이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옹기종기 자리잡고 있는데, 골목길은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옛길 원형이 많다. 주택들은 2~3층의 연립주택 형식도 있지만, 단층의 시멘트 블록조 건물이나 붉은 벽돌로 외장을 마감한 조적조주택과 70년대 말 주택개량사업으로 지어진 일명 '불란서 지붕집', 전통목조주택의 뼈대에 벽체와 지붕을 개보수한 집들이 간간이 눈에 띈다. 목조주택은 50년대 이후 지어진 것으로 서까래와 기둥, 대들보 등이 주요 골조를 형성하고 벽체는 시멘트블럭이나 샌드위치패널 등으로, 지붕은 함석슬레이트를 올려 개보수한 집들이 상당수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구 면사무소 앞길을 중심으로 공공시설이, 큰길 주변으로 상업시설이, 북쪽 경사진 지형의 골목길 주변으로 주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공간구조이다.

④ 아랫말, 구생골, 둥더모퉁이 주택

군하1리 초입에 해당하는 사거리 인근이 아랫말이고, 군하 사거리에서 분진중학교 방향으로 길게 난 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마을이 구생골이다. 그리고 사거리에서 북서쪽 고막리 방향으로 김포조각공원을 못간 인근이 둥더모퉁이에 해당한다.

아랫말에 해당하는 사거리 인근은 간뎃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아랫말 사거리는 지리적으로 김포와 고막리, 용강리 방향에서 군하리로 들어오는 마을 입구에 해당하여 좀 더 오래된 상업건물이 많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사거리를 중심으로 군하1리 방향으로 큰길을 따라 상업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상업시설은 철물점, 건자재 판매점, 건축설비, 슈퍼마켓 등이다. 상업시설 뒤편으로 오래된 주택과 최근에 지어진 2~3층 주택이 여건에 맞추어 자리 잡고 있다. 구생골은 아랫말 사거리에서 애기봉로 11번 길을 따라 분진중학교 방향으로 이어지는 골짜기 마을을 일컫는다. 주택이 드문드문 자리할 뿐 이렇다 할 특징은 없다. 이 길 옆으로 골짜기를 따라 조그마한 시냇물이 흘러내려 오는데, 아랫말까지 다 이르지 못한 곳에 우물이 있어서 주변 마을사람들이 이용하는 식수원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그림 83〉 군하1리 공간구조(공공, 상업, 주택)

둥더모퉁이는 군하리와 고막리 경계에 위치해 있는 모퉁이이다. 이곳에는 '경관주택'이라 하여 소위 '불란서 지붕집' 14채가 나름의 격자형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고 있다. 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한꺼번에 지어진 것이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주생활'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84〉 군하리 사거리 주변의 오래된 상업시설

〈그림 85〉 구생골에서 아랫말 방향의 애기봉로 11번길

군하2리 봉골

군하2리 봉골은 갈산 사거리에서 48번 국도를 따라 강화 방향으로 약 100m되는 지점부터 시작된다. 남산 방향 남서쪽으로 길게 난 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마을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산 봉수대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이다. 48번 국도변으로는 공장, 자동차 정비소, 가구점을 비롯한 음식점 등 공업·상업시설이

〈그림 86〉 둥더모퉁이 주변 '경관주택 단지'

〈그림 87〉 군하2리(봉골)의 공간구조

〈그림 88〉 군하2리 봉골과 남산 봉수대 전경

자리 잡고 있고, 그 뒤편으로 남산에 기대어 골짜기를 따라 대규모 양계장이 자리 잡고 있다. 봉골 서쪽 끝자락은 예전에 배나무가 많이 자라서 배나무골이라 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건설장비업체가 들어와 있다. 주택은 김포대로 2659번길(용허리길)을 따라 10여 채 모여 있고, 봉수대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도 몇몇 집이 자리 잡고 있다. 한두 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최근에 지어진 집이다. 용허리길 가운데 군하2리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2층 조적식 건물로 자리 잡고 있어 마을 어르신들이 모이기에 용이하다. 봉골은 대규모 양계장과 대로변 상업시설 등으로 오래된 농촌마을의 모습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그나마 옛 봉골의 흔적은 용허리길을 중심으로 조금 남아 있을 뿐이다.

군하3리 곰배마을

통진향교를 지나 서쪽으로 좀 더 가면 48번 국도와 만나는 삼거리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이 곰배마을로 가는 강남모퉁이이다. 예전에 이곳에 미륵불이 있었다고 하여 미륵당터라 불리기도 하는 곳으로 여기서 다리를 건너 남쪽으로 포내천을 건너오면 바로 곰

〈그림 89〉 군하3리 곰배마을 긴골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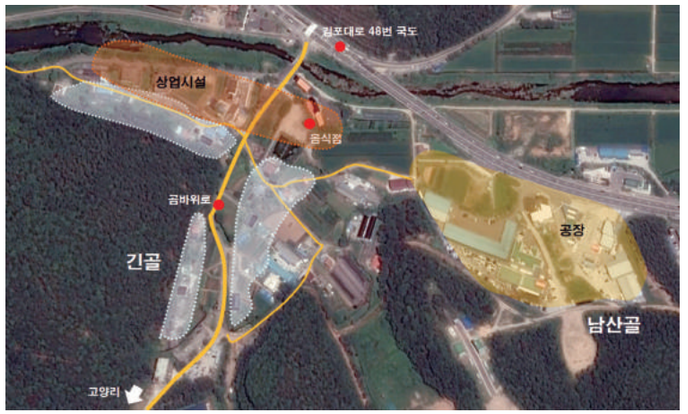
〈그림 90〉 군하3리 곰배마을 전경

배마을이다.

곰배마을에서 바라보면 북쪽으로 문수산과 곰바위, 고무렛골이 위치해 있고, 남서쪽과 남동쪽(남산)으로는 해발 180m 내외의 산이 인접해 자리 잡고 있어 기다란 골짜기(긴골)를 형성하고 있는데, 골짜기 북쪽 끝자락에 지형이 넓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포내천과 인접하여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마을은 크게 긴골을 따라 나 있는 곰바위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영역과 마을의 초입에서 서쪽 갈림길을 따라 형성된 영역, 그리고 동쪽 갈림길을 따라 형성된 남산골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마을의 중심은 각각의 영역으로 갈라지는 작은 사거리라 할 수 있는데, 이곳에 군하3리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위치해 있다. 포내천과 인접한 마을 초입에는 몇몇의 음식점 들이 있는데 강화에서 김포로 오가는 사람들이나 인근



〈그림 91〉 군하3리(곰배마을)의 공간구조

주민들이 찾는다.

긴골을 따라 남쪽 방향으로 작은 개천을 따라 농가들이 자리 잡고 있다. 1978년경 정부 보조로 새로 지은 집들과, 1950년대(한국전쟁 이후) 지은 집을 개량한 집, 그리고 100여 년 정도 되어 보이는 거의 다 쓰러진 초가집 2채가 있다. 농가 주변으로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여러 동과 함께 창고 등 부속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거리에서 서쪽으로는 비교적 최근에 지은 집이나, 1978년경 지은 일명 '불란서 집'이 있는데, 이 중에는 빈집도 있다. 마을의 동쪽 남산골 영역은 공장이 들어서서 옛 모습은 사라지고 없다.

2. 군하리 마을 역사적 사건

1) 한국 전쟁과 고무레골 학살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에도 군하리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군하리에도 일상의 삶이 돌아오는 것 같았으나 이내 곧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이는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로 군하리 주민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주민의 구성원 중 상당수가 '피난민'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이주민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군하리의 삶은 여전히 고단한 것이었다.

특히 김포 지역은 당시 남북의 경계이자 상륙지, 해안방어선으로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남과 북이 번갈아 점령하며 많은 비극을 낳은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비극은 불과 두세대 이전의 일이었기에 주민들의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다. 그 첫 번째가 군에 의해 이루어진 주민학살에 대한 기억이다. 여전히 당시의 기억이 남아 있는 주민들은 '바닥 빨갱이'라는 명칭을 통해 당시의 아픔을 되새긴다.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군인은 학살의 주체가 되었고 여기에는 남한군, 북한군, 미군이 모두 포함되었다. 군하리에서 가장 많이 제보된 것은 고무레골의 학살이다. 한국전쟁 시기에도 여전히 군하리는 행정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지역 내 이념 대립이 자연스럽게 존재했다. 좌우익 활동의 대립이 주민 사이에서도 6.25 당시의 학살에 대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 고무레골은 6.25당시 사건이 있었던 장소, 좌우의 대립에 관련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있었던 기억의 장소이다.

이와 같은 과거의 아픔은 시간이 흐르며 천천히 치유되어 가고 있으나 불과 50년 전의 기억이어서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치부하기보다 과거의 아팠던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주민들과 앞으로 군하리에서 살아갈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전후(戰後) 군하리의 성쇠(60년대~70년대)

한국전쟁 이후 한강과 바다를 오가던 선박들이 군사분계선으로 인해 통행이 금지되며 완전히 사라지자 군하리는 이전의 읍치이자 주요 도로의 기점이었던 영광을 잃어간다. 반면 전쟁으로 인해 새로이 유입된 주민들과 군부대의 주둔으로 군하리는 이전과 다른 양상의 새로운 발전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농상 복합지대의 특성을 지닌 군하리는 전후 60년대로 접어들며 첫 번째, 상업적으로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장터의 활성화와 상설시장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물길은 막혔으나 강화와 서울을 잇는 유통로로서 육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으며 통일을 기다리는 피난민의 군하리 정착과 더불어 군부대가 소비계층으로 자리 잡아 군하리의 상업은 전쟁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발달한다. 제보에 따르면 60년대부터 70년대 말까지 군하리에는 최소 7개 이상의 술집 또는 다방이 있었으며 다방에 3명씩 아가씨를 두었다고 한다.

전후 60년대까지 군하리 또한 한반도의 전쟁 피해 지역과 생활양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군하리 주민들은 미국의 원조물자와 미군의 주둔에 기대어 사는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영위했다. 제보에 따르면 주민들은 당시 미군을 통해 밀가루가 배급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배급된 보급 밀가루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식생활을 하였다.

① 풀떼기 : 밀가루를 죽처럼 쒀 먹음.

② 밀수제비 : 밀가루 반죽으로 수제비를 뜸.

③ 밀국수 :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칼국수와 비슷한 형태의 국수.

식생활 이외에 군하리 주민들의 생활은 군무원이나 군종사원과 같은 미군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물건이나 달러로 댓가를 받아 생활하는 형태도 일반적이었다. 제보자 김수복은 당시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빨래를 해주는 댓가로 물건이나 임금을 받아 생활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노동력 제공 이외에도 미군 철수 이전까지 부대에서 나오는 물건을 거래하거나 미군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의 드라마여. (그래서 이북에서 사시다가) 그렇게 해서 왔다가 우리 아버지는 파편에 돌아가시고, 비행기 파편에. 밤에 파편에. 우리 어머니하고 아들 동생하고 우린 다 여동생도 먼저 오고, 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동생 둘하고 이북으로 피난 오는데, 내가 그래서 '왜 하필이면 여길 왔느냐' 이거야. 담배 장사를 해도 부산까지 내려갔으면은 내 신세가 이럴텐데, 여길 왜 왔느냐 이거야. 찾아오니깐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외갓집에. 외갓집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세탁했지. 미국놈 빨래해서 먹고 살았지. (이쪽에 뭐 미군들 빨래할 게 있었어요? 미군이 들어 왔었나봐요 여기?) 그럼요. 군인 여기 주둔했잖아요. 어제대 입구. (전쟁 끝나고?) 전쟁 끝나자 전쟁 할 때 (전쟁 할 때) 그자 휴전 상태지. 그게 있을 적에 뭐 할 거 없으니까 세탁 허고서는 갖다 그거 팔아 가지구 살았지. (미군 있던 데가 어디였어요?) 나요? (미군들 있던데가?) 물건 여기도 주둔하고, 보건리 (보구곶리) 저게, 이쪽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잖아? 지금 이쪽에도 있지요. 저짝 돌아가는 데 고기에 주둔 여기 많이 했었어요. (원래 지금 어디쯤 근처?) 항공대가 미군 있지 않았어요? 항공대까지는 난 잘 모르고 저짝으로 가면 애기봉 가는 길 있잖아. (애기봉 가는 길에?) 편대 거기에 있었어 대대가. 고기서 세탁 했었으니까. 오리장 입구. (오리장에도 있었고?) 덕밭골. 덕밭골에 있었어요. (덕밭골에) 그래서 우리 동생이 나와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고게 하우스백으로 들어간거야. 고게. 하우스백으로 들어가서 있으면서 그 3대대 있을적에 동생 덕에 빨래하는 거 많이 얻어 썼지. (하우스백이 뭐하는 일이에요?) 심부름 하는거지! (미군부대 들어가서?) 말하자면 보이야. 보이지. 심부름꾼이지 뭘. 그렇게 해서 먹고 살다가 할 수 없으니깐 살다가 군인 나가서 우리 동생은 군인 나갔지요. 그래 어머니하고 나하고 보건리서 살다가 일로 온거지. 이 역사가 길어요. (보건리가 보구곶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예. 그 쪽에 가서 부대가 또 저쪽으로 앉았어요. (거기도 부대가 있었고?) 거기에서 세탁했지요. (이쪽 애기봉 있는 쪽이랑?) 애기봉 쪽에는 난 몰라. 애기봉 쪽에는 모르고 이 보구곶리, 이 용강리 이쪽에만 알지. 용강리는 안 들어갔드랬어. 보구곶리에 그 그 3대대가 보구곶리가 있드랬어. 3대대야 내가. (3대대) 세탁하는 사람 3대대. (미군들 있을 때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던가요?) 그런짓은 안해요. 그 사람들. 그런짓은 안해. 그랬는데 그 세탁을 하는데 인제 보건리 큰 우물이 있어요. 거서 빨래를 했잖아. 근데 어떤 남자가 오더니. 아주머니 여기서 빨래 하지 말래. 나 여기서 [미군 부대]세탁을 하는데 빨래를 하지 말래냐고. 이 사람 빨래를 하지 말래. 그럼 당신 빨갱이 아냐 그랬지 그냥. 당신 이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고 있는거 아니냐 말야. 빨갱이 왔으면 여기서 못 살거 아니냐. 당신 빨갱이지 뭐야 막 그랬지. (미군들 빨래 해주는 게 싫었나보다 그 사람은) 그 우물 쓴다고. 돈이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 나는 현찰을 맨들잖아요. 가면은 캔디 뭐 깡통 그런거 주는거야. 돈은 안 줘. 그거 팔아서 이제 돈. 현찰이 있으니까 세규바 배급이 나와서 나한테 돈 꾸러 오는거야 이사람들이. 현찰을 가지고 노니까. 그 해서 돈 나오잖아. 팔면. 용임네 갖다 주는거야. 요게. 갔다가 그 팔면 씨레이션이고 뭐이고 다 받아가면 돈 현찰로 나오잖아. 그러니깐 돈 버는 돈이니깐 그렇게 해. (빨래 해주고 물건으로 받아오시는구나) 예. 물건으로 받는거에요. 캔디. (그거 이제 미제 물건 팔아서 돈이 되는거죠?) 담배 주고 씨레이션 주고 이제 캔디 이런거 주는거야. 그러면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팔면은 돈이 나오잖아. (그걸로 쌀사고) 그걸로 나 쌀사고 먹고 그러고 사는거지 뭐.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깐 한 2년 했나? (2년 있다 미군이 나간?) 그래서 나왔지 갔지. 그래서 세탁을 하다가 캔디를 주다가 나중엔 지금으로 돈 8만 원 월급 주는거야 월급으로. 월

〈그림 92〉 김수복 할머니(군하1리, 24년생)

급 받았지. 8만 원 월급 받았지. (그때 8만 원이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세탁 가기전에 큰 돈은 아니야. (큰 돈은 아니에요?) 그 받아가지고 살았지. 그 대신 내가 양주 장사를 핸거야. 5불 주고 사오면 10불을 받는 거야. (양주? 그 양주는 어서 받아 오셨어요?) 아이 그 용정포에나 가면은 인천서 요기에가 갔다가 파는 사람들 그 많았어. 5불에 받잖아. 5불에 사면 외상으로 주고 10불 받는거야. 괜찮은 거였지 그. (그 장사를 김포에서 하셨어요?) 아, 여기서 했지. 세탁하는 고기서만 한거야. 고기서만 한거야. (그 뭐 양주 장사는 언제까지 또 하셨어요?) 아, 그 쪼끔 했지요. 한 1년 쪼끔 하다가 고만둔거니까. 그 사람들 우리 동생 가곡 사람들 나가니까. 여기 주둔 안하고 절루 나가니까. 고만 한거지 뭐. 그러고 살았지. (할머니 그러면 애기 낳고 피난을 가신 거잖아요?) 아이, 그 6·25 때 낳은거지. 6·25 나고 나서 낳은거야. (6·25 나서. 애기 하나 낳으셨어요? 아들?) 아이, 딸. (그럼 김포로 와서는 애기 더 안 낳으셨어요?) 왜요, 많이 낳죠. (여기서 새로 살림 하셨나봐요?) 딱 결혼 했죠. (새로 결혼해서) 우리 어린애를 호적에를 올려야 하잖아요. 없으니까 딴 데로 우리 아저씨들이 시집가라고 해서 여기와서 결혼했지. 실향민한테 시집가서 하이구. 아들 낳고 딸 낳고. (바깥 어르신도 이북 분이세요?) 우리 영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북에서 오셨어요?) 이북 사람이에요 그쪽. 같은 실향민끼리."

김수복/ 군하리 노인회관[13]

그러나 이러한 생활양식은 미군이 철수하면서 다시 한 번 바뀌게 된다. 1971년 2월 6일 최규하 외무장관과 포터 주한미국대사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는데, '1971년 7월 말까지 7사단을 철수하고, 서부전선의 2사단을 후방에 배치하며 휴전선은 한국군이 전담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군하리와 인근(월곶)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은 완전히 철수하게 되며 군하리는 미군에 의한 임금과 상업적 소득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새마을 사업을 통해 자체적인 지역 생산량 증가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했다.

두 번째, 농업적 측면에서는 논농사 기술의 발달로 천수답에서 관개를 이용한 농업생산량 확대가 일어나며 동시에 상품 작물의 재배도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피난민과 개

13 1924년생 김수복은 황해도 사리원에서 출생하였다. 해방 3년 후 월남하여, 전북 부안으로 피난생활을 하였다. 휴전 후 군하리로 이주 정착하였다. - 김수복(92세) 인터뷰 채록, 2016년, 7월 10일, 군하리 노인회관, 조사자 남찬원.

풍군(개성)으로부터 인삼 재배 기술이 전수되며 삼포로 불리는 인삼 재배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다음은 군하리의 인삼 재배에 대한 주민 전순복의 증언이다.

군하1리의 삼포 농업 : 예전에는 군하리가 모두 삼밭

"옛날에는 삼포도 많이 했어요. (삼포? 아, 삼도 하셨어요?) 인삼밭 많이 했었어. 난 인삼밭을 많이 했어. (그런 얘기를 허셔야지, 내가 여기 62년도에 시집을 왔는데, 여기 큰댁에서 벌써 삼포를 해가지고 삼을 해마다 캐. 옛날에는 여기가 다 삼밭이야. 그래 가지고 여기 삼을 엄청 많이 심었어. 우리네 시집 올 때는 여기가 다 삼밭이야.) (여기 군하1리에 삼밭이 많았어요 그러면?) (여기 다 삼 심었드랬어) 강화김포가 원래 삼, 인삼으로 다 그래도 살림이 피어난 사람들이에요. 강화도 원주민은 다 살림이 어렵고 개성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다 인삼포 해가지고 다 부자된 사람들이거든.

강화 가도 부자는, 제일 부자는 개성 사람이야. 이 김포도 마찬가질거야 아마. 김포도 이제 그 (원주민 보다는?) (원주민 보다는 피난민들이 더 잘 살어.) 지금 가만히 보면은 6·25나가지고서는 6·25 사변 때 내려와 가지고서는 피난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사는 수준을 보면 원주민 보단 더 잘 살어. 그 왜 그러냐. 그 원인이 있어. 그 사람들은 맨주먹 쥐고 내려온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깐 내가 여기 와서 힘 노력을 안 하면 못 살거든. 그러니깐 그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하고 여기 김포 사람들은 땅 마지기나 있으니깐 배짱 믿고선 나 이거 가지니깐 먹구 산다 느군청댄거야. 그 사람들은 하루만에 잠을 10시간 잘 거면은 여기 사람들이 10시간 잘 거면은 그 사람들은 4~5시간 밖에 안자는 거야. 그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야 것다는 그 정신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못 따라가는 거야 피난 나온 사람들을. 절대 못 쫓아가.

(보통 삼은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했다고 그러셨는데, 어르신은 어떻게 삼밭을 그렇게 크게 하셨어요?) 뭐 내가 그냥 잡아서, 밭 잡아서 한거지. (아버님부터 하신 건 아니고요? 아버님이 하신 건 아니고?) 네, 내가 다 한거야. (그래도 삼 밭 크게 할 때는 몇 평 정도 하셨어요?) 아유 많이 했지. 많이 했지. (2천 평, 3천 평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은 안 하세

〈그림 93〉 전순복 할아버지(군하1리, 32년생)

요?) 지금은 안 해 인제. 이제 나이가 있는데 뭐. (언제까지 하셨어요?) 안 헌지 아마 한 8년? (그래도 오래 하셨네요.) (삼이 기술이 있어야 될텐데) 돈을 애끼면은 삼을 제대로 못 길러요. 애끼지 말고, 돈을 애끼지 말고 쓸 거를 다 써야지 밭에다가. (비료도 많이 넣어야 되고?) 비료는 주면 안되고 인삼은. (그러면 뭘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게?) 거름, 거름 이런 걸 많이 잘 해야지. (좋은 거를?) 인제 그 산에서 나오는 거 가닥이 있어 가닥, 가닥 넣고 그러면 그게 최고야. (갈잎 썩은 거 그런 거 사다가 주는거야) 그게 최고야. (아, 갈잎이) (이런 비료 그런 거론 안 돼. 저기 저 좋은 걸로만) 뭐 그런 것도 넣고 여러 가지지 뭐, 곡초도 썰어 넣는 사람들 있고. 뭐 하다 못해 농촌에서 재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 그전에 옛날에는 지금은 입식을 해서 살지마는, 그전에는 다 불 때는 아궁지 했잖아. 재 나오면 재도 받아다가 가지고 가서 뿌리고 밭에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삼이 잘 됐어. 왜 잘됐냐. 최 첫 그루가 돼서 땅이 인제 인제 그 (토질이) 토질이 인제 그 100프로다 이거야. 그러니깐 삼도 그와 같이 쫓아가는 거야. 그 땅 힘에 따라서. 근데 한 번 들어갔던 밭을 다시 없으니깐 또 재그루 들어간다고. 그 땐 땅 토질을 80프로는 빼먹다시피 한 거야. (삼이 다 빼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삼이. 삼이 거름을 몹시 빨아요 또. 다른 것들보다. 그러니깐 재그루 들어가게 되면 밭이 아주 상밭이기 이전에는 힘들거든 재그루 해서. (아, 땅이 좋아야 되는구나) 땅이 좋아야지. 그래서 삼을 점점 못 하는 거지. 지금은 저 뭐 뭐야 그 일산 저기 저 파주 이런데로 들어가서 많이 하잖아. 지금 파주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거 보면 삼 잘 나오대. 6근짜리 잘 나오더라고. (거기 이제 땅이 아직 싱싱해서) 거기 아직 천연근이 있나 봐요. 거기 그짝으로 그 전방이니까는 아마 그런데서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니깐 그렇게 뵈더라고."

전순복 / 군하리 노인회관[14]

군하리는 미군이 철수한 이후인 70년대에 필요성에 의해 상품작물인 인삼 재배와 함께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켜 왔다. 이는 당시의 새마을운동과 맞물려 마을 생활사의 변화를 이끌어 나갔다. 새로운 농업기술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며 군하리는 도농복합도시의 형태를 정착시키고 유지하게 된다.

3) 군하리장터의 쇠락과 그 이후

앞서 '장돌림 구조와 군하리 5일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주둔군 철수와 강화교의 개통에 따라 군하리장터의 5일장은 급격하게 소멸의 길을 걷는다. 군하리장터는 현 우체국 인근과 농협 건물 일대를 우시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일제강점기부터 명맥을 이어오던 양조장도 존재할 정도로 큰 규모였다.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이전인 1970년대 중반까지 장터거리에는 가설극장이 들어서 「섬마을 선생님」, 「동백아가씨」, 「아빠의 청춘」 등 당시 인기있던 영화를 상영하면서 군하리 및 인근 주민에게 많은 인기를 모으기도 하였다.

주민 김수복의 제보에 따르면 장터에서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가마짜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여러 노력을 하였으나 미군 철수 이후 강화교 개통과 48번 국도가 군하리를 읍내(장터)를 거치지 않는 형태로 강화대교까지 새로이 확장 개통되는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군하리 5일장은 쇠락의 길로 들어선다. 다만 70년대에서 80년대를 관통하는 동안 5일장은 쇠락하였지만 5일장을 대체하는 상설점포들이 군하리장터 거리에 들어서며 외지인의 유입 등으로 면소재지로서의 외형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그림 94〉 우시장 및 가설극장 터

14 전순복(83세) 인터뷰 채록, 2016년, 7월 11일, 군하리 노인회관, 조사자 남찬원

4) 군하리 인구의 유입과 유출

군하리는 조선시기 이전부터 본디 읍치였던 지역으로 기본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았던 지역이다. 그러나 기본 인구 구성은 단번에 큰 폭으로 변화하지는 않다가 일제 강점기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며 1차적으로 인구 구성 변동이 심해진다. 전통적으로 통진으로 통칭되었던 군하리는 인구의 유동성이 존재했던 만큼 지역 인구에 관한 속설도 오랫동안 전해져 왔다. '암강화 수통진'이 대표적인데 조사된 내용은 다음 〈표 11〉과 같다.

이렇듯 전통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았던 군하리(월곶)는 한국전쟁 이후 큰 규모의 인구유입이 일어나게 된다. 피난민의 대규모 유입이 그것이다. 상대적으로 전쟁 이전에도 도강이 쉬웠기 때문에 용강리를 통해 개풍군과 인구 유동이 상당했던 월곶 지역은 전쟁이 발발하자 대규모의 월남 가족이 들어오게 된다. 6·25 발발 직전에도 당시 북한 지역의 토지재분배로 인해 먼저 월남하였던 인구가 있었고 6·25 발발 이후에는 피난민이 대규모 월남하였다. 당시 월남 루트는 연안군에서 배를 타고 강화도의 교동으로 내려오거나 개풍군에서 용강리 나루를 통해 월곶으로 내려오는 길 두 가지였다.

제보자 김수복의 경우 6·25 이전에 월남하였으며 군하리에서 만난 남편은 마찬가지로 황해도 연백 출신이다. 통진(월곶) 군하리와 강화 교동에 피난민이 많이 거주하는 이유는 배로 피난 나와서 바로 정착을 했고 통일이 된 경우 빨리 다시 돌아가기 위해라는 답변을 하였다. 황해도 출신 사람들은 전쟁 이전부터 강화와 통진(월곶)을 자주 왕래했

〈표 11〉 인구 유동 관련 군하리 속설

인구 유동 관련 군하리 속설		
시기	속설	내용
근대 이전	암강화, 수통진	여자는 강화 사람이 좋고 남자는 통진 사람이 좋다는 말
	강화 사람은 통진(월곶) 와서 오줌도 안 눈다.	강화 사람들의 경제 관념이 근검절약하는 정신이 강한 것을 비꼬듯 하는 말
	강화 사람이 통진으로 시집가면 잘 살고 통진 여자가 강화로 시집가면 못 산다.	강화 여자의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진으로 시집오면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통진 여자가 강화로 시집가면(시집살이 등이) 어렵다는 말
근대 이후	황치들이 드세다.	'황치'는 황해도 출신을 이르는 말로 생활력이 강하고 억척스럽다는 통진(김포) 주민의 시각을 반영하는 말
	피난민이 부자 된다.	생활 기반이 없는 피난민이 토박이에 비해 더 열심히 살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이 많다

〈그림 95〉 6·25 전쟁 전후 월남 루트

다. 기억하는 바로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북과 왕래를 했으며 8살 때 배를 타고 인천에 간 기억이 있을 만큼 선박을 이용한 왕래가 잦았다.

그러나 다수의 바람과는 달리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하리 및 월곶면 일대에서 통일을 기다리며 거주하던 피난민들은 해당 지역에 그대로 정착하여 살게 되었고 현재는 군하리 및 월곶면 일대에 2세대, 3세대도 다수 거주하게 되었다.

5) 90년대 레미콘 공장 반대 시위

70~80년대에 거쳐 군하리의 새로운 생활 형태가 정착하고 새마을운동의 농업 생산력 증가 등을 통해 마을 사회가 안정화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90년대 군하리는 다시 변화의 시기로 들어서게 된다. 다만 90년대 이후의 변화는 지역의 쇠퇴를 막으려는 움직임과 함께 일어나게 된다. 특히 198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군하리 중심의 '통진'이라는 명칭이 마송을 중심으로 하는 '통진면'이 신설 되면서 일종의 개념 이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과거에는 '통진'이라고 하면 당연히 군하리를 중심으로 생각하였으나 83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로 '통진'이라는 이름은 마송 지역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군하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더해

〈그림 96〉 시위의 이유가 된 레미콘 공장

서 90년대에 들어 아파트 단지 건설 등 월곶 지역의 개발은 바로 이 '새로운 통진'인 마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군하리 주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심해진다.

이러한 지역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1995년~1996년 레미콘 공장이 군하리에 들어서는 사업계획이 발표되었다. 군하리 주민들은 당 레미콘 공장을 일종의 혐오시설로 판단하게 된다. 수질오염,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개발 소외에 대한 박탈감이 누적되어 있던 군하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레미콘 공장의 입주가 기화가 되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다. 반대 사유는 공장이 들어오면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게 되므로 지하수 오염이 일어나고 공장 가동 시 분진이 발생하여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었고 공장 측에서 공업용 지하수 관정을 설치한 이후 실제로 약수터나 우물 등의 물이 마르게 되었다.

시위가 시작되자 노인회, 청년회 등 마을의 모든 자치 조직이 시위를 지원하여 시위는 모든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증언에 따르면 공사현장에 있던 나무에 스스로 몸을 묶고 버티거나 도로에 타이어를 쌓아 불을 붙여 김포에서 강화로 가는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의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로 초기에는 시공 업체가 공장 건설을 포기할 상황까지 갔으나 시의 공권력 개입으로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노인회, 소방대, 청년회 등의 주민자치 조직의 자금을 시위 자금으로 사용하여 소진할 정도로 끝까지 격렬하게 저항하였으나 아쉽게도 시위 현장에 나가던 학생이 현장에 있던 주민의 차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시위의 동력은 급격하게 상실된다. 더불어 시위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위를 이끌었던 것으로 제보되는 농민회가 빠져 나갔다. 결국 마을에서 당시 시위의 선두에 섰던 청년회 소속 주민 4~5명이 구속되면서 시위 동력은 완전히 줄어들고 결국 와해되고 만다.

현재 주민들의 입장을 묻자 레미콘 공장은 고용창출을 하는 것도 아니며 지역경제와는 별리되어 주민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6) 분진중학교

군하리가 월곶의 중심이었던 전후 80년대 말까지 지역의 군하리에 위치한 주요 교육시설로 분진고등공민학교(분진중학교)와 월곶초등학교가 있다. 분진중학교는 과거 통진향교 동남쪽 아래 창고부지(군하로 284)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이전하였다. 분진중학교에서 교사를 지냈던 지역 출신 김포문화원의 류지만 전 원장의 제보에 따르면 분진중학교는 지역 인물의 산실로 고위공무원, 교육자, 전문직 등 다방면의 인재를 다수 배출하였으나 현재는 학교재단의 사유화로 예전만큼의 명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분진고등공민학교 재단의 최초 설립자 조한표 이사장은 조선왕조의 마지막 환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조한표 이사장은 양주군 진적면 오남리의 29만 평 임야를 고종 황제에게 하사받고 퇴임하였는데, 고종 황제는 직접 양주에 행차하여 조한표에게 땅을 하사하였다. 조한표이사장이 받은 땅이 현재 진접면 오남리의 어람동 일대이다. 조한표 이사장은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분진고등공민학교 사학재단을 설립한다.

〈그림 97〉 류지만, 전 김포문화원장

"그 분이 그 진접면 양주군 진접면 오남리에 근 한 29만 평인가 되는 임야를 터전을 임금이 와서 준 거예요. 퇴직할 적에 임금이, 대개 임금들이 자기를 보필하던 내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나이가 육십 먹으면 퇴임시켰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위에서 업신여길까봐 직접 가잖아요. 임금이 직접 가가지고 많은 백

성들이 보는 앞에서 '얘한테는 나한테 와서 애를 많이 썼으니까 이렇게 줘라.' 그러면 그때는 지적도가 없으니까 능선과 냇가가 경계선이야. 근데 이제 이분이 받은 거가 어람동이야. 어람동은 임금이 둘러봤다 해서 어람동이야. 임금 어 자, 볼 관 자. 어람. 그래서 어람동. 그 진접면 오남리에 가면 어람동이 있어요. 그 바로 조한표 씨가 받은 땅인데 그거를 이 학교에 내 놓은거야."

류지만 / 전 김포문화원 원장[15]

〈그림 98〉 분진고등공민학교 최초 설립 위치

설립 이후 분진고등공민학교(분진중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했는데, 당시 대학 재학중이었던 류지만은 민병길 교장의 초빙으로 대학 졸업을 미루고 분진학교 선생님을 하게 되었다. 당시 초등학교 졸업식을 다니면서 '중학교 못 가는 애들 무상으로 가르쳐 줄게 와라' 해서 약 240명이 분진중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학생들은 교육비는 커녕 교과서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돈을 추렴하여 청계천에 가서 파지로 파는 교과서를 사서 리어카에 싣고 와서 밤새도록 다리미질해서 표지를 붙여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나누어 주어 교육을 하였다. 병에 걸린 아이들은 미 해병대에 부탁하여 의료 봉사로 치료를 하기도 했다. 교사와 학생은 모두 교육에 열의를 불태웠는데 당시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졸업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졌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들은 된장국에 보리밥을 같이 먹으며 방학도 없이 공부하여 졸업 자격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분진고등공민학교의 위치는 통진향교의 맞은편으로 통진관아의 객사가 있던 자리였는데 최초 월곶초등학교가 있었고 초등학교가 이전한 후 해당 자리를 분진고등공민학교가 사용했다. 복도는 여학생, 본교실은 남학생이 사용하였고 복도를 막아 교무실로 사용했다. 현재는 모두 철거되었고 창고부지가 되어 있다.

15 류지만(82세), 전 김포문화원 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인터뷰 채록, 2016년, 8월 26일, 월곶면사무소, 조사자 남찬원

7) 월곶초 100년

분진중학교와 함께 군하리에 위치한 유수의 교육 기관으로 월곶초등학교가 있다. 월곶초등학교는 일제 강점기인 1915년에 설립되어 이미 설립 100년이 넘은 유서 깊은 교육기관이다. 군하리의 월곶초등학교는 분교들이 독립하기 이전까지 월곶 지역의 대부분 학생들을 교육하였다. 일제 강점기 이후 월곶에서 출생한 대다수의 주민이 월곶초

〈그림 99〉 일제 강점기(1943년) 학교 제식훈련

〈그림 100〉 일제강점기 월곶초 교사 1

〈그림 101〉 일제강점기 월곶초 교사 2

〈그림 102〉 60~70년대 월곶초 교실

출신인 것을 보면 당시 월곶초의 재학생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월곶초등학교는 인구가 많았을 당시 여러 분교로 나누어(문수초등학교, 개곡초등학교, 옹정초등학교)졌으며 현재는 주민 감소로 문수분교는 폐교되었고 월곶초 자체도 소규모로 축소되었다.

8) 군하리의 근현대 기독교 신앙 – 월곶제일교회

〈그림 103〉 월곶제일교회(2016년 현재)

〈그림 104〉 1952년 첫 교회 건축 장소(현 교회와 20m 정도 이격)

군하리의 전후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감리교단의 교회인 월곶제일교회의 설립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군하리는 여타의 농업중심 촌락과 전혀 다른 도시로서의 속성을 일찍부터 갖추기 시작한 지역이다. 따라서 새로운 종교의 유입도 촌락 사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무속을 바탕으로 하는 마을신앙과 개인신앙의 소멸은 이를 데 없이 빠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인 농업중심 촌락 사회에서 마을신앙은 적어도 90년대까지 유지되다가 소멸되거나 혹은 현대까지도 미약하나마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무속 기반의 개인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군하리는 무속 기반의 마을, 개인신앙이 6·25 전쟁 이후 급격하게 소멸한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으나 군하리의 기독교(개신교)의 유입과 기독교 중심의 공동체 생활이 빠르게 정착한 것도 매우 큰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전쟁 중 피난민이었던 최진심 전도사에 의한 월곶제일교회의 설립은 군하리에서 교회공동체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마을공동체와 개인신앙의 영역에서 교회공동체가 미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다. 한국전쟁 이전에 군하리에 교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천주교 성당과 장로회 교회가 한 차례씩 들어와 있었으나 지역민의 공감을 얻는 데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소멸하고 감리교단의 제일교회만이 군하리에 정착하게 된다.

교회사의 자료[16]에 따르면 당시 피난민이자 애국부인회의 회원이기도 했던 최진심 전도사는 전쟁 발발 이후 월곶으로 들어와 1952년에 월곶제일교회를 설립한다. 초창기에는 포내리 수용소에 있던 피난민들의 교회로 여겨졌으나 전후 복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민과의 신뢰를 쌓으며 성공적으로 월곶의 중심인 군하리에 정착한다. 최초에 지역 주민과 손으로 흙벽돌을 찍어 세운 교회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음은 지역민으로 최초 월곶제일교회의 신자가 되었던 박의재 권사의 아들인 김윤수 장로의 증언이다.

"(월곶제일교회가 처음 시작이 된 게 목사님 말씀으로는 1952년? 그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1952년 (1952년 2월 12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네 그럴거예요. 전쟁이 인제 남침을 해가 와가지고 그 당시로부터 얘기를 지가 드릴게. 그때 이제 농촌에서 있는데 2월달인데 가물었어요. 가물었는데 농촌에서 모내기를 못 했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근데 천둥을 하더라고. 아 그래 인제 비가 오려고 천둥을 하나보다 그랬는데, 아침이 됐는데 아 그냥 난데없이 피난민들이 그냥 몰려오더라고. 아 그래서 어떻게 된거냐 그랬더니, 그게 천둥이 아니라 포 소리래. 그래서 이분들이 이북에 인제 있던 분들이 강화를 통해가지고 이리로 건너 온 거야, 김포로. 그 인제 조반을 해 가지고 먹였어요. 같이 먹었어요. 같이 먹고 같이 나간거야 피난을. 첨에 우리가 나갈 때. 그래 그렇게 시초가 됐고. 피난을 나가고 그렇게 끝났고. 교회는 교회 역사는 원래는 여기 인제 6·25 전에 장로교회가 있더랬어요.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교인들이 없었어요.

16 『월곶제일교회 40년사』, 월곶제일교회, 1992.

근데 그 당시 내가 어렸었드랬어요. 그 교회 가면은 왕사탕을 준다. 그래 가지고 거길 댕긴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몇 살 쯤이셨어요?) 그때 일고여덟 살 됐갔죠 뭐. 근데 그 교회에 인제 전도부인이라는 분이 한 분이 할머니가 계셨어요. 한분이 계셨는데, 그 잘 안 된 거예요. (교회가요?) 교회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6·25 전쟁이 나가지고 그 분들은 그대로 사라지고. 우리 어머님이 인제 그 여기서 사시면서 시집을 대곶면 송마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 시집을 갔어요. 가니까는 예수를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가신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집을 가 가지고 교회를 댕기는데 송마리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송마리 장로교회) 거길 다니도록 인제 시어머니께서 요구를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한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나 그 당시는 다 어렵지 않았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여기 인제 외할머니가, 외할머니댁이 좀 괜찮게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딸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그러니까는 '야 거기 시골에 그러고 있지 말고, 그럼 군하리로 와라.' 그래서 집을 한 칸을 사줬어요. (군하리에?) 그 사줘 가지고 저는 여기가 토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인제 나 가지고 여태껏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때 인제 어디 교회를 댕겼냐면 여기 개곡리라고 있어요. 개곡리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내 누이동생을 데리고 거길 교회를 댕기신거예요. 여기 교회가 없어졌으니까는. 장로교회가 폐지돼 없어졌으니까는. 그래가지고 6·25 나가지고 피난 나온 분이 누구냐면 옹진서 사시다가 나오셨는데, 피난 나오셨는데. 그때 한 80쯤 된 노인 전도부인이예요. 최진심 전도사라는 분이. (최진심 전도사. 앞에 비석이 있더라구요. 교회 앞에) 그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만나신 거야. 그래가지고 아 여기다 교회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피난 나온 최진심 전도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만나 그러니까는, 아 그러라고. 그러니까는 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땅을 여기 이제 현직 교회 부지가 길도 없어요. 그냥 산이에요. 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평당 3천 원이야. 3천 원에서 1998평을 산 거야 이제. 그 양반이랑 우리 어머니랑.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에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피난 나오셔 가지고 대나루라는 데에다가 피난 거처를 만들어 놓고 여길 다니시면서 인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해 놓고. 흙벽돌. 지금 블록 벽돌 있지마는 그 전에는 흙벽돌로 지어가지고, 그거 밖에 없으니까는. 피난민들이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강냉이 밥만 먹으면서 인제 와서 그렇게 봉사를 한 거야. 근데 이 지역에는 우리 어머니 밖에 없었어요. (신자가요?) 네. 그래 인제 그렇게 됐는데, 내가 몇 살이냐 하면은, 그때 6·25 당시 19살이었드랬어요. 그래가지고 인제 군인을 나갔습니다. 제2국민병으로 해가지고 군인을 나가가지고, 3년 근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대를 해서 돌아오니까는 교회가 흙벽돌로 지어져 있더라고. 피난민들이 흙벽돌 찍어가지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교회를 조그맣게. (지금 위치에?) 네, 그 위치에다가. 그런데 그게 1년, 2년 지나가니까는 군목. 군종실에 군목. 군인이 인제 또 그런 군목이 나와 가지고 봉사 하면서 미군들이 이제 그때 미군부대에서 재료를 사다가 나무로 목재로 교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흙벽돌이었다가 미군이 지원해줘서 목재로?) 군목이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목재로 지었어요. 목재로 지었는데 지금 교회로 가면 그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게 지냈는데, 우리 어머님이 무얼 하셨나면 그 당시에, 그 당시는 전기도 없고 길도 없고 그런 지역이니까는 저녁이면은 이렇게 멍석 깔고 가마니 깔고 교회 바닥에. 그래 가지고 저녁이면은 물이 없으니까, 높은 데니까 여기서 떠다가 하고. 호야 전기가 없으니까 호야 있잖아요. (호롱불) 호롱불. 그걸 인제 세숫대물 떠가지고 전도사 부인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그걸 닦아 가지고 밤새도록 두 분이 기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군하리는 인제 망했다는 거야. (왜요?) 저녁이면은 할머니들이, 하얀 할머니들이 나와서 밤새도록 운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할머니들이 아니라 전도부인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동네 사람들은 아, 마귀래는 거야. 군하리 인제 망했다는 거야. (웃음) 그래가지고 군하리 청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농촌에 보면 쇠시랑이라고 있어 쇠시랑. (쇠스랑) 그걸 가지고 말야. 때려잡는다고, 마귀라고. 아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어, 그래 인제 우리 어머니를 아시니까 그 사람이.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아, 이거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를 모르고. 그러니까는 기도가 뭔지 모르지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교회를 인제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야. 일을 하면서 말씀의 집이라는 걸 지었는데, 본당을 두고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 스스로 개척을 해가지고 교인을 와 가지고 말씀의 집을 지어가지고 애들을 양육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진심 전도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 비스름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있지만은, 내 믿음은 이 월곶교회에 가 세워져 있다.'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나한테. 그래 그때는 이제 그 당시는 신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이런 시골에 와서 교회 맡아가지고 1년 봉사하다가 가고 가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안 계셨고?) 그렇죠. 목사

는. 교단이 어려우니까는 목사님을 못 모시고,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예배드리고 주일이면 가고 그렇게 했드랬죠. 그래가지고 몇 년 흐르고 나니까는 교회가 인제 그 당시 자유당적에 4H구락부라는 게 조직이 되어 있드랬습니다. 시골에도. 4H구락부. 그래서 내가 군하리 청년들 지금 80대, 당시 청년들은 내가 다 교회에다가 전도를 시킨거야. 회의를 하면은, 4H구락부 총회를 하면은 교회에서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은, 군하리 사람들은 교회 안 거친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모두 전도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 인제 다 갔어. (청년회를 다 전도하셨구나) 응. 다 인제 다 하늘나라로 가고 현재 나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군하리에서. 저가 28년생이에요. 28년생인데 생일이 지나가면 90이 이제 다 된거야. (아유, 정정해 보이시는데) 그렇게 지내왔고.

사실 이게 그래요. 이 군하리에, 월곶면에 그 개곡리가 교회 서고, 군하리에 교회가 창립되면서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성동 기도초, 고양 기도초, 고막리에 기도초가 다 우리 월곶 교회에서 분할 나와서 교단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군하리에는 타 교파가 못 들어오고 있는 원인이, 왔다가 안돼요. 천주교회가 6·25 당시 피난민들을 물자 주기 위해서 천주교회가 들어왔드랬어요. 그게 인제 평화가 되니까 성당도 없어지고 그런 역사에 있고, 특별히 지금 최진심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이. 가족들이 그 비를 만들었어요. 가족들이 만들고, 교회에서 자리와 세우는 거, 헌신예배 그런 거를 드려줬어요. 가족들이 손주가 있는데, 그 분이 그래도 지금 돈 천 만 원이나 교회에다 헌금하고 있습니다. 왜 했냐? 할머니의 동상, 동상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최신심 전도사님의?) 응, 전도사님의. 여기다 세워달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세워질 것 같고. 역사적으로는 뭐 참 전도부인이 공이 컸죠. 그 분 믿음 아니면은 교회가 설 수 없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래요. 그래서 인제 우리 어머님이 교회에 헌신하시고 저희 가정이 다 기독교 신자들이예요. 지금 우리 4대. 저거이 우리 손준데, 지금 서산에 가서 전도사로 가서 지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부족하지만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를 그냥 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꼭 4시면 일어나서 기도생활을 합니다.

… 중략 …

이 월곶제일교회는 그 최신심 전도사님이 아니면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길도 없었어요. 길도 없고 이렇게 밭두렁에 그냥 나무하러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그걸 조금 조금 조금, 니어카 정도, 경운기 정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포장이 되어 가지고 차도 지금 올라다닐 정도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어제 차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예.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는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안대영 목사님이 많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계시죠."

김윤수 / 월곶제일교회 장로[17]

제일교회는 6·25전쟁 발발과 더불어 주민과 함께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하리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겪었던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다. 김윤수 장로의 증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교회를 성장시켰다.

물 사용의 어려움

"제일 어려웠던 거는 물이 없었어요. 거긴 물이 없었어요. 군하리에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군하리가 사용하는. 그걸 이제 길어다가 쓰고 그랬던 애로가 제일 많았고."

전쟁 후의 가난한 교회

"사실 또 목회자들의 식량을 유지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한때는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아침이 됐는데 식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모님더러, 사모님 왜 식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는 조금 더 있어야지 한대. 무슨 일이냐면 국수를 삶았는데 식구는 많고, 그러니까는 국수를 불기 위해서 불어나기 위해서, 양을 많이 내기 위해서 오래 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수가 불어날 거 아냐. 그래서 배식을 하고 그냥 하고 그래서, 그런거이 참 어려웠었죠. 먹는거이. 지금은 그냥 부자 교회가 됐고. (지금은 월곶에서 제일 뭐) 아 그냥 뭐 목사님 지금 아주 그냥 하다 못해 전구 하나라도 해드리니까 근심 걱정 없죠."

17 김윤수(28년생), 월곶제일교회 장로 인터뷰 채록, 2016. 8. 27, 군하리 제보자 자택, 조사자 남찬원.

길이 없는 교회

"그 당시에 어려웠던 거는 길이 없어서 어려웠드랬어요. 길이. 연탄을 땔 정돈데, 연탄을 올라가야 할텐데 니아카 길도 없으니까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제 그때 한참 일을 많이 하니까는 내가 교회 나가기만 하면 교인들이, 저 양반 또 무슨 일을 시키려고 또 나오냐고. (자꾸 뭘 시키셨나 봐요?) 그 정도야. 그래서 내가 연탄을 갔다 놓곤, 사다 놓곤, 배당을 시키는 거야. 몇 장씩 몇 장씩 갔다 놔라. 그리고 교회 건축을 블록으로 지을 때도 교인들이 참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월곶교회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며 주민들과 군하리의 근현대사를 함께한 월곶제일교회는 현재도 군하1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하리의 주민을 신자로 하여 월곶면 지역의 중심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 군하리와 봉골(군하2리), 곰배(군하3리)의 형성

군하리는 조선시대부터 통진 관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락이다. 현재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군하1리, 2리, 3리가 분할되어 있으나 지금의 2리와 3리 지역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군하리에 속한 자연부락이었다. 자연부락으로서의 명칭만 다를 뿐 과거에는 모두 군하리였던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마을의 경조사는 봉골(2리)과 곰배(3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모두 함께 했으며 자연스럽게 마을 조직도 하나였다. 실제 과거에 조직되어 있던 상포계가 봉골과 곰배를 포괄하여 조직되어 있었던 것이 증거가 된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점차 봉골과 곰배로 유입되는 주민이 늘어나면서 군하리는 1리, 2리, 3리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졌으며 현재 각각의 이장이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봉골(2리)의 경우 부락이 형성된 시기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봉수대가 있었기 때문에 봉골이라는 지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봉수대 건설이 있었던 조선시기부터 해당 지역이 존재했었다는 반증이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봉골의 설화에 따르면 일찍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5〉 지명전설과 관련된 군하2리의 용허리길

"이 동네는 전설이 부자로 잘들 사는 마을이었대. 그런데 이제 흉년이 들면 거지들 중들 많이 오니까. 있는 사람이니까 물론 권세를 부렸겠지. 그 (거지 중)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난 길 있지. 이거 이게 다 산이었어. 근데 이 길을 뚫으라고 그 길을 뚫고서 동네가 팍 다 망한 거야. 다 망하고. (지맥을 죽였구나) 응. 이 여기서 뭐 이게 용의 허린가 뭐 그렇대. 저쪽 아래 가는 데가 청룡뿌리거든. 청룡뿌리라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그런 전설이 마을에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 부자 동네였는데 사람들이 하도 오니까 이쪽으로 길을 내라) 그렇지. 내가 어릴 때, 얻으러 오니까 동산의 혈을 끊었어. 그러면 안 온다 그래가지고 동네가 망했는데. 그거이 사실이 그런 거 같아. 왜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삼포를 했거든 우리가. 삼포를 하면 밭을 갈잖아. 그러면 밭 가는데 기왓장이 수도 없이 나왔어. 그 저 옛날 쓰던 돌도끼도 나왔고 기왓장이고 주추 놨던 돌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걸 캐버리는 과정에서 기와가 나왔으니까 뭐 멀쩡한 밭에서 기와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 거기 그래도 사람이 살았드랬으니까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지."

한우 / 군하2리 노인회장[18]

이와 같이 마을에 전해 오는 지명 유래 전설에 비추어 보면 2리에 주민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이른 시기였으나 다만 마을의 몰락이 해당 전설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봉골로의 많은 이주가 이루어진 것은 6·25 전쟁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8 한우(39년생), 군하2리 노인회장 인터뷰 채록, 2016. 7. 11, 군하 2리 마을회관, 조사자 남찬원.

"이짝에 산이 있어서 여기는 봉골이고 그짝은 너머봉골이라 그랬어. 해방될 때에는 여기 집이 네 집 밖에는 없드랬어. 해방 직후에는 네 집 있고, 6·25 때 일루 모인 거이 오리정에서 폭격해 가지고 집들이 타고 그러니까 일로 모였지. 군하리에서도 나오고 오리정에서도 일로 오고. 그래도 뭐 그때 그렇게 왔어도 집은 몇 집 안됐어. 요 근래에 들어온 거지. (가구가 많이 늘었습니까?) 많이 안 늘었어. 그래 봤댔자 한 10여 가구 그 정도 밖에는 안 됐지. (다시 안 돌아가고 자리를 잡으셨어요?) 여기서 살고 팔고 나가고 그랬지. 지금 거의가 다 그전서부터 있는 집은, 6·25 전서부터 있던 집은 지금 우리하고 류지호네 하고 밖에는 없어. 6·25 전부터 사는 건 해방 전부터 사는 집은 두 집밖에 없어."

한우 / 군하2리 노인회장

전쟁 당시 폭격에 의해 군하리 읍내(군하1리)의 많은 가옥이 전소되면서 1리와 인근의 폭격 대상지에 거주하던 많은 주민이 봉골로 이주해 왔다는 것이다. 다만 일제 강점기 이전에도 소규모이긴 하였으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일본인 거주지이자 소유지였던 장소라는 것이다.

〈그림 106〉 일본식 연못 자리에 위치한 2리 마을회관

"여기 이 땅이 다 일본 사람 땅이었거든. 여기서부터 양계장 저 짝으로 일본 사람 땅이었는데, 그 때 당시 대곶면 사람인데 대곶면에서 부면장 하던 사람이 있었어. 왜정시대에 그 사람이 이걸 맡아 가지고 왔다고. 아는 사람이니까 일본놈이 도망가고 그 사람이 와서 이거를 접수를 했지. (여기 일본 사람들이 살았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살면서 내가 알기로는 묘목을 키웠다고. 조그맣을 때도 묘목 세어가지고 한 다발 얼마 얼마 사탕 사서 주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지. (지금으로 하면 아르바이트처럼 이렇게 그거 묶어주면 용돈 벌이) 그렇지 몇 개씩 다발로다가 묶어 가지고 그거이 봄이면 묘목을 캐잖아. 그거이 몇 갠지 숫자를 알아야 되니까. 애들도 숫자는 알잖아. 내가 7살 그 정도 됐을까."

한우 / 군하2리 노인회장

일제 강점기 시절 봉골에는 일본인이 거주했으며 묘목 사업을 했고 일본식 가옥이 존재하였으며 일본인 납골묘도 있었다고 한다. 일본인 지주가 일본식 가옥을 짓고 생활하였기 때문에 일본식 정원과 연못 등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해방 후 당시에도 주민이 많이 거주하지는 않았으며 전쟁 당시 인근 지역에서 일부가 이주하여 들어왔고 그 외의 주민은 70년대 이후 점차 봉골로 이주하여 현재 65세대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제보자(노인회장 한우)의 경우도 스스로를 과거에는 군하리 주민으로 인식했으나 행정구역이 분할되고 나서는 2리의 이장을 맡기도 하였다. 현재 봉골은 국도변에 위치한 관계로 상가와 공장이 상당수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곰배(3리)의 경우 군하리 인근에 있는 야산의 명칭이 '곰바위[熊巖]'였던 것과 관계가 있다. 곰바위가 있던 지역을 곰배라고 부르며 주민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 역시 봉골과 마찬가지로 이른 시기였다. 다른 성씨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군하리에 입향하여 정착한 문화 류씨의 경우 최초 입향은 현재 1리인 군하리로 입향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으며 입향 시기는 대략 5대(약 150년)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3리에 거주하고 있는 류지형 이장의 경우는 아버지 대부터 곰배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주 당시의 주민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군하 3리는 인근의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위치

〈그림 107〉 곰배 마을 입구 곰바위(도로 확장공사로 이전 모습은 사라진 상태)

〈그림 108〉 미륵당터(파노라마 사진)

해 있어 식당 등의 상업시설이 일부 입주해 있으며 군부대와 포 사격장의 존재로 부대와의 교류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전후 60~70년대 시기에는 청년들이 포 사격장으로 들어가 불발탄을 주워 고철로 파는 등의 일을 하다가 폭발 사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어렸을 때 짚궂었죠. 우리는 화약놀이를 했어요. 화약을 미군부대서 주워다가 땅 속에다 묻어 가지고 불 지르는 거야. 땅이 막 하늘로 솟구치는 거야. 그런 놀이를 했어요. 그렇게 짓궂은 데가 있어요. … 중략 … 부대 들어와서 폭탄 이런 걸 캐니까 사망 사고를 많이 당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중3 아니면 고3 때 죽는 거야. 왜냐면요, 수학여행 갈 때 가서 그걸 캐서 고물상에 팔아서 갖고 가는 거야. 수학여행비를. 그전엔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도 선배들이 한 세 명인가 네 명 돌아가셨지. 캐다가 터져서. 그전에는 불발탄이라 그러죠. 뇌관이 나중에 건드리면 터지는 거야. 그걸 캐 가는 거예요."

류지형 / 군하3리 이장[19]

곰배(3리) 역시 과거 군하리의 생활권역이었기 때문에 곰배, 미륵당, 병풍바위, 긴골, 무네미 고개 등의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여러 지명의 전설들이 남아 있다. 이중 곰배 앞을 지나는 길에 위치한 미륵당터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군하리를 관통하는 길(강화로)이 한양에서 강화도로 이어지는 주요 간선도로망이었고 곰배 앞의 지명 미륵당터는 이 길 주변이었기 때문에 여행자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미륵이 모셔졌을 가능성이 크다.[20] 제보에 따르면 실제로 미륵을 모셨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전해지며 당시 모셨던 돌미륵불은 미륵을 모시던 무당이 이주하며 어느 사이에 사라졌으나 류지형 이장의 제보로 사라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돌미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 돌미륵은 목 부분이 파손된 흔적이 있으나 누군가 다시 복구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미륵당터에 실제 건축물이 있었으며 그곳에 미륵이 있었다는 것은 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9〉 돌미륵

"여기 미륵당이 있었어요. 미륵당에서 내가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여기가 당시에 미륵을 모시고 있는 분이 이진용, 이진용 선생이라고. 소아마비 장애가 있으신 분이었었어요. 그 양반이 굉장히, 그 양반한테 회초리도 많이 맞았는데. 8살 때 월곶국민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일본말은 한문을 모르고는 일본말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한문을 먼저 더 공부를 하라고 1년 더 하고 갔거든. 요 미륵은 강화의 어느 절로 가져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들이 있어요.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 미륵 맞습니까?) 그건 자세히 기억 안나고, 미륵이 있었어. 구석에 한군데 모셔놨고. 왜그러냐면 그 미륵당을 돌을 파내지 않고 바위가 내려온대로 쌓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지었었거든. (미륵당이 건물이었군요?) 미륵당에 건물이 있었지. 초가집. 그리고 이진용 선생이 주무시는 데가 한 칸이 있고, 그담에 또 미륵당이 미륵만 모신데 거기 있었는데. 우리는 이진용 선생이 기거하는 방에서 공부를 했지. 포내리서 거기까지 걸어와가지고 한문을 일 년 동안 배웠으니까.

류지만 / 전 김포문화원 원장[21]

19 류지형(62세) 군하3리 이장 인터뷰 채록, 2016. 7. 11, 군하3리, 조사자 남찬원.

20 조선시대 주요간선도로망(제주로, 동래로, 의주로) 인근 지역에는 미륵당, 미륵당터, 미륵댕이 등의 미륵신앙과 관계된 지명이 다수 남아 있으며 실제 미륵 관련 설화와 사찰 등이 상당수 존재한다.

21 류지만(82세), 전 김포문화원 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인터뷰 채록, 2016. 8. 26, 월곶면사무소, 조사자 남찬원.

Ⅲ

군하리 마을의 생활과 놀이

1. 군하리 마을 의식주

1) 군하리 의생활 문화

전통시대를 벗어나 서구식의 옷차림이 일상화되어 버린 현재,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군하리의 의생활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다만 2016년 8월 25일 군하1리 마을회관에 모이신 김수복, 전덕분, 김형임, 이춘자, 정경애, 정경랑, 김재순, 김영혜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군하리 의생활 문화의 변천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한복의 착용

제보자들의 기억에 의하면 6·25 전쟁을 겪고 나서 한복을 입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특히 1982년에 이 마을로 이사 온 제보자의 기억에 의하면, 그 때는 바지저고리와 치마저고리를 입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1~2년 지나고 나니 한복을 입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점차 서구식의 옷차림이 일반화되었다. 현재는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 선택적으로 한복을 착용하는 것이 다이다.

직조와 옷 짓기

1950~60년대를 기준으로 군하리에서 길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화 사람들이 인

〈그림 110〉 한복이 아닌 일상복을 입고 있는 제보자들

조견을 많이 짜서 그 옷감을 사다가 옷을 지어 입기는 했다. 사리원이 고향인 제보자에 따르면 전쟁이 나기 전 강화 인조견 장사가 황해도 사리원까지 드나들었다고 한다.

한 제보자는 시집을 온 해에 시아버지 상을 치르게 되었는데, 당시 상복을 모두 지어서 입었다고 한다. 가족이 많았는데 마루에서 손재봉틀을 가지고 상복을 모두 지어서 입고 상을 치렀다고 하며, 1960년대에는 그렇게 다 만들어 입던 때라고 한다.

2) 군하리 식생활 문화

군하리의 식생활에 대한 내용은 2016년 7월 10일 군하1리 김수복·김옥자 제보자, 7월 11일 전수복 제보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었다. 전쟁 이후 기본적인 식생활 문화에 관한 것이며, 명절이나 의례에 관한 식생활은 관련 항목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궁핍했던 시절

예전에 농촌 사람들은 밀가루 풀떼기[1]를 쑤어서 먹고 살았다. 아무리 부자라도 그럴 때가 있었고, 풀떼기를 안 먹고 산 사람은 없었다. 6·25 전쟁 이후에는 미국에서 원조

1 보리나 밀, 콩, 수수 따위의 잡곡을 가루로 만들어 풀처럼 쑨 죽, 범벅보다는 묽고 죽보다는 되게 쑨 음식.

〈그림 111〉 군하리에는 농토나 텃밭을 가진 집들이 많다.

물품으로 지급된 밀가루가 아니면 생활이 불가능했다. 그 밀가루를 받아서 호박을 썰어 넣고 밀가루를 섞어서 죽처럼 쑨 호박 풀떼기를 주로 해 먹었고, 밀 수제비, 밀 칼국수 같은 음식을 일상적으로 해 먹어야 하는 시절이었다.

정말 어려웠을 때는 가축을 잡을 수도 없었지만,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서 마을에서 돼지도 잡고, 개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요즘은 누가 직접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지는 않고 다들 사다가 먹는다.

김치

군하리에서 주로 담가 먹는 김치는 배추김치와 순무김치이다. 특히 순무는 우리나라 최대의 생산지가 강화도이며 강화도와 이웃하고 있는 김포 군하리에서도 순무를 재배하기도 하고 순무김치를 담가 먹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순무김치는 납작하게 썰어 깍두기처럼 담가 먹는데, 순무김치 때문에 무로 담그는 깍두기는 좀처럼 담그지 않는다. 부드러운 식감과 쌉싸름하고 톡 쏘는 순무김치의 맛이 독특해서 깍두기를 담가도 잘 먹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동치미와 무 짠지를 담가 먹고, 여름에는 오이짠지를 해서 먹는다.

식재료 마련

군하리는 기본적으로 반농반상(半農半商)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마을에 오래 산 주민들은 대부분 텃밭을 가지고 있다. 집에서 관리하는 텃밭에 배추, 시금치, 상추, 쑥갓, 아욱, 파, 순무, 고추, 가지, 토마토 등 갖가지 채소를 심어 웬만한 식재료는 자급자족하고 그렇지 않는 채소와 생선, 고기 등만 구입하여 생활하는 가구가 많다.

3) 군하리 주생활 문화

군하리 주생활 일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하리는 조선시대 통진현 읍치가 있었던 유서 깊은 마을이다. 옛 월곶면사무소 앞뜰에 있는 17기의 통진현감, 부사 선정비와 고려시대부터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 통진향교를 비롯해 수령이 400년이 넘는 오래된 고목들을 봐도 이 마을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래된 마을답게 주생활 문화와 전통도 잘 남아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금까지 남아 있는 전통적인 주생활 문화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의 질곡의 역사와 함께 군하리가 갖는 지리적 특수성에서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전통문화가 많이 말살되었는데, 특히 교통의 요충지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군하리 역시 강화도와 인접해 있고, 김포를 지나 서울로 가는 입구 역할을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전통문화가 사라져버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단 이후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한국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본 까닭도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공습과 폭격이 잦았고 당시 많은 집들과 건물이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군하리 모습의 근간을 이룬 시기는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근대화를 거치며 오늘날의 기틀을 만들었고, 이후 현대화를 거쳐 오늘의 군하리가 있게 된 것이다. 주생활 문화 역시 한국전쟁 이후 새롭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몇몇 전쟁의 피해를 피해간 집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서 오래된 가옥은 새로운 주택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주생활을 다루기 전에 군하리 마을의 주택에 대해 대강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택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아주 오래된 옛집이다. 군하3리 곰배마을에서 긴골 끝자락에 2채 정도 남아 있는 전통목구조로 지어진 오래된 초가집이다. 마을 이장님에 따르면 지은 지 100년이 넘었을 것이라 하는데,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안타까운 점은 두 집 모두 손쓸 수 없이 허물어져 가고 있고, 거주하는 사람도 없어 정확한 조사는 할 수 없었다. 군하3리 이장님 증언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전에는 이 일대 집들이 대부분 초가집이었다고 한다. 6·25 이후 군하1리에서 피난 와서 정착한 집이 다수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 직후인 54년 이후에 지어진 집이다. 지금까지 서까래와 기둥 등 주요 구조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집들이 있는데, 생활문화의 변화와 시설의 노후에 따라 나름의 개보수를 하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집들이 있었다. 개보수의 방법으로 담과 주택의 내벽을 새로 쌓고, 지붕 재료를 양철지붕이나 플라스틱 기와 등으로 바꾸고, 부엌과 화장실을 입식으로 개조하는 한편 집의 전면이나 뒷면의 처마 밑을 내부공간으로 증축하여 필요한 공간(현관, 화장실, 보일러실, 다용도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1978년경 정부보조로 지어진 '경관주택'이다. 당시까지 시골에는 초가집 등이 많았는데, 새마을운동 및 농촌근대화사업 등과 함께 상호작용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어졌으며, 군하1리와 군하3리도 이러한 경관주택이 다수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지어진 집들인데, 여느 면소재지와 마찬가지로 군하1리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현대식 단독주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근린생활시설로 1층은 상업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2층이나 3층에 살림집이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집을 지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싸이클에 따라 집과 집의 구성원이 변해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지역 사람들의 주생활 문화도 조금은 엿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림 112〉 군하1리 46–10번지 단독주택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단독주택)

〈그림 113〉 군하1리 25–1번지 주변
(최근에 지어진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그림 114〉 군하1리 25–20번지 경관주택
(1978년경 지어진 현대식 경관주택)

〈그림 115〉 군하2리 52번지 전통가옥
('ㄷ'자형 전통가옥을 지붕과 벽체 개량)

〈그림 116〉 군하3리 곰바위로 38번지 초가집
('ㄱ'자 본채와 '一'자 부속채로 구성됨)

〈그림 117〉 38번지 초가집 대청마루 상부 가구
(평4량집으로 초가지붕집에서 많이 쓰는 구조)

유자숙 어르신 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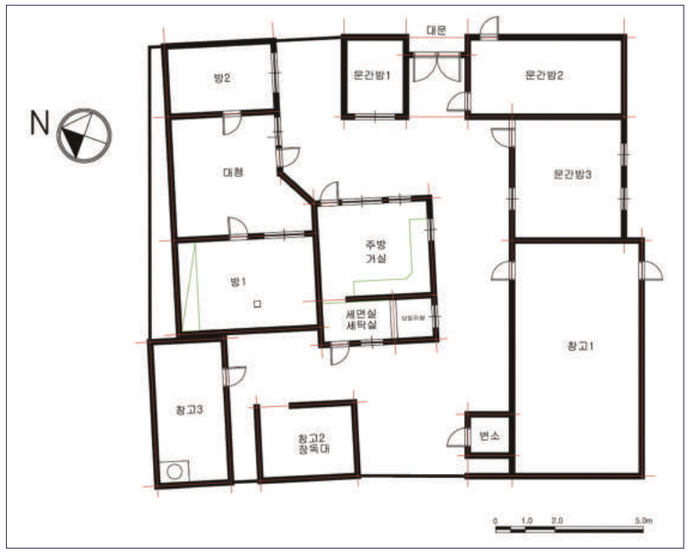
유자숙(72) 어르신 댁은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애기봉로 7번길 11번지인데, 군하리에서 가장 번화한 아랫말 사거리 안쪽 골목에 위치해 있다. 집의 배치는 전체적으로 전통가옥의 구성요소를 잘 갖추고 있는데,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대문간채가 마주보고 있는 튼 'ㅁ'자 집이다. 집 측면과 뒷마당으로 곳간과 창고를 지어 놓았다. 안채와 대문간채는 전통목조건축의 뼈대를 잘 유지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개보수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유자숙 어르신은 22세 되던 해인 1966년도에 강화 석모도에서 이곳으로 시집을 오셨다고 한다. 그때 남편인 (고)조완식 어르신 나이가 25세였다고 한다.[2] 이 집은 유자숙 어르신이 시집오기 전인 1953년(단기 4285년)에 지었는데, 한국전쟁 직후에 새로 지은 집인데 집 지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계셔서 이를 인터뷰하고 정리해 보았다.

"시집와서 들었는데, 이집은 6·25 전쟁 이후 새로 지은 집이라고 한다. 대들보에 상량문이 적혀 있다. 단기 4285년, 1953년 지었다. 시할아버지가 6·25 폭격 때 집이 다 무너지고 다시 지은 것이다. 이 집을 지은 목수가 있는데, 그냥 '전목수'라 불렀다. 이름이 '전수동'이다. 당시는 통진읍 군하리가 대부분 폭격으로 집이 다 무너진 상태였고, 곰배나 봉골에 피난 가서 살았다. 전쟁 직후에 전수동 씨가 집을 많이 지었다. 우리집 지을 당시에는 뒤뜰에 우물이 있었고, 그 뒷 마당쪽에 다른집이 있었다. 원래 우리 땅이어서 더 크게 집을 지을 수 있었

〈그림 118〉 유자숙 어르신 댁 전경

2 (고)조완식 어르신은 2001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림 119〉 유자숙 어르신 댁 배치평면도(약실측)

는데, 그 집을 옮기라고 하지 못해서 지금처럼 지은 것이다. 나중에 이사를 갔고 그 자리에 창고를 지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집은 1953년 유자숙 어르신 시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이후 무너진 집을 신축하게 되었고 동네에 있던 대목수 전수동씨에 의뢰를 해서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생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문하였다.

"원래 시아버님이 방앗간을 운영했었다. 현재 군하택시 사업장이 그 장소인데, 운영 당시 3명이 동업했었다고 한다. 87년, 88년까지 운영했는데, 당시에는 군하리에 정미소가 2곳이 있었다. 한곳은 현재 농협창고 자리에 있었고, 나머지 한곳이 우리가 운영하던 방앗간이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조카(조충식)가 운영했었는데, 몸이 편찮고, 일거리가 줄어서 그만 두게 되었다. 그리고 주변 동네(리)에도 정미소가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그만 두게 되었다. 농사도 지었는데 한섬지기가 우리가 경작하던 논이다."

어르신 댁 바로 옆 군하 사거리 모퉁이에 군하택시 사업장(군하로 250번지)이 있는데 많이 낡은 시멘트블럭조 건물이다. 예전에는 이곳이 방앗간이었다고 한다. 생업은 방앗간과 농사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집과 관련하여 잊지 못할 기억을 말씀해 주셨는데, 군하리가 북한과 비교적 연접해 있는 지리적 특수성과 함께 당시 장례문화와 인심을 엿볼 수 있는 일화이다.

"한번은 이런 적이 있었다. 60년대 중반 간첩이 출몰해서 김포에 왔다가 문산으로 도망간 일이 있었는데, (황용군 노인회장님이 당시 공군 휴가를 나온 시절이었다고 한다.) 온 동네에 비상이 걸렸다. 마침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날이 10월 초이틀날이었다. 간첩 출몰사건으로 우리 마을에 수많은 예비군들이 와 있었는데 군인들이 초상집인 우리집에 와서 밥을 먹었다. 집 앞 골목길까지 군인들이 꽉 차 있었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군인들 밥해주느라고 많이 고생했다."

집에 대한 조사는 인터뷰 조사와 함께 간이실측, 사진촬영을 병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집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골목길이 동쪽으로 접해 있는 대문간채를 들어서면 안채가 위치해 있다. 집의 대문간채는 동향하고 있지만, 안채는 꺾인 ' ㄱ'로 남향하고 있다. 대문 양쪽으로 문간방이 하나씩 위치해 있고, 문간방2와 연접하여 서쪽으로 문간방3과 창고가 연달아 자리 잡고 있다. 안채는 대문간채를 들어서면 좁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대문간채와 직교하여 남향해 배치되어 있다. 대청을 가운데 두고 방1(안방)과 방2(건넌방)가 있고, 방1에 연이어 주방 겸 거실이 위치해 있다. 안채 뒤쪽으로 창고2, 창고3, 변소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유자숙 어르신이 시집올 당시에는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부모님, 부부가 함께 살았다고 한다. 시조부모님은 바깥채 사랑채(문간방2)에서 거처하셨고, 시부모님은 안채 안방(방1)에서 거처하셨다고 한다. 부부는 건너방(방2)에 살았다고 한다. 자녀는 아들 둘에 딸 둘을 두셨는데, 큰 아들이 5학년 때 인천으로 유학을 가서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애들 밥해주러 인천에 나가 사셨다고 한다. 이때는 이미 시조부모님은 돌아가신 상태이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신 이후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서 부부는 안방을 사용하게 되었고, 자녀가 돌아오면 건넌방과 문간방을 사용했다고 한다. 원래 대문간채에 붙어 있는 문간방2는 소 외양간이었는데, 방으로 개조한 것이라 한다. 창고1은 농기계나 농사용구를 보관하던 창고였는데, 지금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창고2는 시멘트 블록으로 만들었는데, 창고 옥상은 현재 장독대로 사용하고 있다. 창고3은 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뒷마당에는 여러 가지 채소를 재배하고 있었다.

〈그림 120〉 대문간채 전경

〈그림 121〉 대문간채에 있는 제비집

〈그림 122〉 대문간채와 안채 사잇마당

〈그림 123〉 주방 겸 거실(재래식에서 입식으로 개조)

현재 주방 겸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원래 불을 때던 재래식 부엌이었는데 91년 입식부엌으로 개량하였고, 세면실(세탁실)과 보일러실을 뒤쪽으로 증축하였다. 부엌으로 원래는 나무간이 있었다고 한다.

대문간채는 가장 단순한 보칸 1칸, 3량가 건물이고, 홑처마에 납도리이다. 대문은 판재로 문얼굴을 둘렀고, 전체적인 꾸밈새가 세련되었다. 대문간 안에는 제비가 집을 틀었다. 안채의 구조는 대청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대들보와 종보, 서까래 등이 여전히 튼튼하게 버티고 있었는데, 나름 규모가 있는 5량가집의 전형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 대들보에는 상량문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납도리에 사각기둥을 썼으며, 도리방향 기둥간격은 2.1m로 7자 간격이며, 보칸은 3.7m로 12자가 조금 넘는다. 서까래와 대들보 등을

〈그림 124〉 대청마루(현재 거실로 사용)

〈그림 125〉 대청 상부 지붕가구(5량가)

〈그림 126〉 안채와 창고 사이 공간

〈그림 127〉 뒷마당 텃밭과 창고

보았을 때 30~40년대 도시한옥에 비해 부재 굵기가 얇지 않고, 나름의 격식을 잘 갖추어서 지은 집으로 판단된다. 창고는 모두 시멘트 블록조에 슬레이트 지붕을 올린 구조로 필요에 따라 증개축을 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증축은 안채나 대문간채의 뒤편과 측면, 전면 현관부에서 이루어졌는데 처마 아래 공간에 벽을 쌓아 공간을 확장하였다. 현재 외벽은 붉은 벽돌로 마감하여 예전 전통한옥이라는 느낌보다는 깔끔하고 정돈된 현대식 주택의 외관을 느끼게 한다.

전통건축에서 대청이 요즘의 거실 역할을 하는 데 반해 이 집에서는 부엌을 재래식에서 입식으로 개조하면서 현관(여닫이문)을 새로 달았는데, 이로 인해 대청이 아닌 거실 겸 주방에서 접객이나 휴식이 이루어진다. 자녀들이 출가하여 현재는 빈방이 많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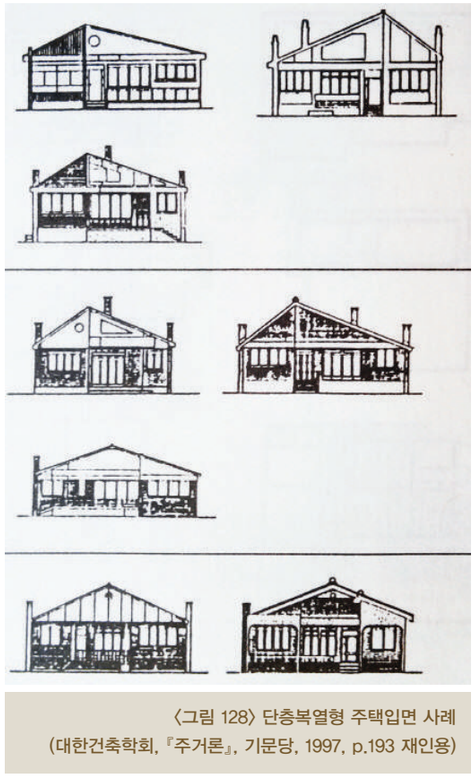
데, 명절 때 주로 이용하는 방이 되었다고 한다.

군하3리 곰배마을 류지형 이장님 댁

군하3리 류지형 이장님 댁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곰바위로 16-15번지에 위치해 있다. 집은 전면에 박공을 둔 주택으로 외부에서 보았을 때 박공지붕이 마치 불란서 지붕을 닮았다 하여 일명 '불란서 지붕집', '불란서 주택' 등으로 불린 집이다. 군하3리 곰배마을을 비롯해서 군하1리에도 비교적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불란서 지붕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70년대 농촌근대화과정을 거친 이후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세련되고, 현대화된 주택 보급을 추진했던 정부의 시책과 함께 농촌 지역이나 도시 근교 지역, 접경 지역 등 전국적으로 지어진 주택 유형이다. 당시 정부 보조사업으로 대단히 많은 양의 주택이 보급되었다. 이러한 경관주택은 정부에서 제작 배포한 '표준설계도면'이 있어, 주택건설업자들에 의해 대단위로 지어지면서 공정은 단순화되고, 공기가 짧아져 단기간에 보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관주택은 외관상 박공지붕이 있어 외관이 미려할 뿐만 아니라 실의 구성에 있어서도 기존 주택과는 매우 다른 구성을 보인다. 기존 농촌마을 주택에서는 초가집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거나 시멘트블록으로 벽을 보수하는데 그쳤으며, 평면에 있어서도 기존 '一'형 평면이나 'ㄱ'자형 평면에서 거실을 중심으로 각 실이 모이는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구성으로 변화하였다. 이렇게 건물의 형태와 평면구성을 갖는 주택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단층 복열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70년대 중반에 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서 우리나라 도시주택에서는 그 외형과 내용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시도되었던 형식이었다. 우선 평면형식을 분석해 보면, 난방을 위해서 보일러가 보편화되고 부엌이 재래식에서 현대식으로 바뀌었으며, 공간적으로도 마루가 거실로 바뀌고, 부엌이 주방 또는 주방식당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지하에는 보일러실이나 창고 등이 새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변소는 화장실로 명칭이 바뀌며 하나의 공간에서 세면과 목욕, 그리고 화장실 기능을 하도록 공간이 형성된다. 지하공간은 일조와 통풍을 고려하여 지면과 현관이 있는 거실면과는 차이를 두어 계단으로 오르게 하며, 거실 앞에 테라스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으로는 거실을 중심으로 각 부 공간을 배치하고 있어 그 지속성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집은 겹집 형태의 것으로 소위 '불란서 지붕'이라는 전면박공형식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다. 이와 같은 전면박공형에 대해서는 당시 '불란서 지붕'이라는 명칭이 붙기도 하며, 그 형태가 서구적인 것에 가까운 것을 과시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붕 형태는 그 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목재 간이 트러스형식으로 되어 있고 지붕 속은 특별한 용도 없이 빈 공간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형태는 당시 우리 사회의 근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서구적 모델을 그대로 모방하려는 데서 유행한 것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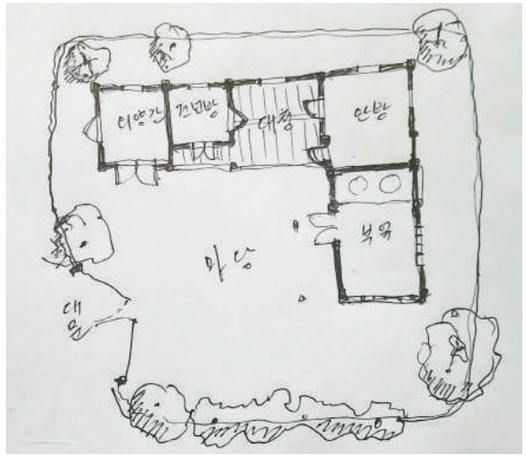
〈그림 128〉 단층복열형 주택입면 사례
(대한건축학회, 『주거론』, 기문당, 1997, p.193 재인용)

요약하면, 이러한 경관주택은 기존의 평범한 형태의 주택에서 벗어나 주택 전면으로 박공이 보이는 소위 '불란서 지붕'을 갖춘 서구적인 주택으로 80년대 유행한 주택 형식이다. 이러한 주택이 들어서면서 각 실과 공간이 현대생활에 맞게 변화하였는데, 대청마루가 거실로, 부엌이 주방으로, 변소에서 화장실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군하3리 류지형 이장님 댁 역시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집을 짓고 이사를 하게 된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지금의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이장님 식구가 살던 집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이전에는 지금의 집터 바로 밑 초가집에서 살았다고 한다. 방 2개, 부엌 1개, 대청 1개로 구성된 'ㄱ'형 평면이었다고 한다. 당시 초가집의 평면구성을 보면, 대문을 들어서면 집의 가장 왼쪽에 외양간이 있고, 그 옆에 건넌방 그리고 가운데

3 대한건축학회, 주거론, 기문당, 1997. 2, pp.193~194.



〈그림 129〉 이사 전(1979년) 살았던 초가집 평면도

대청마루, 안방이 연이어 있고, 안방에서 꺾어 부엌이 아래쪽에 달린 평면구성이었다고 한다. 당시 부모님과 3형제가 살았는데, 안방에 부모님이 거처하셨고, 건너방에 3형제가 살았다고 한다. 이 초가 집에서 살다가 78년, 79년 무렵 새마을운동 융자사업으로 집을 지었다고 한다. 곰배마을이 취락개선마을로 지정되면서 집을 지었는데, 퇴비증산마을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곰배마을에 슬라브 집 2채, 블란서 집 7집, 총 9집이 그때 지은 집이라고 한다. 이 집들은 이 마을 목수들이 직접 지었는데, 설계도면이 나와 있어서 집 짓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이장님이 고등학교 3학년 되던 해인 79년 3월 30일에 입주를 했다고 한다. 당시 총 공사비는 1,500만 원 내외가 들었는데, 이중 40~50%를 정부에서 지원해줬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었다고 한다. 당시로는 파격적인 지원을 받은 셈이다.

이장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이러한 유형의 집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이 지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 "불란서 집을 지을 당시 18평, 20평, 22평, 24평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집은 18평으로 지었다. 불란서 집은 군하1리와 고막리 사이 서경빌라 인근에 12집 내외가 지어졌다. 1980년도에 건립한 것이다. 이런 집은 군하3리, 포내리, 고막리, 용강리, 봉골(군하2리), 갈산3리에도 있고, 특히 개곡2리에 아주 많다. 79~80년 사이에 취락개선사업으로 지은 것들이다."

새로 지은 집은 처음에는 방 3개와 거실 1개, 부엌 1개였다. 안방(방1)에 부모님이 거처하시고, 방2는 본인이, 방3은 동생들이 사용했으며, 형제가 교대로 군대를 다녀와서 거의 한 사람이 방 하나를 혼자서 썼다고 한다. 류지형 이장님은 1996년에 결혼하셨는데, 그때는 동생들이 이미 외지로 나간 이후였다고 한다. 당시 안방에 여전히 부모님이 사셨고, 부부가 건넛방(방2)을 사용했으며, 작은 방은 비어 있다가 자녀 둘이 태어나면서 사용했다고 한다.

집을 신축했을 당시에는 장작을 때서 난방을 했다고 한다. 부엌 아궁이에서 불을 피웠고, 신발을 신고 다니는 부엌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입식 주방으로 모두 바꾸었다. 일반적으로 장작을 때다가 연탄보일러로 교체한 후 마지막으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이장님 댁은 장작을 한참 때다가 2000년도에 부엌을 입식으로 바꾸면서 기름보일러를 설치했다고 한다.

〈그림 130〉 군하3리 이장님 댁 전경

〈그림 131〉 2005년 증축한 부분 전경

〈그림 132〉 거실(이장님 모친)

〈그림 133〉 주방(개보수 전 장작을 피웠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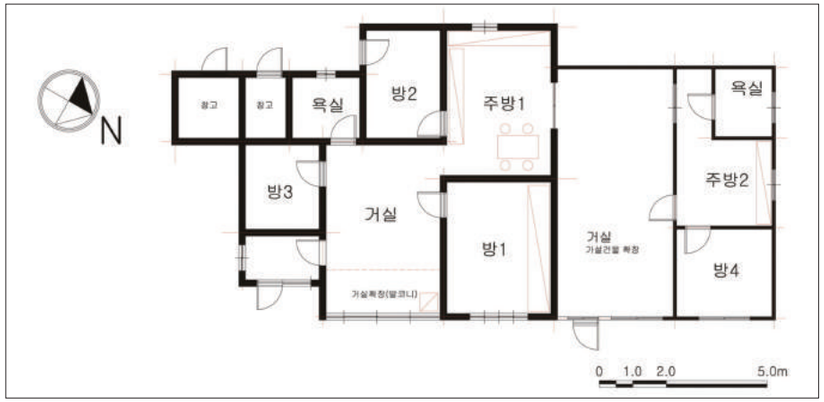
〈그림 134〉 안방(방1)

〈그림 135〉 아들방(방2)

〈그림 136〉 증축한 부분 거실

〈그림 137〉 곰바위로 30번지 주택(불란서 집)

집은 전체적으로 2000년도에 한번 증축하였고(현관 및 베란다), 창고 위에 지붕을 씌워 방으로 개조한 것은 2005년도이다. 2005년 증축은 집의 측면에 조립식 패널을 이용해서 건식공법으로 시공했다고 한다. 안방과 주방을 붙여서 거실을 만들고, 다시 그 옆으로 방4와 별도의 주방, 욕실을 만들었는데, 어머님을 위해 이장님이 손수 시공했다고 한다. 혼자서 집을 지으면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비교적 깔끔하게 잘 지어져서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주택을 제외하고 이장님 댁 주변으로 하우스 10동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고, 건조기 4대와 자재창고, 조그마한 닭장이 마당 한쪽에 있다.



〈그림 138〉 이장님 댁 평면도

2. 군하리 마을 민간신앙

1) 군하리 마을신앙

군하리의 마을신앙에 대한 내용은 2016년 7월 10일 군하1리 김수복·김옥자 제보자, 7월 10일 군하1리 류경수 이장님, 7월 12일 군하2리 한우 제보자와의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다른 면담 현장에서도 마을굿이나 마을제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졌으나, 특별한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군하1리에는 6·25 전쟁 직후 월곶제일교회가 세워지고, 특히 전도부인으로 알려진 최진심(1885~1968) 전도사의 열정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일찍이 군하리에 폭넓은 기독신앙을 전파하였고 현재도 월곶제일교회는 군하리에 유일무이한 교회로 자리잡고 있다. (월곶제일교회에 관한 내용은 Ⅲ장 2절의 8, 월곶제일교회와 기독교 신앙 항목 참조) 이러한 군하리의 특이한 교회의 역사와 활동으로 군하리에서 민간신앙의 소멸 속도와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을신앙은 마을에 당집을 차려놓거나 바위·나무 등의 신앙물을 마을신으로 여기고 매년 봄이나 가을에 날을 정해놓고 마을의 안녕을 위해 의례를 지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의례는 무속의례일 수도 있고 유교적 제례일 수도 있으며, 복합적인 양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김포시의 마을신앙으로 보고된 내용은 지금까지 통진면 도사리 미륵제와 고촌읍 신곡리 영사정 당제,[4] 고촌읍 향산리 당산제와 통진면 동을산1리 상야마을 산신제[5]가 있다. 도사리의 미륵제는 미륵을 모신 당에 해마다 정월 초나 칠월 칠석 같은 기일에 주로 마을 부녀자들이 모여 소원을 빌고 정성을 빌었다고 한다. 신곡리 영사정 당제는 도당할머니와 도당할아버지로 모시는 엄나무 두 그루와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암장승과 숫장승을 대상으로 하며 제주와 제관을 선정하여 당주집에서 고사 형태로 진행된다. 향산리 당산제는 당집과 비석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음력 11월 3일을 제일로 삼으며 제관과 축관 등을 선출하여 유교식 제사를 지낸다. 동을산1리 상야마을 산신제는 마을 뒤쪽의 야산에 있는 갈참나무를 신목으로 삼고 정월 초에 택일을 하며 제관과 축관 등을 선출하여 유교식으로 고사를 지낸다. 월곶면 군하리에는 현재 행해지는 마을제나 마을굿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전에 마을굿이나 마을제를 했던 것에 대해 기억하는 제보자도 거의 없었다. 제보자들의 기억 속에 파편적으로 남아 있는 마을신앙의 흔적을 더듬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0년대에 군하1리에서는 별도로 마을제나 마을굿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는 시기가 있었다. 면장과 부녀회장이 합의를 이뤄 마을굿을 하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집집이 쌀을 추렴하고, 월곶에서 굿 잘하는 무당을 불러 경기도 식으로 마을굿을 했다. 그런데 굿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일종의 동티가 나서 사람들을 환기시킨 사례가 있었다. 추렴을 하지 않은 집은 나중에 사고가 나거나 싸움이 났고, 장사를 해야 한다고 개를 잡은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굿을 하고 나서 마을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이 후에 마을 전체가 준비하고 진행하는 제의나 굿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하2리 안에 있는 동산에는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내력은 정확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시루떡을 해 놓고 빌었다고 한다. 군하2리는 6·25 전에는 마을에 서너 가구만 살다가 6·25 이후에 전입인구가 늘었지만 한 동안은 10여 가구가 생활을 하여 마을제의가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마을제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나무가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신앙의 대상도 마을에 공장이 들어오면서 동산 자체가 없어지고 아예 사라지게 되었다.

2) 군하리 가정신앙

가정신앙은 집안 곳곳에 신이 있다고 여기고 신체(神體)를 모셔 정성을 들이거나, 집안의 안녕과 무탈을 기원하기 위해 주로 여인들이 행하는 개별적인 신앙행위로 이루어진다. 군하리의 가정신앙은 2016년 7월 10일 군하1리 김수복·김옥자 제보자, 7월 11일 군하1리 전순복 제보자, 7월 12일 군하2리 한우 제보자, 8월 25일 군하3리 어르신들과의 면담에서 수집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예전에는 아래와 같은 가정신앙행위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지만, 요즘엔 '옛날엔 그렇게 했어'라는 제보자들의 진술처럼 과거의 전통으로만 남아있다.

안택고사(安宅告祀)

고사는 집안의 성주·터주·제석·삼신·조왕 등의 가신(家神)에게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로 지역에 따라 안택·안택고사·기도·기도제·도신제·시루고사·사주(祀主)대접이라고도 한다.[6]

군하리에는 예전에 제석단지, 성주항아리, 터줏가리 등을 집안에 모시고 있는 가정들이 꽤 많았다. 가을에 햇곡식을 추수하게 되면 각 신체에 쌀을 바꾸어 넣고 간단하게 고

4 경기도박물관, 『경기민속지: 신앙편』, 1999, pp.149~153.

5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 2002, pp.77~86.

6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 2011, '고사' 항목 중

사를 지내는 것이다. 술을 준비하고 시루떡을 해서 바치면서 정성을 들이고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한다. 고사를 지내는 것은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햇곡식을 바치고 정성을 들이는 것에서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러한 안택고사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가옥을 수리하고 미신타파 의식이 확산되어 성주·터주·제석·삼신·조왕 등의 신체가 없어지면서 더불어 사라지게 되었다.

마마떡

마마는 두창(痘瘡)으로 천연두·손님·마마 등 많은 병명으로 불리며, 오한·발열두통·요통 등과 같은 전신증상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피부 및 점막에 수포(水疱)·농포(膿疱)·가피(痂皮)의 순서로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발진(發疹)이 나타나는 급성 전염병이다.[7] 마마에 걸리면 고름이 맺힌 것이 떨어지면서 딱지가 생기고 그 딱지가 떨어지면서 피부가 얽어서 곰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군하리에는 예전에 아이들이 마마에 걸리면 마마를 곱게 나라고 아이들에게 마마떡을 해서 먹이는 가정들이 있었다. 마마떡은 마마꽃이 잘 솟으라고 해 먹이는 떡으로 쌀가루에 소금간을 하지 않고 삶은 붉은 팥을 섞어 찐 떡인데, 군하리 제보자들은 백설기로 기억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마마에 걸려서 죽는 아이들도 많았는데, 관을 짜거나 하지 않고 그냥 가마니에 말아서 산에 가서 작은 무덤을 만들어 묻었다고 한다. 아이들의 무덤을 보통 애총(兒塚) 또는 애장(兒葬)터라고 하는데, 죽은 아이는 염도 하지 않고 관도 쓰지 않으며 묻은 다음에 다시 가보지 않는다고 한다. 애총은 흙으로 덮지 않고 돌을 쌓아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들짐승들이 쉽게 묘에 달려들지 못 하게 하는 것과 죽은 아이의 영혼이 밖으로 빠져 나와 남을 해코지 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상문살 물리치기

상갓집에 갔다가 액운이 들어 먹은 음식이 탈이 나거나 이유없이 아프기도 하는 것을 상문살 들었다고 한다. 그러한 상문살이 들면 상문살을 물리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다.

예전에 군하리에서는 질그릇이나 자배기 깨진 것을 집어던져서 깜짝 놀라게 하고, '상문이요, 상문이요' 하고 소리를 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톱·발톱을 자르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 밥을 해서 바가지에 담고 색색의 깃발을 꽂아서 내다 버리기도 하고, 밥을 해서 바가지에 담고 부엌칼을 들고 칼끝이 바깥으로 나가도록 계속 던지는 방법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주로 집안의 주부가 행하지만, 어느 때 무당이 하는 것을 보고 주부들이 따라 하는 경우도 있고, 주부가 여러 방법을 시도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으면 무당을 불러 상문살을 물리치기도 했다고 한다.

3. 군하리 마을 풍속과 의례

1) 군하리 풍속

군하리 풍속에 대해서는 설, 대보름, 추석 등 명절을 중심으로 한 세시풍속을 조사 정리하였다. 2016년 7월 10일 군하1리 류경수 이장님, 7월 16일 군하1리 김수복·김옥자 제보자, 8월 25일 군하1리 마을회관에서 김수복·전덕분·김형임·이춘자·정경애·정경랑·김재순·김영혜 제보자, 9월 2일 군하2리 한우 제보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미 전통적인 풍속과 현재 풍속이 많이 달라지고 약화되어 있어 다양한 내용이 조사되지 않았지만, 면담을 통해 수집한 군하리의 설, 정월대보름, 2월 초하루, 단오, 복, 추석, 동지, 섣달그믐의 풍속과 음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

군하리에서 설에는 일반적으로 떡국을 끓이고 만두를 빚어 먹는다. 만두는 전통적으로 한반도 북부인 개성 이북에서 즐겨먹는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김포 지역에서도 겨울이 되면 그리고 설을 맞으면서 만두를 빚는 집들이 꽤 많다. 특히 전쟁 때 피난 내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웹페이지(http://encykorea.aks.ac.kr), '두창(痘瘡)' 항목 중.

〈그림 139〉 예전의 풍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군하1리 할머니들

려온 실향민들은 설에 만두를 빚고 만둣국을 끓여먹는 것이 설 풍속 중 빠지지 않는 중요한 일이다. 그중에서도 애호박을 채 썰어서 만드는 호박만두는 별미 중의 별미라고 한다.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떡을 하고 만두를 빚고 그 외에 녹두빈대떡, 인절미, 삼색 나물 등을 한다. 이북 실향민들의 영향을 받아 김치·돼지고기 등을 꿰어서 부침개를 부치는 행적(김치적), 차조를 익반죽한 뒤 엿기름을 넣고 삭힌 다음 조금씩 떼어 기름에 지져 낸 떡인 차조노치 등을 준비하는 집들도 상당수이다. 제보자들은 젊은 시절, 설이 되면 쌀을 튀겨서 물엿에 버무려 손으로 꼭꼭 쥐어서 강정을 만들고, 큰 솥에 설설 엿을 고던 추억을 되살리기도 했다. 손으로 쥐어 만들던 강정은 요즘에는 틀에 부어 납작하게 민 다음 꺼내서 칼로 썰어 만드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만들어진 강정을 사다 먹는다.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 아홉가지 나물을 해서 밥을 아홉 번 먹고 나무 짐도 아홉 번 해야 한다고[8] 어른들이 그랬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다. 한 제보자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손 다리미에 콩을 담아서 달집 태우는 불에 볶아 먹으면 좋다'는 소리도 들었다고 한다.

8 정월 열나흗날과 대보름에는 모든 행동을 아홉 차례씩 한다는 관습이 많다. 나무 아홉 짐, 새끼 아홉 발을 꼬면 큰 부자가 된다고 한다. 부인은 빨래 아홉 가지, 학생은 글 아홉 번, 글씨 아홉 줄을 쓰라는 것은 모두 부지런하라는 뜻이다.(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2006, '대보름' 항목 중).

오곡밥을 해서 떠 놓았다가 강에 가서 무슨 말을 주워섬기면서 던져다 버리는 사람도 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잡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즉 잡귀를 강에 떠내려 보내는 의미라고 한다. 다른 제보자는 어렸을 때 정월대보름에 용의 밥을 준다고 마을 우물 네 귀퉁이에다가 밥을 떠 놓기도 했으며[9], 그 해에 운수가 나쁘다는 사람은 짚으로 허재비를 만들어서 자신의 동정을 뜯어 달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서 길에다 버리고 오면 액맥이를 해서 운수가 괜찮아진다고 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다.[10] 대보름날 아침에 소에게 오곡밥과 나물을 가져다 주고 무엇부터 먹는지를 보며 풍흉을 점쳤다고 하는데, 소가 밥부터 먹으면 풍년이 든다고[11] 한다.

〈그림 140〉 2006년 군하리 대보름행사(출처 『미래신문』)

예전에 통진 옹정리 사람들이 대보름쯤에 군하리에 들어와 걸립을 하기도 했다. 그

9 이 풍습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만하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는 "깨끗한 종이에 흰 밥을 싸서 물에 던지는 것을 어부슴[魚鳧施]이라 한다."고 했다. 글자 뜻으로는 물고기나 오리에게 베푼다는 것인데, 대보름에 액막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위의 책, '대보름' 항목 중.]

10 이 풍습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만하다. [대보름에는 … 이 밖에도 개인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풍속이 행해졌다. 즉 액을 막아내기 위한 액막이의 형태가 그것이다. '제웅치기'의 풍속은 액막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이를 따라 그 운명을 맡는 9종의 별이 각기 9년 만에 드는데 남자는 10세, 여자는 11세부터 흉한 제웅직성이 먼저 든다. 이 해에는 화나 병이 생길 수 있어 그 액풀이로 '제웅치기'를 한다. 짚 인형을 만들어 속에 돈이나 쌀을 넣고 그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적는다. 이 제웅을 대보름 전날 초저녁에 길에 버리면 주워가는 사람에게 액이 옮아간다는 것이다. 제웅을 한자로 '처용(處容)'이라고 적고 있다. 위의 책, '대보름' 항목 중]

11 이 풍습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만하다. [오곡밥도 쇠죽에 섞어서 주고 소가 쌀을 먼저 먹으면 쌀 풍년, 콩을 먼저 먹으면 목화 풍년 등으로 점을 친다. 위의 책, '대보름' 항목 중.]

옹정리 사람들은 김포군에서 최고로 치는 풍물잽이들로 알려져 있었으며, 걸립을 요청한 집을 중심으로 방문을 한다. 각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면사무소, 지서, 방앗간 같은 곳을 먼저 들렀다고 하는데, 마을에서 주요한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 곳에 가야 쌀이나 돈이 넉넉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마을에 들어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풍물을 쳐주고 축원을 해주었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는 상에 쌀도 놓고 돈도 놓고 풍물패는 한바탕 놀아주고 다음 집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마을에서 걷은 쌀이나 돈은 옹정리 사람들이 가져갔다고 하며, 당시 김포군에서 최고로 명성이 자자하던 그 풍물패는 지금 김포통진두레놀이가 되었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정월대보름에 윷놀이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다. 해방되고 나서는 민족청년단이라는 단체가 주관을 해서 대보름에 척사대회를 하면 상품으로 송아지도 주고, 청동화로도 주었었다고 할 만큼 대보름 윷놀이는 크고 중요한 풍속 중 하나였으며 현재도 그러하다.

6·25 전쟁이 끝나고 한동안은 정초에서 정월대보름 사이에 지신밟기를 했다. 지신밟기는 땅의 기를 눌러준다고 해서 고깔을 쓰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풍물을 치며 놀아주는 것인데, 상쇠가 꽹과리를 치면서 덕담도 했다. 그렇게 하면 각 집에서는 시루에 쌀도 갖다 놓고 북어에 실타래를 감아서 놓았다.

현재 군하리에서는 마을 내 큰 주차장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장소가 넓고 좋아서 달집 세우는 것도 무리가 없고 사람도 많이 모인다. 정월대보름 행사 중 가장 큰 풍속은 달집태우기이다. 대나무와 나무를 엮어 세워서 달집을 만드는데, 달집을 태울 때 대나무 마디가 타면서 튀는 '탁탁탁' 소리가 좋아야 풍년이 들고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며, 그 옆에서 쥐불놀이를 하기도 한다.

정월대보름 행사에는 김포시 월곶면 주민 풍물패인 '노나메기'가 와서 풍물을 치고, 군하리 부녀회에서 음식을 준비한다. 돼지고기 수육, 두부, 김치 등을 준비해서 모인 주민들과 풍물패가 나누어 먹고 달집을 태우며 소원도 빌고, 풍물을 치며 한바탕 논다.

2월 초하루, 단오, 복, 추석

이월 초하룻날은 송편을 빚어 나이 떡[12]이라고 해서 자기 나이 수대로 먹었다. 예전에는 이월 초하루도 명절이라고 했으나, 요즘에는 명절 취급도 받지 못할뿐더러 나이 떡을 해 먹는 사람도 드물다.

전쟁 때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단오 때 그네도 뛰고 씨름도 하면서 단오를 명절로 즐겼는데, 김포에서는 특별히 단오 풍속은 없다고 한다. 군하리 역시 특별한 단오 풍속은 전해지지 않고, 단오에 집에서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다는 제보자는 있었다.

뜨거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기 위한 삼복(三伏)에는 가정마다 개인별로 즐겨먹는 음식이 다르다. 개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고, 삼계탕을 먹는 사람도 있고, 닭을 잡아서 냉국에 말아 넣은 국수 위로 닭고기를 올린 초계탕을 먹기도 하고, 뜨거운 호박부침개를 부쳐 먹기도 한다. 복날에 몸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섭취하여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모습이다.

추석 때는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준비하는 등 차례를 지내고 모인 식구들끼리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 외에 특별한 풍속은 없다. 각 가정의 기호와 형편에 따라 토란국을 끓이기도 하고 소고기국을 끓이기도 한다.

동지, 섣달그믐

일 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는, 동지가 지나면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므로 태양의 부활로 여기며, 작은 설이라고도 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이다.

군하리에서는 동지 때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붉은 동지팥죽을 쑤어 먹는다. 팥죽 안에 찹쌀로 빚은 새알심도 넣는다. 솔잎으로 붉은 팥죽을 집안 구석구석 뿌려 나쁜 기

12 나이떡날은 음력 이월 초하루를 달리 부르는 말. 일 년 내내 건강하고 좋은 일만 생기라는 뜻에서 송편을 빚어 노비(머슴)나 어린이들에게 나이 수대로 먹게 한 날이다. 나이떡을 나이송편, 노비송편, 머슴송편, 솔떡, 세병(歲餠), 수복병(壽福餠), 송병, 송엽병으로 부르기도 한다.(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2006, '나이떡날' 항목 중).

운을 쫓아내는 일종의 축귀적 의례를 행하기도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섣달그믐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간이다. 군하리 주민들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섣달그믐에 만두를 빚거나 하면서 '오늘 밤 잠을 자면 눈썹 하얗게 샌다'[13]고 말했다. 그러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 해 아이들이 잠이 들면, 눈썹에 밀가루를 바르고는 '밤새 나이를 먹어서 눈썹이 하얗게 샜다'고 놀렸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풍경도 없다.

섣달그믐날 밤에 어른들이 자기 신발을 감추라고 했는데, 그것은 신발귀신이 와서 신발을 신어보고 맞는 신발이 있으면 훔쳐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2) 군하리 일생의례

사람의 일생의례를 일반적으로 관혼상제(冠婚喪祭)로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출생의례와 수연례(壽宴禮)를 빼놓을 수 없다. 출생과 관혼상제, 수연에 대한 의례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예전 의례의 내용이 행해지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 군하리 역시 실정은 같아 일생의례에 관한 내용을 충실하게 조사할 수 없었다. 사람의 일생의례에 관해 풍부한 내용은 아니지만 군하리 주민들에게 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정리한다. 일생의례에 관한 이야기는 2016년 7월 12일 군하2리 한우 제보자, 8월 25일 군하1리 김수복 · 전덕분 · 김형임 · 이춘자 · 정경애 · 정경랑 · 김재순 · 김영혜 제보자를 통해 수집하였다.

13 민간에 전하기로는 이날 잠을 자면 영원히 자는 것과 같은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밤을 샌다고 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과 그 전 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날 잠을 자면 계속 연결하여 새날을 맞이할 수 없다는 관념에서 수세(守歲)의 풍속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2006, '섣달그믐' 항목 중).

출생의례

출생의례는 특별한 것이 없다.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 밥과 미역국을 끓여 놓고 삼신할머니에게 고맙다고 치성을 드렸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동생을 낳을 때 빨리 낳지 못하고 난산(難産)을 겪었는데, 그 때 할머니가 툇마루에 서서 수 놓은 주머니를 흔들면서 아이 잘 낳게 해달라고 비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아들을 낳으면 새끼줄에 고추와 숯을 끼워 대문 위에 달아 놓고, 딸을 낳으면 새끼줄에 솔잎과 숯을 끼워 달아놓는다. 요즘은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을 하여 이러한 출산의례를 행하지 않게 되었다.

관례, 혼례

관례는 갓(冠)을 써서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는 일종의 성인식이다. 우리나라의 관례는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있었지만, 고려 말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유입으로 사대부 계층에 정착한 것이 전래되고 있다. 관례는 일반적으로 사대부를 비롯한 양반집에서 행해졌고, 평민들 사이에서는 간소하게 행하기도 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두발이 짧아지면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던 관례는 점차 사라졌다.

제보자들 중에 군하리에서 관례를 행하거나 본 적이 있는 분은 없었다. 해방 이후는 물론이고 제보자들이 아주 어렸을 때인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관례는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예전에 농촌에서 어엿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들돌들기'와 같은 민간 성년의례에 관해서도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

예전에 군하리에서 혼례가 있을 때는 전통적으로 신랑은 사모관대를 갖추고 신부는 활옷과 같은 한복을 입고 족두리를 썼다. 폐백 수건에 이성지합(二姓之合) · 만복지원(萬福之源)과 같은 글귀를 쓰고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다. 요즘은 결혼식장에서 혼례를 치르므로 군하리에서도 전통적인 혼례의 모습은 볼 수 없고, 결혼식장에서 폐백의 모습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수연(壽宴)

장수를 축하하는 잔치인 수연은 보통 회갑(만 60세), 칠순(70세), 희수(77세), 팔순(80세), 구순(90세), 백수(99세) 때 벌인다.

예전에는 회갑잔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가족과 친지 뿐 아니라 이웃들도 함께 모여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의 잔치를 벌였다. 잔치를 축하해 주러 가는 사람들은 부조(扶助)를 돈으로 하기도 했지만, 감주를 담가 가거나 떡을 해서 가지고 가기도 했다. 잔치 음식을 차리고, 아들·딸, 손자·손녀들의 절을 받고 가족·이웃과 음식을 나눈다. 형편이 된다면 기생들을 불러 노래를 부르고, 밴드를 불러 반주와 연주를 하게도 했다.

〈그림 141〉 회갑상을 받고 있는 제보자의 아버지
(가운데 두루마기 입은 분)

〈그림 142〉 회갑연에서 접대와 여흥을 맡은 기생들

한 제보자는 예전에 아버지의 회갑 잔치를 크게 했었다며 기억을 되살렸다. 1974년 5월, 집 마당에서 벌인 회갑 잔치에는 천막을 쳐서 회갑상을 차렸고, 친지와 이웃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제보자의 아버님이 한량 기질이 있어 노는 것을 좋아하셔서 기생 7~8명을 불렀으며, 한복을 입은 기생들이 음식 접대를 하고 춤을 추고 노래도 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어려웠던 시절이라 아무나 잔치를 못 했는데, 아버님 회갑 잔치를 크게 해서 덕분에 마을잔치를 제대로 한 셈이 되었었다고 한다.

수명이 길어지고 노령 인구가 많아진 요즘에는 회갑도 청춘이어서 잔치를 벌이기보다는 가족 혹은 가까운 친지들과 식사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고, 칠순도 예전에 비해 약소하게 치르게 되었다. 군하리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이며, 수명이 길어지면서 회갑이나 칠순에 장수를 축하하는 것이 어색해진 것 외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조(扶助)를 해야 하는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례

예전에 군하리에서 사람이 죽으면 집에서 초상을 치렀다. 집에서 3일장 혹은 5일장을 하고 마을 상여를 사용해 장지로 향했다.

초상이 난 집에서는 마당에 차일을 치고 조문객을 맞고 여느 지역처럼 상례를 치른다. 군하리에는 7~8년 전까지만 해도 상포계(喪布契)가 있어서 상사(喪事)를 부조했다. 상포계에서는 집집마다 쌀이나 돈을 거두어 상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서로 일을 거들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장례식장이 생기고 대부분의 상사를 장례식장에서 치르게 되자, 마을에서 상포계를 해체하게 되었다.

마을 상여곳이 있었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여가 있어서 장지로 쓸 선산이나 공동묘지까지 마을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갔다. 군하2리의 경우에는 가까운 갈산1리와 상여를 같이 썼는데, 여섯 사람이 상여를 메고, 상여소리도 했다. 잘 사는 집에서 상여를 썼고, 가난한 집의 경우에는 가마니에 막대기를 꽂아 시신을 옮겼다고 한다. 다른 지역에서처럼 꽃상여를 만들어 쓰고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조립식 상여를 때가 되면 조립해서 꺼내 썼다고 한다.

장례식장이 지역마다 세워지고, 매장보다는 화장이나 수목장 등으로 상례문화가 바뀌면서 예전의 상례문화는 많이 축소되고 변화하였다.

제례

제사는 조상숭배 의례로 조선시대의 규범서인 『가례(家禮)』에는 사시제(四時祭)·초조제(初祖祭)·선조제(先祖祭)·네제(禰祭)·기일제(忌日祭)·묘제(墓祭)의 여섯 가지 제례가 제시되어 있으며,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는, 기제는 2대에 한하여 지내고, 차례는 설과 추석에, 묘제는 한식·추석·중구 또는 적당한 날을 잡아 행례하게 하였다. 그러나 관행적으로는 4대친에 대한 기제와 아울러, 설과 추석(또는 중구) 등의 차사와 성묘가 중요한 제사라는 인식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시제는 한식 또는 10월에 5대

이상 조상의 묘소에 묘제를 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14]

일종의 규범서에서 권하고 있는 제사의 종류와 시기가 있지만, 집집마다 몇 대조까지 기제를 모시는지, 묘소를 언제 지내는지에 관한 것은 제각각이다. 일반적인 제사 음식 진설 방식이라고 알려진 홍동백서·조율이시·생동숙서·어동육서·좌포우혜 등은 진설 방식 뿐 아니라 사실 대추·밤·배·감 등의 붉고 흰 과일, 김치 등 날 것과 익힌 나물, 어류와 육류, 포와 식혜 등 제사 음식의 종류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전부터 내려온 말 중에 '남의 집 제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예전부터 제사 방법은 가가례(家家禮)라고 하여 좀처럼 간섭하지 않았다. 요즘에 와서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예전보다 더 자유로워지는 추세이다.

제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군하리는 제사 때 밥, 탕, 과일, 산적, 북어포 외에 강정과 빈대떡 같은 음식을 마련한다고 한다. 다른 지역에 살다 시집 온 제보자들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김포 지역이 제사 음식을 간소하게 차리는 편이라고 한다. 한 제보자의 시어머니는 제사 음식이 간소한 것을 두고 '여기는 산적, 북어포하고 강정만 있으면 제사를 모신다. 너희 동네처럼 그렇게 잘 차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한다. 제보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은 제사는 지역마다 집집마다 다 각각이라는 것이었다.

4. 군하리 마을 일과 놀이

1) 군하리 생업

군하리는 반농반상(半農半商)의 마을이지만, 토박이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다. 군하리에서 배를 타고 어업을 하는 주민은 없었다고 한다. 이 항에서는 농업이 기계화되기 전의 군하리 농업생활을 주로 서술할 것이며, 김포에서 한 시절 성행했던 인삼농사(삼포), 그 밖에 생활에 필수적인 시장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게 될 것이다.

1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일생의례사전』, 2014, '제례' 항목 중.

농업

군하리의 농업에 관해서는 2016년 7월 10일 군하1리 김수복·김옥자 제보자, 7월 11일 군하1리 전순복 제보자, 7월 11일 군하3리 류지형 제보자, 7월 12일과 9월 2일 군하2리 한우 제보자, 8월 25일 군하3리 마을회관 주민들과의 면담 내용을 기본으로 정리하였다. 농업을 하기 위해 조직하거나 모였던 노동조직인 두레와 품앗이, 모내기에서 추수까지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두레와 품앗이

농사에서 특히 논농사에서의 공동노동조직을 요즘은 일반적으로 '두레'라고 하지만, 군하리에서 이 공동노동조직의 형태를 예전에는 품앗이·풍물패라고 칭하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어렸을 때 기억으로 '품앗이 합시다.'하면 사람들이 다 모이곤 했는데, 깃발을 들고 악기를 치고 다니면서 일을 한 것을 생각해보니 두레였다고 회상한다. 공동노동조직인 두레와 개별 노동교환 형태인 품앗이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군하리에서 모내기는 품앗이로 진행이 되었고, 김매기는 두레를 조직하여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43〉 예전 농사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군하3리 주민들

제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두레의 기본적인 성격은 노동력이 있는 남자들로 구성되며, 농기를 앞세우고 풍물악기를 치고 다닌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농악대가 다 있었고, 들일을 하게 되면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쓰여진 농기에 꿩 장목을 꽂고 악기를 치며 들로 나가서는, 깃발을 들에 꽂아 놓고 풍물악기를 한 번 치고 일을 시작한다.

노동력의 경우 군하1리는 보통 20~30여 명이 조직되어 들일을 진행하며 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모내기나 김매기 때 소리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군하3리는 마을이 작고 농토도 적고 인구수도 적어서 옆 동네인 갈산리와 두레를 조직하곤 했다. 갈산리도 작은 마을이라 조직을 짜도 인원이 최대 20명을 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② 물 공급

군하리는 천수답(天水畓)이지만, 물이 많이 모자라지는 않아서 모내기나 김매기를 할 때 큰 고생은 하지 않는 편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를 막아 물을 가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도 했지만, 천수답일 때에도 개울의 모래를 삽이나 가래로 파면 물이 잘 나왔다. 그렇게 물이 나오면 가운데가 파인 길쭉한 용두레를 가지고 물을 논으로 퍼 올려서 썼다. 개울이나 냇가에서 논까지 물을 퍼 올리는 것은 혼자서 몇 단계의 턱을 거쳐 올려야 하는 지루하고 힘든 노동이었다고 한다.

③ 모내기와 김매기

보통 모내기는 몇 명이 모여 품앗이로 진행하는데, 품앗이로 하더라도 잘 차리고 잘 먹여주는 집의 일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고 아쉬운 시절의 이야기이다.

농업이 기계화되지 않았을 때, 군하리에서 김매기는 세 번 진행되며 순서대로 애벌, 두벌, 세벌이라고 했다. 애벌 때는 크고 긴 논호미로 땅을 뒤집어서 잡초를 엎어 놓고, 두벌 때는 엎어 놓은 흙을 논호미로 다시 뒤집어서 잡초를 다시 제거한다. 세벌은 맨손으로 훔치는 것으로 맨손으로 논물도 한 번 흔들어 놓고 바닥도 한 번 쓸어주는 등을 하는 것이다.

④ 호미씻이

김매기를 다 마치고 '농기파장'이라고, 큰 나무 그늘 같은 데서 두레 예산으로 돼지를 잡고 풍물을 치면서 한바탕 놀기도 했다고 한다. 모내기와 김매기까지 힘든 과정을 마치고 추수를 하기 전에 잠깐의 여유를 내서 서로를 위로하고 앞일을 위해 충전하는 시간으로 다른 지역의 '호미씻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⑤ 추수와 탈곡

벼가 익으면 낫으로 베는데 식량이 일찍 떨어진 사람은 벼가 덜 여물었어도 벼를 베기도 했다. 베어낸 벼는 볏단으로 묶어서 쌓았다가 잘 말려서 탈곡을 한다. 탈곡은 홀태에 훑어서 낟알을 떨고, 절구질을 해서 껍질을 벗기고 키로 까불려야 깨끗한 낟알을 얻을 수 있었다. 애기봉 사거리에 있었던 방앗간에 가서 도정을 했다.

⑥ 농기싸움

군하2리 한우 제보자에 따르면 1950년대 후반에는 각 마을마다 농기가 다 있어서, 두레패가 공동으로 들에서 일을 하다가 모여서 농기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고 한다. 농기를 가지고 노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진 않지만, 들에서 두레패들이 모여서 농기로 일종의 놀이를 하기도 했으며, 한 장소에 여러 마을이 모여서 경연처럼 서로 농악을 치기도 하고 농기도 서로 모이고 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선명하지는 않았다.

군하2리를 비롯한 군하리와 인근 마을에 예전에는 두레패와 농악대가 각 마을마다 존재했고, 두레가 모이고 농기가 모여서 일종의 놀이나 시합 또는 경연 등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삼포(蔘圃)

군하리에서의 삼포 작업은 2016년 7월 11일 군하1리 전순복 제보자와 7월 12일 군하

2리 한우 제보자와의 면담에서 수집한 내용을 정리하여 싣는다. 두 제보자는 꽤 큰 규모로 오랫동안 삼포를 경작하여 삼포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두 제보자 모두 강화와 김포는 인삼밭을 해서 잘 살게 된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적어도 1950년대~1960년대까지는 김포가 인삼의 고향이었으며, 군하리에 특히 삼밭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삼을 심을 지력이 좋은 땅도 없을뿐더러 땅값이 비싸져서 인삼을 심을 땅이 없다고 한다.

전순복 제보자는 한 때 2,000~3,000평의 삼밭을 경작했으며, 젊었을 때부터 10여 년 전까지 삼포를 했다고 하니 경험과 정보가 상당했다. 제보자에 의하면 돈을 아끼면 삼을 제대로 기를 수 없다.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삼밭에 좋은 거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료를 사용하면 안 되고, 산에 있는 갈잎을 썩힌 것, 곡초를 썰어서 섞기도 하고, 불을 때고 나온 재 등 자연 거름을 삼밭에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비해 김포가 삼농사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예전에는 토질이 좋았지만 삼이 땅의 기운을 모두 빼먹었기 때문이다. 삼을 심으면 다른 작물보다 지력을 몹시 빨아들여서, 밭의 기운 80%를 빼 먹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정말 좋은 밭이 아니면 두 번 연거푸 삼농사를 짓기는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김포보다는 일산, 파주 쪽에 삼농사를 많이 한다.

한우 제보자는 논농사와 인삼 농사를 병행했는데, 삼포가 사람들 일거리 제공에 상당히 기여했으며 또한 기술 습득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 후반에는 하루 인건비가 쌀 두 되 반이었는데, 그것도 일거리가 없어서 구하는 사람보다 늘 사람이 많이 와서 되돌려 보내기 일쑤였다고 한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어려운 사람들은 정월이 되면 식량이 떨어져서 미리 쌀을 빌려다 먹고 가을에 그걸 이자까지 합해 갚느라 빈부격차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삼포에서 일을 하고 기술을 배우면서 빈곤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삼포를 한동안 하면 이후 15~20년 정도는 인삼농사를 할 수 없다. 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군하리에서 삼포는 1970년대까지 성행하고 차츰 줄어들었으며, 요즘은 파주·연천·강원도로까지 인삼 경작 지역이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

예전에 군하리 장이 매우 컸다고 하며 그에 대한 군하리 주민들의 기억과 자부심은 상당했다. 군하리 장과 군하리 주민들의 생활권에 드는 시장은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이에 대한 내용은 2016년 7월 10일 군하1리 김수복·김옥자 제보자와의 만남과 8월 25일 군하1리 마을회관에 모이신 김수복·전덕분·김형임·이춘자·정경애·정경랑·김재순·김영혜 제보자와의 만남에서 수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예전에 군하리 장이 컸을 때 군하리 장에서 팔던 대표적인 물품으로는 쌀, 옷, 생선, 포목, 신발 등 다양했고 우시장도 크게 섰다고 한다. 그 외에 떡, 국수와 같은 먹거리도 다양했다. 소금이나 젓갈 같은 경우는 군하리 장에서 사기보다는 주로 인천으로 받으러 다녔다.

크고 떠들썩하던 군하리 장은 뱃길이 얼면 며칠씩 건너가지도 못 했고, 덕분에 술집이나 여관은 돈을 벌었다. 그러다가 강화대교가 생기고 나니 사람들이 강화로 장을 보러 다니면서 군하리 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예전에 장이 서는 것은 5일마다 서는 5일장이었으며, 장이 서는 날짜가 마을마다 달라서 장터의 특성과 필요한 물품에 따라 주민들이 인근 장에 가기도 했다. 군하리는 5일과 10일, 양곡은 1일과 6일, 김포는 2일과 7일, 마성은 3일과 8일, 하성은 4일과 9일에 장이 선다. 장날에 맞춰 장터를 돌아다니면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고 주민들은 장날에 맞춰 장을 보러 가는 것이다.

2) 군하리 놀이와 여가

군하리 놀이

이 항목에서는 주로 주민들이 어렸을 때 놀았던 여러 가지 놀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어렸을 때 기억과 추억을 더듬어 다양한 예전의 놀이에 대한 내용은 2016년 7월 10일 군하1리 김수복·김옥자 제보자, 7월 11일 군하3리 류지형 제보자, 8월 25일 군하3리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들은 이야기들을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① 여자 아이들의 놀이

군하리 주민들이 어렸을 때는 집 안팎에서 다양한 놀이들을 하였다고 하는데, 기억나는 부분은 그만큼 다양하지는 않았다. 여자아이들은 어렸을 때 주로 고무줄놀이·공기놀이·땅따먹기를 하고, 오재미 돌리기·제기차기와 연날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무더운 여름밤에 마당에 모깃불을 피워놓고 평상이나 멍석 위에서 형제나 친구끼리 하늘을 보며 별을 빨리 헤아리는 내기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실외 놀이 외에 방 안에서는 반지점·춘향이놀이 등을 했다. 반지점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고 연필을 쥐고 주문을 외우면 연필이 뭔가를 그리는데, 그것을 단서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놀이는 귀신놀이를 하는 것 같아서 자주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춘향이놀이를 할 때 두 손을 붙이고 춘향이를 부르는 노래를 하면 춘향이가 내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것은 춘향이가 내려서 그렇다고 한다.

② 남자 아이들의 놀이

어렸을 때 남자 아이들은 주로 들과 냇가에서 놀이를 하며 지냈다. 들로 다니며 삘기(억새풀처럼 생긴 솜 모양의 풀)나 논에 있는 껌풀을 뽑아서 껌처럼 씹고 다녔다. 무슨 맛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씹는 맛이 있었다고 한다. 소나무 끄트머리를 잘라서 아이스크림으로 여기고 핥아먹기도 했다.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입에 대고 하모니카처럼 왔다갔다하면 송진이 나오는데 그 맛이 약간 달착지근했다.

마을 뒤에 미군부대가 들어왔을 때는 화약놀이를 했다. 땅에 떨어진 화약을 주워서 땅 속에 묻고는 불을 지르면 땅이 하늘로 솟구치는 게 재미있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위험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놀거리가 없던 시절에 남자아이들에게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놀이였다.

여름에는 시간만 나면 냇가(포내천)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먹기도 했다. 예전에 포내천에는 물고기부터 자라까지 다양한 어종이 있었다. 소를 봐야할 때도, 소는 산에 올려다 놓고 냇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먹고 집에 가면 저녁이었다. 그러면 소는 벌써 집에 와 있었다. 그만큼 소가 똑똑한 동물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 알게 되었다.

개울에 겟발을 쳐서 참게, 메기 등을 잡기도 했다. 겟발을 쳐 놓으면 물에 떠내려오는 참게를 수십 마리씩 잡고 포동포동한 메기를 꽤 많이 잡을 수 있었다. 어렸을 때는 냇가에서 멱 감고 물가에서 고기 잡는 것이 일상적인 놀이였다.

〈그림 144〉 여러 차례 제보자들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던 군하1리 경로당

군하리 여가

이 항목에서는 주로 주민들이 단체로 즐기는 여가생활을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여가 생활에 대한 내용은 2016년 7월 10일 군하1리 김수복·김옥자·류경수 제보자, 7월 11일 군하1리 전순복 제보자와의 만남에서 수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① 예전의 여가생활

나이 든 어르신들께 들은 예전의 여가생활은 다양하지 않았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었을 뿐더러 늘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겨울 농한기에도 마을에서 규모가 큰 집의 사랑방에 모여 매끼(새끼)를 꼬고 멍석을 치고는 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이라 이웃이나 친구들과 술 한잔 나누기도 힘든 시절이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남자 어른들은 '쩍쩍이'라는 것을 했는데, 쩍쩍이는 손가락 굵기의 얇은 종이나 곽 종이에 숫자를 써서 하는 놀이이다. 4~5명이 둘러앉아 종이판을 한 장씩 뽑아가서 끝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곱새치기나 골패보다는 이 쩍쩍이나 월남 뽕 같은 놀이를 더 즐겼다고 한다.

② 요즘의 여가생활

요즘은 시간이 되면 어르신들은 주로 경로당에 모인다.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10원짜리 화투도 치긴 하는데 화투를 그리 즐기는 편은 아니다. 한동안 경로당에 노래나 미술활동을 해 주러 강사가 오기도 했는데, 경로당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으니 없어지고, 그런 활동은 주민자치센터에 가야 가능하다.

밭이나 하우스 작업을 해야 하는 가정들이 꽤 있어서 일이 많은 여름보다는 일이 적은 겨울에 경로당에 사람이 모인다. 모여도 점심식사 후인 2시 쯤 모였다가 5시 쯤 각자의 집으로 헤어진다.

경로당에서 일년에 한두 번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여행을 간다. 주로 봄에는 꽃놀이를 가고 겨울에는 온천나들이를 간다. 전에는 일 년에 네 번씩 경로당에서 여행을 간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일 년에 두 번 가면 많이 가는 것이고, 일 년에 한 번 다녀오기도 한다.

군하리 청년회가 1990년대에 활성화되면서, 추석 때 이틀 동안 노래자랑을 벌인다. 일종의 마을 콩클대회이다. 또 의용소방대 주관으로 섣달그믐에 척사대회를 하는데, 경품도 많고 주민들에게 인기도 많다. 이런 행사는 군하리 마을 전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이자 잔치라고 할 수 있다.

Ⅳ

군하리 마을의 문화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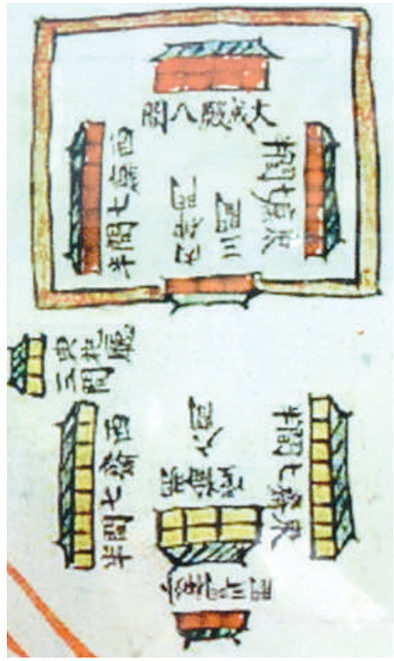
1. 군하리 마을 문화유산

1) 통진향교

통진향교는 군하1리 마을에서 가장 서쪽으로 지대가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월곶면 군하리 200) 조선시대 각 지방의 읍·현에 있던 국립교육기관으로, 향교의 입지는 대체로 마을의 중심에서 벗어나 그 주변에 지대가 높거나 풍광 좋은 곳에 자리하게 된다.

통진향교 역시 공간 구조상 중심에서 벗어나 있지만,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여 공간적 위계를 갖추고 있다. 통진향교 인근을 마을사람들은 향굣말, 또는 웃말, 윗말 등으로 지금까지 부르고 있다.

통진향교는 현재 경기도문화재자료 제30호(1983. 9. 19)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초창은 고려 1127년(고려 인종 5)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 때 1군 1향교 정책으로 폐교되었고, 해방 이후 그 기능을 되찾았으나 한국전쟁 때 동무와 서무가 파괴되었다고 한다. 이후 1965년과 1966년에 각각 명륜당 및 부속 건물을 대대적으로 보수하였고, 1987년 대성전과 명륜당을 보수하였으며,



〈그림 145〉 통진지도 중 통진향교 부분 확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그림 146〉 통진향교 풍화루

〈그림 147〉 통진향교 대성전

1994년에는 동재를, 1995년에는 풍화루를 복원하였다고 한다.

대성전은 사당 건물 형식으로 정면 3칸에 퇴가 있는 측면 3칸 맞배지붕집이고, 5성(五聖), 송조 4현(宋朝四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1] 대성전 앞 좌우에는 동무와 서무가 자리 잡고 있는데, 정면 5칸, 측면 1칸에 전퇴가 있다.(1.5칸 규모), 명륜당의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2칸 팔작지붕집이고, 동쪽에 동재가 자리 잡고 있다. 대성전 영역에 내삼문이, 명륜당 영역에는 외삼문에 해당하는 풍화루가 자리 잡고 있다.

전체적인 배치는 조선시대와 동일하나 건물의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고지도를 통해 알 수 있다. 대성전의 경우 고지도에는 정면 4칸으로, 동무와 서무, 동재와 서재는 각 정면 7칸, 풍화루 자리에는 정면 3칸의 외삼문으로 그려져 있어 근·현대를 거치면서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통진향교는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와 전적·노비 등을 지급받아 교관 1명이 정원 30명의 교생을 가르쳤으나,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봄·가을에 석전(釋奠)을 봉행(奉行)하며 초하루·보름에 분향을 하고 있다. 향교의 운영은 전교(典校) 1명과 장의(掌議) 수명이 담당하고 있다.[2]

1 공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 외 송 2현, 우리나라 동국 18현

2 제향일은 음력 8월 28일이고, 대표자 이용훈 전교가 맡고 있다.

2) 통진이청(吏廳)

〈그림 148〉 통진지도 중 통진이청 부분 확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통진이청은 군하리에 통진읍치 건물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로 통진이청의 위치는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276번길 27번지로 월곶초등학교 정문 바로 오른편이고 구 월곶면사무소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남아 있던 건물을 완전 해체하여 2013년 9월 고증을 통해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66호(2011. 10. 4)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시대 통진부의 이청(吏廳) 건물로 정면 7칸, 측면 2칸 규모인데, 고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면 7칸 건물로 동일하며, 지금은 남아 있지 않지만, 별도의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통진이청과 인접하여 통진객사(분진관)도 확인된다.

통진이청은 『통진읍지』에 따르면 통진에 있는 대부분의 관아를 기사년(1869년)에 부사 백낙선이 중수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때 다시 지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통진이청은 우리의 아픈 역사도 담고 있는데, 일제 강점기 독립투사를 잡아 고문하던 주재소로 쓰이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3·1운동 당시에 이 지역에 많은 독립투사가 잡혀와

〈그림 149〉 복원이전 통진이청 전경(통진이청 안내판)

〈그림 150〉 복원된 통진이청 전경

고초를 치렀다고 한다.

복원 이전 이청 건물은 정면 중앙에 출입구가 있었고, 그 좌우로는 벽으로 막아 출입구나 근대식 창호가 붙어 있었는데, 복원된 이청 건물은 팔작지붕집, 홑처마, 5량가 건물이다. 가장 오른쪽은 3칸 대청을 두었고, 왼쪽으로 온돌방 3칸과 툇마루, 그리고 가장 왼쪽에는 부엌을 두었다. 초석과 보, 보아지, 대공, 화반 등의 원래 부재를 재사용하여 나름의 고풍스런 풍광을 자아낸다.

통진이청 건물은 경기도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경기도 관아 건축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3) 통진 현감·부사 선정비

통진이청 맞은편에는 구 월곶면사무소가 있는데, 그 마당 한편 보호각 안쪽에 가지런히 비석군이 자리잡고 있다. 이 비석군이 김포시 향토유적 제5호인 '통진 현감·부사 선정비'이다. 소재지는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276번길 20번지이다. 구 월곶면사무소는 조선시대 통진관아(동헌)가 있던 자리로 이곳에 부임했던 수령을 기념하고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선정비를 세운 것이라 한다.

비석은 총 17기인데 모두 통진에 부임해 선정(善政)을 베풀었던 현감(縣監), 부사(府使), 관찰사(觀察使) 등 목민관들의 선정 불망비(不忘碑)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 중기에서 말기에 걸쳐 건립된 것들로서 지방사와 역대 행정관들의 치적으로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으며 1986년 3월 3일 향토유적 제5호로 제정되었다.[3]

통진은 1413년(태종 13) 감무(監務)가 다스리던 고을에서 현감이 다스리는 고을로 승격되었고, 1694년(숙종 20) 문수산성이 완성되면서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되었다. 총 17기의 선정비 및 불망비 중 부임한 연도순으로 하면, 현감 윤이지(1613), 현감 홍무적(1623), 현감 김인량(1641), 현감 권대운(1654), 현감 윤게(1658), 관찰사 이형규(1781), 부사 김광운(1782), 관찰사 정기선(1832), 부사 김노갑(1832), 부사 윤명검(1839), 부사 최홍덕(1845), 부사 박승유(1853), 부사 백낙선(1867), 부사 홍재신(1870), 부사 김재형(1877), 부사 고영근(1889) 등이다. 이 중 부사 최홍덕의 비가 2기이다. 1914년 통진군이 병합되고 일부 면이 월곶면으로 병합되면서 구 월곶면사무소 내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비의 훼손과 부식을 방지하고, 역사·교육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2013년 8월 보호각을 설치하였다. 17기의 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51〉 통진 현감·부사 선정비 전경

① 縣監尹公履之淸德善政碑 萬曆乙卯二月
현감윤공이지청덕선정비 만력을묘이월[광해군7년(1615)]
② 縣監洪公茂績淸白善政碑 天啓五年二月
현감홍공무적청백선정비 천계오년이월[인조3년(1625)]
③ 縣監金寅亮淸簡善政碑 辛卯正月日立
현감김인량청간선정비 신묘정월일입[효종2년(1651)]
④ 縣監權工大運淸德善政碑 丙申八月日立
현감권공대운청덕선정비 병신팔월일입[효종7년(1656)]
⑤ 縣監尹公垹淸德善政碑 庚子七月日立
현감윤공게청덕선정비 경자칠월일입[현종1년(1660)]
⑥ 觀察使兼巡察使李公亨逵愛民善政碑 乾隆四十八年癸卯七月
관찰사겸순찰사이공형규애민선정비 건륭사십팔년계묘 칠월[정조7년(1783)]
⑦ 行府使金公光運淸德愛民善政碑 乾隆四十八年癸卯七月
행부사김공광운청덕애민선정비 건륭사십팔년계묘칠월[정조7년(1783)]
⑧ 觀察使兼巡察使鄭公基善之生墓 甲午三月立
관찰사겸순찰사정공기선지생묘 갑오삼월입[순조34년(1834)]
⑨ 行府使金公魯甲之生墓 甲午三月
행부사김공노갑지생묘 갑오삼월[순조34년(1834)]
⑩ 行府使尹公明儉永世不忘碑 庚子十二月日立
행부사윤공명검영세불망비 경자십이월일입[헌종6년(1840)]

3 『김포군지』, 1993, pp.1294~129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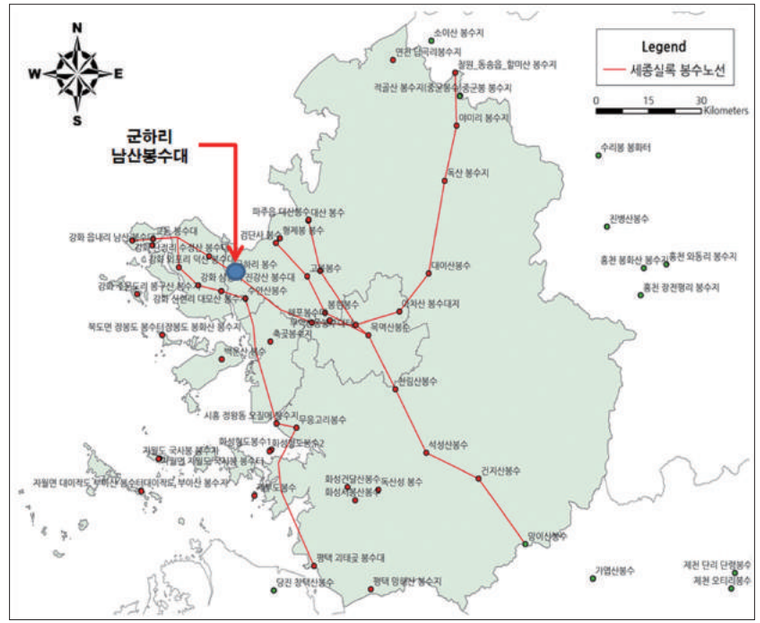
⑪ 行府使崔公弘德永世不忘碑 丁未七月
행부사최공홍덕영세불망비 정미칠월[헌종13년(1847)]
⑫ 府使崔公弘德愛民善政永世不忘碑 丁未三月日立
부사최공홍덕애민선정영세불망비 정미삼월일입[헌종13년(1847)]
⑬ 行府使朴公承儒淸德永世不忘碑 咸豊五年丁午三月
행부사박공승유청덕영세불망비 함풍오년정오삼월[철종 6년(1855)]
⑭ 行府使白公樂善永世不忘碑 己卯八月日立
행부사백공낙선영세불망비 기묘팔월일입[고종16년(1879)]
⑮ 行府使洪公在愼愛民善政碑 同治十三年甲戌二月
행부사홍공재신애민선정비 동치십삼년갑술이월[고종11년(1874)]
⑯ 行府使金公在亨愛民善政碑 光緖六年五月日立
행부사김공재형애민선정비 광서육년오월일입[고종17년(1880)]
⑰ 行府使高公永根淸德恤民善政碑 光緖十六年庚寅六月
행부사고공영근청덕휼민선정비 광서십육년경인육월[고종27년(1890)]

지금은 면사무소가 신축 이전하여 비어있는 구 면사무소 마당 한쪽에 있어 찾는 이도 드물고, 관리도 용이치 않은 실정이다. 구 면사무소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비석군도 함께 보존·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남산 봉수대

군하1리에서 남쪽을 바라다보면 산봉우리 2개가 보이는데, 이 산이 안산에 해당하는 남산이다. 이 두 봉우리 중에서 왼쪽 봉우리가 조금 낮은데 이곳에 봉수대가 있다고 한다. 봉수대는 남산 아랫동네인 봉골을 통해 올라가는 길이 있다. 봉수대의 정확한 위치는 월곶면 군하리 산44-9번지에 해당한다.

군하리 남산 봉수대는 조선시대 봉수터로 나라의 병란(兵亂)과 사변(事變)때 봉수(烽燧)를 올려 중앙에 알리던 기능을 하던 시설물이다. 이 봉수대는 당시 군내(郡內)에 설치했던 5개소 중의 하나로서 강화 대모산(大母山) 봉수와 직접 연결되던 중요한 통신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즉 월곶면의 남산(南山), 대곶면의 수안산(守案山), 검단면의 백석산(白石山), 김포1동의 냉정산(冷井山), 양서의 개화산(開花山) 등 5개소의 봉수대가 서로 얽혀 연결되면서 서울 남산으로 경보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 당시 봉화로 연결되던 연락망은 강화 대모산 → 월곶 남산 → 대곶 수안산 → 검단 백석산 → 김포 냉정산 → 양천 개화산 → 서울 목멱산(남산)으로 이어졌다.



〈그림 152〉『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경기일원 봉수 노선도

군하리 남산봉수에 관한 기록은『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과『김포군읍지(金浦郡邑誌, 1899)』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에는 "남산(南山) 봉수는 통진현과 5리 거리이다. 동쪽으로 김포현 북성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강화부 송악산(松岳山)에 응한다"고 되어 있으며,『김포

〈그림 153〉 군하1리에서 바라 본 남산과 남산 봉수대

〈그림 154〉 남산 봉수대 현황사진(김포문화재단 제공)

군읍지(金浦郡邑誌, 1899)』에는 "남산 봉수는 관부 남쪽 5리에 있다. 김포 냉정산(冷井山) 봉수로부터 동쪽에서 오는 신호에 상응하고 거리는 육로로 40리이며, 서쪽으로는 강화 남산 봉수에 보내는데 거리는 바다를 건너 40리이다" 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군내(지금의 군하리 일대)는 바다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이자, 해안에서 내륙으로 접근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서울의 입구를 지키는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4] 당시 이곳에 주둔하던 봉수군은 103명으로 규모와 역할이 컸던 곳이며 1986년 3월 3일 향토유적 제6호로 지정되었다고 한다.[5] 봉수대는 한국전쟁 이전까지 남아 있었는데, 전쟁 당시 미군들이 이 곳에 주둔하면서 파괴되었다고 한다.

5) 월곶면민만세운동 유적비

〈그림 155〉 월곶면민만세운동유적비 전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857-39번지에는 월곶면민만세운동 유적비와 자그마한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그 위치를 좀 더 설명하면, 군하1리에서 48번 국도를 따라 포내리 방면으로 가다보면 무네미고개(수현)가 나오는데, 고개 마루 가장 높은 곳에 48번 국도를 우회하는 작은 도로에 들어서면 통진휴게소가 위치해 있고, 그 옆으로 유적비가 일곽을 이루며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유적비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 만세운동 유적비는 1919년 3월 22일 월곶면 일원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제의 비인도적 탄압에 항거하며 희생을 아끼지 않은 애국지사의 넋을 기리고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1984년 12월 29일 시민의 뜻을 모아 건립하였다고 한다.[6]

6) 곰배 미륵불상

군하1리에서 군하3리 곰배마을로 가려면 곰바위 모퉁이를 돌아 포내천을 건너야하는데, 이 곰바위 모퉁이를 예로부터 미륵당 터(미럭당터)라 불렀다고 한다. 마을의 초입이나 말미에 장승이나 솟대를 세웠는데, 이는 마을의 안녕과 안전을 기원하는 민간신앙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마을의 경계를 표시하는 하나의 안내 역할을 하였다. 미륵불 역시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의 입구나, 길목, 고갯마루 등에 조성하여 지나가는 나그네의 안전한 여정을 기원하고 이정표 역할을 하였다. 미륵당 터는 강화도 방향에서 군하1리로 들어오는 마을 입구에 해당하는 지점에 위치하는데 현재는 도로의 신설과 함께 그 터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곳에 미륵불이 있었다고 하는데, 수십 년 전에 능골 인근 사찰에서 가져갔다가 지금은 곰배마을에 있는 작은 사찰(가정집을 개조한 사찰로 현재는 스님이 거처하지 않고 있으며, 집은 거의 허물어진 상태이다.)로 옮겨져 마당 한쪽에 옮겨 놓았다. 최근까지도 예불을 드렸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미륵불상의 머리 부분은 유실된 것을 최근에 복원한 것이다. 전체적인 조각기법이 훌륭하지는 않지만, 토속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림 156〉 미륵당 터에 있던 미륵불
(현재 곰배마을에 소재함)

4 군하리 봉수대 유적 역시 그 위치나 기능으로 볼 때, 제법 대규모에 속하는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거화시설 이외에도 봉수군의 거주시설이나 수장용 창고 등이 출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군하리 봉수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관련 문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립 배경과 구체적인 운영실태, 변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시굴 및 발굴 조사를 통해서는 군하리 봉수대의 물리적 형태, 구성요소의 특징과 배치방식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김포문화재단 '군하리 봉수대' 관련 보고자료 참조)

5 김포시청 홈페이지 참조(http://tj.gimpo.go.kr/culture)

6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복여행 홈페이지 참조(http://korean.visitkorea.or.kr).

7) 보호수[7]

마을에 보호수의 수령을 보면 그 마을의 역사를 짐작할 수 있듯이 군하리 역시 오래된 보호수가 많은 유서 깊은 마을임을 한눈에 짐작할 수 있다.

군하1리는 조선시대 통진 읍치가 있던 마을일 뿐만 아니라 그 역사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 깊은 마을이다. 이러한 마을의 역사와 함께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아홉 그루나 있는데, 그 수령이 최소 250년에서 450년에 이른다. 즉 조선시대 초인 1500년대부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과 근·현대를 묵묵히 지켜본 마을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다. 통진향교에는 수령이 250년, 400년 된 느티나무가 세 그루가 있으며, 월곶면사무소(옛 통진관아터)에도 300년, 450년된 느티나무가 두 그루 있다. 또한 월곶초등학교 뒤편 산 능성이로 250~400년 된 느티나무 세 그루와 250년된 회화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 통진향교, 월곶초등학교, 월곶면사무소가 비교적 인근에 인접해 있어 보호

경기-김포-31(통진향교)

경기-김포-38(통진향교)

경기-김포-39(통진향교)

7 김포시, 『金浦市史 Ⅵ』, 2011. 1. 25, pp.327~328 참조

경기-김포-32(구 면사무소)

경기-김포-33(구 면사무소)

경기-김포-36(구 면사무소)

경기-김포-37(구 면사무소)

경기-김포-34(월곶초)

경기-김포-35(월곶초)

〈그림 157〉 군하리 마을 보호수 현황

〈표 12〉 군하리 보호수 목록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일	수종	유형	수령(년)	높이(m)	둘레(m)	비고
경기-김포-31	군하리220	1982.10.15.	느티나무	명목	250	18	3.5	통진향교
경기-김포-32	군하리83	1982.10.15.	느티나무	풍치목	250	16	3.4	구 월곶면사무소
경기-김포-33	군하리83	1994.5.12.	회화나무	풍치목	250	15	2.8	구 월곶면사무소
경기-김포-34	군하리84-1	1982.10.15.	느티나무	정자목	350	17	4.0	월곶초
경기-김포-35	군하리84-1	1982.10.15.	느티나무	풍치목	400	18	3.5	월곶초
경기-김포-36	군하리83-2	1982.10.15.	느티나무	풍치목	450	16	4.0	구 월곶면사무소
경기-김포-37	군하리83-2	1994.5.12.	느티나무	풍치목	300	14	3.5	구 월곶면사무소
경기-김포-38	군하리220	1982.10.15.	느티나무	정자목	400	20	3.2	통진향교
경기-김포-39	군하리220	1982.10.15.	느티나무	정자목	400	16	4.0	통진향교

수를 둘러보고, 휴식할 수 있는 관람코스 개발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밖에도 군하리에 위치해 있지는 않지만 월곶면에 소재한 훌륭한 문화유산이 다수 있다. 사적 제139호(1964. 8. 29)로 지정된 '문수산성'은 조선시대 산성으로 월곶면 성동리, 포내리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데, 강화도의 산성과 함께 서울을 방어하던 서해안

〈그림 158〉 군하리 마을의 문화유산 위치도

의 군사시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수산성 내에는 '문수사(전통사찰62호, 876년 창건, 월곶면 성동리 산37)', '문수사풍담대사부도및비(지방유형문화재 제91호, 조선, 월곶면 성동리 271)'도 찾아가 볼 만한 문화유산이다. 월곶면에는 한강 유역이라는 특성답게 겨울철에는 많은 철새가 날아드는데, 특히 조강리 일원은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로 천연기념물 제250호(1986.11.1.)로 지정되어 있다. 이 밖에 관방유적으로 '수안산성(지방기념물 제159호, 조선, 대곶면 율생리 산117일원)', 월곶면 성동리와 강화군 갑곶리 사이를 연결하던 나루터 유적인 '갑곶나루선착장석축로(甲串—船着場石築路)[8] 등이 있다.

2. 군하리 마을 구비전승

군하리에서 구비전승으로 내려오는 설화와 민요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면담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을 했지만, 다양한 설화와 민요를 듣지는 못 했다.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어렸을 때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다는 대답으로 조사가 시작되곤 하였다.

많은 자료는 아니지만 다른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구연된 설화와 민요를 채록하여 싣는다.

8 인천기념물 제25호(1995. 3. 1.), 조선시대, 나루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두문리 산 297 외 1필지 / 김포군 월곶면 성동리와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甲串里) 사이를 배편으로 연결하던 곳이다. 갑곶이라는 명칭에 대해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다. 고려 23대 고종(高宗)이 몽고군의 침입을 받아 강화도로 몽진(蒙塵)할 때 이 나루를 건너게 되었는데, 이곳이 대안과의 거리도 짧고 수심이 얕아서 군사들이 갑옷을 벗어 쌓아놓고 건널 수 있었다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이곳은 정묘호란(丁卯胡亂) 당시에도 인조대왕(仁祖大王)이 건넜던 사실이 있고, 병자호란(丙子胡亂) 당시에는 봉림대군(鳳林大君)이 피신했던 곳이기도 하다. 또 병인양요(丙寅洋擾) 때에는 격전을 치렀던 역사적 실전의 현장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나루터 시설 없이 이용되다가 조선 초기 박신(朴信)에 의하여 1419(조선 세종 원년)~1432년(세종 14) 사이에 최초로 석축로가 축조되어 일제 때까지 약 500년간 사용되었다. 그 후 교통수단이 발달하자 1920년경에 성동리와 강화 선정리에 새로운 나루터가 신설되면서 옛 나루터는 폐쇄되었다. 해방 후에는 옛 나루터 부근에 선박으로 자동차를 싣고 다니는 나루터가 생겼다. 1969년 강화대교가 건설되자 두 나루터 모두 폐쇄되었다.

1) 설화

설화 자료를 제공해 준 제보자로는 군하1리의 김수복·김옥자·오정자 제보자, 군하2리의 한우 제보자, 군하3리의 안석묵·류지형·류강근·함일석 제보자, 포내1리의 류지만 제보자이다. 여느 마을에 전해지는 명당에 관한 이야기, 저승에 다녀온 사람 이야기, 혼령에 관한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조사되지 않았다.

옛날이야기로 가장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깨비 이야기가 6편 조사되었고, 마을 지명이나 전설 또는 일화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5편, 학질 떼는 이야기가 2편 조사되었다.

도깨비 이야기

불빛에 사라진 사람

제보자 : 김수복(여, 1924년생, 92세, 군하1리 거주)

조사일시 : 2016년 7월 10일(일)

조사장소 : 김포시 월곶면 군하1리 마을회관

조사자 : 시지은, 남찬원

김수복 제보자

(마을에 내려오는 도깨비 이야기가 없는지 질문하자, 여러 제보자가 도깨비에 홀려 길을 헤매는 사람 이야기들을 했다. 김수복 제보자가 도깨비는 진짜 있다면서 다음 이야기를 하자, 옆에서 김옥자 제보자가 자꾸 '그건 도깨비가 아니라 귀신 이야기'라고 한다.)

"도깨비는 진짜 있더라. 내가… 요기 저 우리 피난민 수용소 소장이 죽었어. (조사자 : 수용소가 있었어요?) 옛날 유○○이라고 저 피난민 수용소 소장. 수용소 소장이 죽었는데. 저기, 저기 갔다가 밤에 오는데. 이렇게 따러.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꼭 사람이 앞에를 가요. 걸어가더라고, 여자가. 하얀 옷을 입고, 보니까. 길을 따라 오는데 차가, 차가 지나가니까 그게 없는 거야. (청중 : 그건 도깨비가 아니라 귀신이야.) (일동 : 하하하)

없어. 그게 없어. 그렇게 계속 그 사람 길을 따라 왔는데 차가 지나가니까, 불이 비취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글쎄, 머리 끄뎅이 올라와서.... (청중: 글쎄, 그건 귀신이라니까요. 도깨비가 아니고.)"

돈 갖다 주는 도깨비

제보자 : 김수복(여, 1924년생, 92세, 군하1리 거주)

조사일시 : 2016년 7월 10일(일)

조사장소 : 김포시 월곶면 군하1리 마을회관

조사자 : 시지은, 남찬원

김수복 제보자

(여러 제보자들이 밤새 씨름하고 나무에 묶어놓은 게 나중에 보면 빗자루더라는 이야기와 빗자루에 사람 피가 묻으면 도깨비 노릇을 한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조사자가 도깨비가 사람에게 좋은 일은 안 해 주는지 묻자 김수복 제보자가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라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아니,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과부가 있는데 도깨비가, 그 도깨비가 홀린 거야. 그래가 돈을 자꾸 갖다 주니까 해서 '그, 딴 거 할 거 없이 땅을 사라.' 그러더래. '딴 거 하면 다 가져가니까 땅 사라고.' 그래 땅을 샀는데 내중에는 자꾸 저거 하니까는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피를 갖다가 뿌리라 그러더래.' (조사자 : 도깨비한테?) 대문에다 뭘 해놓고 피를 뿌리라구.

나중에는 도깨비가 오니깐, 피를 뿌려서 못 가니깐 모래를 갖다 찍 다 끼얹드래요. 그러구 사람이 말르드래요, 여자가. 도깨비가 오니까 자꾸 말라 들어가드래요. 그랬다고 우리 할머니가 얘기를 해서 알아."

참게 잡다 도깨비에 홀린 이야기

제보자 : 김옥자(여, 1943년생, 73세, 군하1리 거주)

조사일시 : 2016년 7월 10일(일)

조사장소 : 김포시 월곶면 군하1리 마을회관

조사자 : 시지은, 남찬원

김옥자 제보자

(김수복 제보자가 앞서 한 이야기는 도깨비 이야기가 아니라는 김옥자 제보자에게 귀신과 도깨비가 어떻게 다른지 질문하니, 바로 이 이야기를 구연하였다.)

"도깨비는 그 전에 채용네 아버지가 그 전에 그 냇개(냇가)에서 괴(게) 잡았잖아요? 괴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 전에 물초롱 있잖아. 그거를 들고 나갔는데. 그 전에는 소를요, 저 냇개에다 잡아매고서 풀 뜯어 먹으라고 놔 두고 그래서 소똥이 좀 많았아요?

그랬는데 괴가 그냥 어떻게 많은지 그걸 밤새도록 계속 그걸 줏어 담았다는 거야. (청중 : 소똥을 담았구만.)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와 가지고서는 아침에 보니까 소똥을 몽땅 주워 담아 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거이 참괜줄 알고. 그 참괴가 내리거든, 이렇게 가을이면? 그거이 도깨비라니깐요. 도깨비에 홀리는 거야."

소당 뚜껑 넣었다 빼는 도깨비

제보자 : 오정자(여, 1941년생, 75세, 군하1리 거주)

조사일시 : 2016년 7월 10일(일)

조사장소 : 김포시 월곶면 군하1리 마을회관

조사자 : 시지은, 남찬원

오정자 제보자

(김수복 제보자와 김옥자 제보자가 도깨비 이야기 하는 것을 옆에서 듣던 오정자 제보자도 도깨비 이야기가 생각난 듯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꼭 저기를 큰 소당 뚜껑을 웅솥에다 갖다 집어넣어 놓는대요. 그래 그걸 꺼낼 수가 있냐고? 못 꺼내지. 도깨비가 한 거를. (조사자 : 아! 뚜껑을 솥에다 넣는다구요?)

큰 소당 뚜껑을 갖다가 작은 데다 인제 넣어놓는 거야. 근데 사람이 꺼낼 수가 있어? (조사자 : 도깨비니까 그걸 하지.)

그래 '아주 잘 해 봤다.' 그러고 그랬더니 그 이튿날 싹 빼 놓더래. (일동 : 하하하.) (조사자: 아! 잘 했다고 하니까 심술 나서 또 빼 놓고?)"

도깨비불로 착각한 호롱불

제보자 : 안석묵(남, 1947년생, 69세, 군하3리 거주)

조사일시 : 2016년 8월 25일(목)

조사장소 : 김포시 월곶면 군하3리 마을회관

조사자 : 시지은

안석묵 제보자

(여러 제보자들이 어렸을 때 냇가에서 멱 감고 참게를 잡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조사자가 참게 잡다가 도깨비를 만나거나 도깨비에 홀린 적은 없는지 묻자 제보자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런 일이 있어요. 옛날에 인제 저, 이 등을 갖고. 나는 인제 그 경험을 한 사람이야. 아, 저기서 저기서 오는데 이 불빛이 막 비추다가 없어져. 그래 또 생기는 거여. 그래 옛날에 노인네들이 도깨비불, 도깨비불 그러거든요? '아, 진짜 도깨비... 저거 도깨빈가 보다.' 그랬지. 혼자서 오는데. (청중 : 옛날에는 여기서 저 미륵당에서 도깨비 많이 나왔어.) 근데 가끔 오다보면 또 없어져. (청중 :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랬다가 또 생기고.

그게 나중에 알고 가까이 보니까는 호롱불 있잖아요. 호롱불. (청중 : 횃불. 횃불.) 호롱불 갖고 쥐구서는. 그러니깐 개울에 들어가면 그게 없어지는 거야, 불빛이. 그랬다가 다시 사람이 길가에 올

라서면은 불빛이 생기는 거야. 그걸 도깨비불인 줄 알았다고. 실제로 도깨비불은 못 봤어. 하하."

도깨비불에 홀린 이야기

제보자 : 류지형(남, 1960년생, 56세, 군하3리 이장)

조사일시 : 2016년 8월 25일(목)

조사장소 : 김포시 월곶면 군하3리 마을회관

조사자 : 시지은

류지형 제보자

"저도 도깨비불에 씌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밤에 매일 운동하다가 이제 도망오고 그랬는데, 중학교 때. 이 ○○ 고개 위에 그 집이 하나 있었어요. 인척집이. 옛날 ○○에. 그 한... 누구야 완희네 그 거기가 폐허가 됐잖아요. 그전에 사람도 안 살고. (청중 : 맞아, 옛날에 거기 있었지.) 근데 막 내가 준식이네 앞에서 막 뛰는데 막 불이 막 쫓아오는 거여. 그래 도망왔어요. 그 다음 날 갔더니 이 폐허가 되면서 항아리 깨진 게 비치는 거여. (일동 웃음) 그니까 얼마나 마음이 약하면은 그게 보이는 거여."

마을 관련 설화

길 뚫어 망한 마을

제보자 : 한우(남, 1939년생, 77세, 군하2리 거주)

조사일시 : 2016년 7월 11일(월)

조사장소 : 김포시 월곶면 군하2리 마을회관

조사자 : 시지은, 남찬원

한우 제보자

(제보자는 이 동네에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전설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구연하였다. 군하2리가 옛날에는 아주 잘 사는 동네였다고 한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구느라 지형을 바꾸면서 동네가 망했다며 그 증거가 땅에서 꽤 나왔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이 동네는 전설이 부자로 잘들 사는 마을이었대. 그런데 이제 흉년이 들면은 그지들, 중들 많이 오니까 이제… 그 있는 사람이니까 물론 좀 권세를 부렸겠지. 그래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난 길 있지, 이거. 이게 다 산이었어. 근데 이 길을 뚫으라고, 그 길을 뚫고선 동네가 팍 다 망한 거야, 다 망하고. (조사자 : 지맥을 죽였구나.)

응. 여기서 이게 뭐 용의 허린가 뭐 그렇대. 그리고 저쪽 아래 지금 가는 데가 청룡뿌리거든. 청룡뿌리라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원래 부자 동네였는데 사람들이 자꾸 얻으러 오니까 여기 동산의 저기를 혈을 끊었어. 그러면 안 온다 그래서 혈을 끊어서 동네가 망했다는데, 그거이 사실이 그런 거 같애.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삼포를 했거든, 우리가? 삼포를 하면 밭을 갈잖아? 그러면 밭 가는데 기왓장이 수도 없이 나왔어. 옛날에 쓰던 돌도끼, 돌도끼도 나왔고 기왓장이고 여기 주추 놨던 돌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걸 캐 버리는 과정에서 기와가 나왔으니까…

뭐, 멀쩡한 밭에서 기와가 나올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거기 사람이 살았드랬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지.

오리정과 장터거리의 유래

제보자 : 한우(남, 1939년생, 77세, 군하2리 거주)

조사일시 : 2016년 7월 11일(월)

조사장소 : 김포시 월곶면 군하2리 마을회관

조사자 : 시지은, 남찬원

한우 제보자

(청룡뿌리의 위치와 유래를 이야기하던 제보자가 오리정과 장터거리에 대한 유래를 간단하게 구연하였다.)

"오리정은 왜 오리정이야? 오리정은 왜 오리정이냐 하면은 원님이, 원님 여기 있잖아. 그 원님이 있는데 여기서 강화를 가려면 여기서부터 걸어서 간 거야. 그 오리(五里)가 돼 가지고 오리정이라 그런 거고. 장터거리라 돼 있는 거는, 저 갈산3리 지금 저 짝이 지금 촌을 이루고 있는 거기가 장터거리거든. 옛 이름이? 근데 거기서 뭐 장이 서고 그래서 장터거리라 그런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는 확실한 건 모르고. 그 짝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근데 그 짝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지금 요 근방에선 내가 제일 오래 여기서 버티고 살거든."

애총을 파헤치는 여우

제보자 : 류강근(남, 1940년생, 76세, 군하3리 노인회장)

조사일시 : 2016년 8월 25일(목)

조사장소 : 김포시 월곶면 군하3리 마을회관

조사자 : 시지은

류강근 제보자

(마을에 예전에는 여우가 많았었는데 미군 부대가 들어서면서 여우가 많이 없어졌다고 한다. 조사자가 여우 때문에 생긴 일화가 없었는지 묻자 제보자가 이야기를 구연하였다. 군하2리 긴골 쪽에 죽은 어린아이를 묻는 애총이 있었다고 한다.)

(여우가) 이전에 강화서 많이 있어. 강화 저 짝에서 보면 문수산이 가깝게 보이니까. 근데 그 너머 강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는 강이 있어서 못 건너가고, 산소가 많으니깐 그 새로 묻으면 귀신같이 알아요.

나도 그거 몇 번을 봤는데 옷을 죄 파헤쳐 놓고 피 묻히고 그러구 있어. 얼마 안 되니까 여우가 그걸 캐 먹었다는 거야. (조사자 : 묘를 판다고요, 어르신. 묘를?) 예. 묘를 파고선 다 찢어먹고 옷 그런 거 다 찢어서 걸쳐 놓고 그래요. (청중 : 옛날에는 여기가 그 열병이 많아서 어린 애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이 산에다가 묻어놓고 가면 다 파요, 다 파. 그래서 무덤을 해 놓고 돌로다 다 쌓는 거야.) (조사자 : 그걸 여우가 그러는 거예요?) (청중 : 여우가 파 가니까, 못 파가게 그냥 돌로 쌓아 놓는 거야.) (조사자 : 그렇게 돌로 만든 애기들 묘를 또 뭐라고 따로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어르신?) (청중 : 애청, 애청.) (조사자 : 애청?) 애들 산소를, 애들 묘를 애총이라 그래. 애총이지, 애총. 애청이 아니라 애총. (조사자 : 애총.) 예.

미륵당 이진용 선생님 일화

제보자 : 류지만(남, 1935년생, 81세, 포내2리 거주)

조사일시 : 2016년 8월 26일(금)

조사장소 : 김포시 월곶면사무소 3·1운동 선양회 사무실

조사자 : 남찬원, 시지은

류지만 제보자

(제보자가 어렸을 때 미륵당은 일종의 교육기관 역할을 했다고 한다. 어렸을 때 미륵당 이진용 선생님께 1년 정도 한문을 공부한 제보자는 이진용 선생님의 관한 일화를 다음과 이야기하였다.)

"나 어렸을 때는 그 미륵당에 이진용 선생님이 한문을 가르쳤어요, 한문을. 이진용 선생님이 성리학을 깊게 공부한 분이에요. 성리학자라고 보면 돼요. 그 분이 일진도 보고 명리학에도 그 분이 능했어요. 선생님 생각을 하고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대개 5월 달에 복숭아나무가 그 새 줄기가 나오면 그럼 그 양반이 그걸 한 열 개 쯤 꺾어오라 그래요. 그럼 이파리 추려 가지구 시렁 위에 얹어 놓고 매를 그걸로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당신이 맨날 베고 주무시는 목침이 있었어요, 목침. 목침을 당신이 베고 주무시는 목침은 네모난 목침인데, 회초리를 때릴 때 쓰는 목침은 둥근 목침이야.

그럼 둥근 목침을 놓고 바지에서 이 대님을 클고 바지를 올리구서 그 둥근 목침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 이거 중심을 잡느라 매를 못 피하는 거야. 하하.

그 칼럼을 내가 쓴 적이 있는데, 그렇게 그 옛날 선비들은 좀… 그 양반이 장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학문에 깊이가 있었고, 또 한 쪽 손으로 글씨를 잘 쓰셨어요."

운수 봐 주는 장사바위

제보자 : 류지만(남, 1935년생, 81세, 포내2리 거주)

조사일시 : 2016년 8월 26일(금)

조사장소 : 김포시 월곶면사무소 3·1운동 선양회 사무실

조사자 : 남찬원, 시지은

류지만 제보자

(군하2리 곰배마을의 곰바위 이야기를 하던 제보자는 곰바위 위에 장사바위가 있었다며, 사람들이 장사바위에서 일종의 운수를 보았던 이야기를 하였다.)

"그 곰배, 곰바위 그 위에 장사바위가 있었어. 그래서 지나가다가 거기다가 돌을 던져 가지구 돌이 안 떨어지면 '아, 오늘 일진이 좋은 날이다.' 또 뭐 시집, 장가 갈 여자, 남자들은 거기다 돌을 던져서 안 떨어지면 '아, 금년에 장가가도 되겠구나.'

돌이 이렇게 돼 있었다구. 가면 곰배바위 위에 병풍처럼 돼 있어 가지구. 지금 그게 다 헐어버렸지, 지금. 길 넓히느라 쪼아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가 문짝처럼 돼 있었구, 여기 바위가 있구. 이 위에 이런 공간이 있었다구. 여기다 길에서 돌을 던지지. 이게 장사바위야, 이게.

돌을 던져서 얹어지면 재수가 좋은 거지. 장사바위라 그러는 건 그 바위가 장사같이 생겨서 그랬다 그러기도 하고, 거기서 장사가 났다고도 하는데 그건 확실한 건 잘 모르겠어요."

학질 떼는 방법 ①

제보자 : 안석묵(남, 1947년생, 69세, 군하3리 거주)

조사일시 : 2016년 8월 25일(목)

조사장소 : 김포시 월곶면 군하3리 마을회관

조사자 : 시지은

안석묵 제보자

옛날에 열병 걸리면은 저 뭐야… 거적에다 똘똘 말아 가지고 검은 황소 있잖아? 거기에 절 하게 했어. 그리구 공동묘지 그 산소에 가서 맨날 절 하게 만들고 그랬어. 우리 쪼그말 땐. (조사자: 아, 그러면 전염이 안 된다고?) 학질 떨어진다고.

학질 떼는 방법 ②

제보자 : 함일석(여, 1945년생, 71세, 군하3리 거주)

조사일시 : 2016년 8월 25일(목)

조사장소 : 김포시 월곶면 군하3리 마을회관

조사자 : 시지은

함일석 제보자

"학질, 내가 그거 앓았는데 학질이 걸렸는데, 초등학교 한 2학년때 쯤으로 기억이 나요. 그때는 매 졸음이 오는 거야. 졸고 앉았으면 어머니가 막 어디서 호통을 치셔. 그니까 밥도 못 먹고. 왜 병아리 보면 이케 병 걸리면 날개 축 쳐져서. (청중 : 응. 그게 학질이여.) 꼭 그러는 격이에요. 그러니깐 조금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어디서 오셔서는 '또 조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곤. (청중 : 깜짝 놀래게 하는 거여.) 응.

새벽이면 날 막 깨워. 그래가지고 날 어디로 데려가냐면 저기 묘가 있어. 여기 마을 가운데 조그만한 묘가 한 두세 곳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동상 앞에다가 이렇게 칼을 꽂아 놓고, 그게 미신 행각이지. 그리고 나를 거기다 데려가서는 막 재넘이질을 쳐 줘요. 이렇게 넘어뜨려요. 인위적으

로. (청중 : 놀래라고.) 놀래서 학질 떨어지라고."

2) 민요

구비문화를 조사하는 데 있어 설화보다 어려운 것이 민요 조사이다. 일을 하고 놀면서 노래를 하던 시절을 지낸 지 오래되었고, 모여서 옛날 노래를 하는 현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소중한 민요 두 편을 얻을 수 있었는데, 농업노동요 중 용두레질 소리와 김매는 소리를 제공해 준 제보자는 군하3리 노인회 최정추 사무장이다.

용두레질 소리
제보자 : 최정추
(남, 1943년생, 73세, 군하3리 노인회 사무장)
조사일시 : 2016년 8월 25일(목)
조사장소 : 김포시 월곶면 군하3리 마을회관
조사자 : 시지은

최정추 제보자

(다른 제보자들과 예전에 논농사를 짓는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보자가 여기는 모래땅이어서 물이 견디질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물을 끌어올리는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용두레로 논에물을 퍼올렸다고 하면서, 그 때 불렀던 노래를 불렀다.)

심심하니까 물 푸면서 콧노래를 하는 거야.

하나 넘어 간다
또 넘어 간다
삼천 두레 넘어 간다
그걸 두레라 그래요. 그 물 푸는 거.
그러니까 아들이 '아부지 그렇게 많이 펐어요?' 그러니깐,

어제 까지 삼천 넘어 간다

'아이 우리 아버지 어저께까지 삼천 폈대.' 그랬대는 거 아니겠어. (일동 웃음)

김매는 소리(상사소리)
제보자 : 최정추
(남, 1943년생, 73세, 군하3리 노인회 사무장)
조사일시 : 2016년 8월 25일(목)
조사장소 : 김포시 월곶면 군하3리 마을회관
조사자 : 시지은

최정추 제보자

(용두레질 소리를 마친 제보자에게 조사자가 김 맬 때 부르는 소리를 묻자, 처음에는 상사디 소리를 짧게 불렀다. 나중에 창고에서 옛날에 쓰던 북을 꺼내와서 북을 치며 김매는 소리를 다시 신명나게 불렀다.)

엘렐렐 상사디야
상사 소리에 놀아진다

먼데 사람 듣기나 좋게
가깐데 사람 보기 좋게
엘렐렐 상사디야
또한 배미를 넘어가는나

엘렐렐 상사대야

어저께 그저께 밤에는

○○ 가고

엘렐렐 상사디야

V

군하리 마을의 삶

1. 군하리 마을 토착민의 삶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새마을운동과 올림픽으로 상징되는 고도성장의 시기에 있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녹록지 않은 대형 역사 사건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마을의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따라서 지역민의 개인사를 고찰하는 것은 동시에 마을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된다. 이에 군하리 주민의 삶을 살펴 군하리의 역사를 재구성해 본다.

1) 군하리 읍내의 근현대사 터줏대감 삼양철물점

군하리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는 장터로 상징되는 읍내 거리이다. 과거에는 5일장을 중심으로 읍내 거리가 활성화되었지만 점차 상설 점포들이 개업하며 소멸된 5일장을 대체하게 된다. 이는 곧 거리 점포의 역사가 군하리 읍내의 역사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군하리에서 현재 철물점을 경영하고 있는 박재덕 사장은 대를 이어 군하리 읍내에서 상점을 경영하고 있는 터줏대감이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버님이, 50년도에 아버님이 해병대에 지원해서 여기서 전투하시다가 여기서 어머님 만나서 결혼하신거거든요. 그때 워낙 힘들고 그러니까 여긴 미군들도 있고, 미군 물건을 받아서 주로 인천, 서울 이런데 갔다가 팔고 그랬나봐요. 그때가 원조가 돼서 장사를 허시게 된거죠. 우리 아

〈그림 160〉 삼양철물 박재덕, 심명자 부부

버님은 제주도 분이시고 6·25 때, 아버님이 해병대 3기인데, 2기, 3기 분들이 피난내려온 이북사람들하고 제주도에서 훈련받고 여기와서 전투한 거지. 맨처음 통영상륙작전 해군 최초 상륙작전인데, 그리고 이제 배타고 와서 인천상륙작전 하고, 많지 뭐. 통영하고 함흥 철수작전도 하시고. (여기에 어떻게 자리를 잡으셨어요?) 아버지가 여기 와서 전투를 한거야. 해병대가 여기에 주둔을 했어. 어머님은 여기가 외가댁이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외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여기 사시다가, 아버님이 여기서 전투를, 군대생활 여기서 하다가 인제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야. (장사는 어떤 종류 하셨었어요?) 그때는 주로 먹는 잡화, 잡화 장사 한거지. (뭐뭐 취급하셨는지 기억 나세요?) 나중에는 아버님이 여기서 만물상이라고 해가지고 잡화, 과일, 먹는 것부터 철물까지 다 했으니까. 그렇게 했어. (그때는 가게가 있으셨어요?) 인천에서 사왔죠. 그렇지 그때도 가게가 크게 있었지. (맨처음 가게는 지금 어느 자리에요?) 지금 시장 안에 거기가 주로 시장골목 이었지. 장도 서고. (어제 가보니 5일장 있던데 그 자리 근처?) 거기 일자로 쭉 되있네. 그 골목. (거기서 하시다가 이쪽으로 건너오신 거예요?) 그게 인제 아이엠에프 오기 직전에. (거기서 장사를 오래하셨네요? 한 40년?) 아버님은 일로 나와서 여기서 잡으시고 그 자리에서 조그맣게 슈퍼를 하게 됐어요. 슈퍼 하다가 아버님이 여기와서 자리를 잡아놓고 철물이니까 시멘트 같은 거 나르면 아버지가 힘이 딸리니까 니가 해라 그랬지. (아버님이 하실 때 이 군하리 상가 규모라든지 얼마나 대단했나요?) 어, 대단했지. 여기가 월곶면이 인구가 1만5천 명. 김포군에서 두 번째로 큰, 김포읍 다음에 월곶면이 제일 컸지."

박재덕 / 군하1리 삼양철물[1]

1 박재덕(72세) 인터뷰 채록, 2016년, 7월 12일, 군하1리 삼양철물점, 조사자 남찬원.

〈그림 160〉 군하리 읍내의 터줏대감 삼양철물

박재덕의 아버지는 제주도 사람이며 6·25 때 해병대 3기(제주도민과 월남 주민 주축)로 입대. 제주도 모슬포에서 훈련을 받은 후 통영상륙작전(해병대 최초 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함흥철수작전에 참가 후 군하리에 부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군하리 토박이였으며, 이후 결혼하여 군하리에 정착한다. 군하리에서 식품, 잡화로 장사를 시작. 이후 점포는 만물상(과일, 식품, 철물, 잡화 등)으로 운영하였다. 보통은 인천에서 물건을 떼어와 판매하였다. 현재의 군하리 5일장터 지점에서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슈퍼 형태로 영업하다가 97년도 전후로 현 삼거리 위치로 이전하게 된다.

영업을 시작할 때는 장터가 매우 번성했으며 당시 월곶면 인구(6·25 이전)는 1만5천명 정도였다. 점포를 개설한 6·25 이후 전방 쪽 독립가구 소개 명령이 내려졌고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신규 인구 유입에 제한이 컸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였는데, 당시는 마포로 드나들던 수많은 배들이 조강포구에서 반드시 머물러야 했다. 물때를 맞추어야 조강을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조강포구에 최대 12시간을 머물러야 했으므로 조강포구의 배후지인 군하리가 상업 지역으로 부각되었다. 6·25 발발

이후 소개령 및 배 운행이 불가능해짐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 하다가 상대적으로 미개발된 지역의 조건 때문에 최근에 전원주택지로 부상되어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하였고 군하리 주위에 창고, 공장 지역이 형성되며 외국인 노동자 등의 인구 유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만큼의 영업이익을 보지는 못하는 편이다.

1대의 잡화점 규모에서 현재 2대(박재덕)에 약 200평 규모로 점포를 확장 이전하였다. 대한제국 시기까지 통진현이었다가 일제 강점기에 월곶면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며 군하리는 면소재지가 되었고 동시에 김포군에 편입된다. 과거에는 김포읍 다음가는 면소재지 규모였으며 군하리 사람들은 스스로를 김포 사람이라고 인식하지만 과거 통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현재 마송을 중심으로 하는 통진면(현 통진읍)은 군하리에서 명칭을 가져갔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통진읍이 생기며 월곶면의 일부 지역이 통진면(현 통진읍)으로 편입되었고(옹정리, 귀절리, 동월산리, 고정리, 서암리) 월곶의 중심이었다는 군하리의 정체성은 더욱 축소되었다.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월곶의 위상과 규모에 개발에서의 소외에 대해 박재덕을 포함한 군하리 주민은 박탈감을 가지게 되었다. 떠나지 않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군하리의 발전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에도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 결과로 주민들 사이에 전반적인 피해의식이 확산된 편이다. 현재는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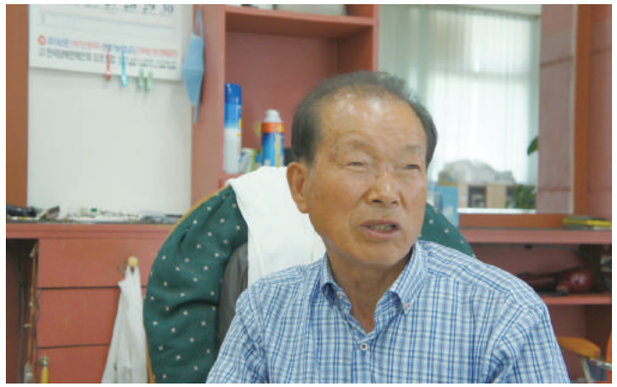
동갑내기 부부인 박재덕과 심명자는 시골 생활을 동경하던 심명자가 1980년에 군하리로 시집오는 것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내 심명자가 시집 올 80년도 당시에도 군하리는 풍족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마을이었다. 실제 시집 온 심명자의 예상과 달리 군하리는 시골(농촌)도 아니었으며 마을 주민들의 상업 활동 등으로 생활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2) 실향의 아픔을 간직한 미광이발소

군하리 지역의 주요 주민 구성은 토박이와 함께 이주민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이주 세대는 한국전쟁 이전에 월남한 이주민이거나 전쟁 발발 시 내려온 피난민들이다. 군하리 읍내에서 60년 이상 이발소를 경영하고 있는 차순하는 전쟁이 만들어낸 아픈 실향민이다.

"원래 고향은 월곶면 용강리 건너 임안면 월암리, 여기가 월곶면 군하리듯이 거기는 임안면 월암리. 거기도 거기 면소재지지. 월암리. 바위 암 자. (군하리에는 언제 들어오셨어요?) 여기 온지는 시방 아마 53년인가 54년 됐는데. (그러면 사변 끝나고 6·25?) 6·25, 1·4 후퇴 때 내가 나왔거든요. (1·4후퇴 때 여기 들어오셨어요?) 1·4 후퇴 때 나와 가지고 고막리 한 2년 살다가, 한 2~3년 살다가. 그래가지고 저기 옹정리라고 시방 그때는 옹정리로 월곶면이었드랬어요. 지금은 통진면이지. 거기서 한 2~3년 살다가 일로 온거지. (고막리 2년, 옹정리 2년 그러다가 군하리 들어오시고, 그럼 군하리 들어오시면서부터 바로 이발소 하셨어요?) 그렇지. (그 전에도 이

〈그림 161〉 현재 미광이발소



〈그림 162〉 차순하(82세), 미광이발소

발 기술이 있으셨어요?) 그전에는 군대 나와서, 내가 부대 배치를 하니까는 중대장이 날 부르더라고, 중대장이 내 인적사항을 뒤져본거지. 그러니까 고향 사람이라. 이북에 고향사람이 중대장이에요. (아 이북) 나신 데가 이북이세요? 시방은 이북이지만 그때는 삼팔 이남이죠. 개풍군이 삼팔 이남이에요. 개성. (개풍군이셨구나) 그런데 고향 사람을 만나 가지고, 날 도와준다고 도와준 거지. (이발하라) 응. 이발하라. 나 이발 못한다 하니까는, 먼저 하던 사람이 한 3개월 있으면 제대하니까 날 보고 그 후임을 맡아서 하라 인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조금씩 거들고 해가지고, 군대 이발이란 게 뭐 기계로 뭐 슥슥슥 밀면 되는거지 뭐. (바리깡, 바리깡) 바리깡으루. 그때는 손으루 이렇게 하다가 낭중에 나 제대하고 나서 얼마 있으니까 바리깡이 나온거지. (제대하고 나서?) (바리깡도 좀 늦게 나왔구나.) 늦게 나온거죠. (바리깡도 전에 배우셨구나.)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가 순 일제 기계들이예요. 그 기계가 좋지. (그러면 1·4 후퇴 때 가족들이랑 다 같이 고막리로 나오셨어요?) 아니요. 내가 고향에서 있을 적에 우리가 살림이 별로 썩 넉넉지가 않아가지고, 우리 큰 형이 옛날에 무슨 한 식구 덜려고 시집 보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입 덜어야죠.) 밥 먹기 힘드니까. 우리 큰형이 일찍 군인을 나간거야. 일찍 군인을 나가 가지고 거기서, 개성서 군대생활을 하고. 우리 작은형이 중학교 졸업하고, 그때는 중학교 졸업만 해도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거만해요.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군인 부대에 차 고치는 거를 하다가. 6·25를 만나가지고 형은 형들대로 인제 피란 6·25 때 나오고 나는 나대로 6·25 때 못 나오고 고향에서 이북 정치를 한 1년 받은 거지. (인민군들 있을 때, 개성에?) 인민군들이 옛날에 와가지고, 그땐 지서가 내무서라 그러고 면사무소가 그때 뭐라 그러더라. 생각도 잘 안나네. 거기 정치를 한 1년 받다가 1·4 후퇴가 또 터지니까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미군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 가지고 후퇴해서 내려오니까는 같이 내려온 거지. 그때 아버지하고 나하고 내 동생이 셋씩이나 있는데, 내 동생이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이래요. (이산가족이시네요. 아이구야.) 그래요. 그래가지고서는 내 동생들 다 데리고 나오면 뭐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만 하나 데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형 둘은 군대 나와서 먼저 내려와 있고?) 먼저 내려와 있고. (아버님이 그러면 어르신 손만 붙잡고 내려오신 거예요? 1·4 후퇴 때?) 1·4 후퇴 때 아버지하고 나만, 아버지는 이불을 걸머지고, 아버지는 무거운 쌀을 걸머지고, 이제 압록강서부터 미군이 철수한다 그래서 피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엿을 고아 가지고, 간식으로다가 엿을 고아 가지고 이런 큰 양푼으로다 둘을 고아 가지고, 하나는 나를 주고 하나는 집에 동생들을 먹으라고 거기 놔두고 나는 나온 거지. 나는 엿을 갖고 이불을 걸머지고 나온거지. 근데 간식이라고 뭐 있어. 엿을 가끔씩 떼서 먹고 그러면 그거이 추위도 안 타고 아주 간식이 좋아요. 그걸 먹으면 겨울에 춥지도 않아. 그렇게 나오다가 여기 나와서 며칠 있다가, 고막리서 며칠 있다가 또 이제 미군이 철수 또 하니까는 평택까지 후퇴를 한 거지. 평택까지 후퇴하는데 거기서 인제 마구간, 소 먹이는 자리, 소 먹이는 자리에다가 짚을 깔고 그때는 잘 자리 준거만 해도 고맙죠. 이불을 깔고 아버지하고 둘이 자고 그랬는데, 또 미군들이 와서 빨리빨리 피난 나가라고 막 그러니까는 (평택에서도) 평택에서도. 막 나가라고 하니까는 밤에 허둥지둥 허둥지둥 하고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는 엿을 잊어버린 거야. 엿을 한 반이나 먹었는데 그걸 안 갖고 나간거야 잊어먹고. 거기서 아산까지 이제 또 내려가 가지고, 평택 아래 아산. 거기까지 내려가서 있다가 이제 또 수복하니까 들어와서 여기서 사는 거지 뭐."

〈그림 163〉 이발소 개업

차순하 / 군하1리 미광이발소[2]

그는 이렇게 군하리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후 몇차례 고향을 드나들었으나 결국은 부

2 차순하(82세) 인터뷰 채록, 2016년, 7월 12일, 군하1리 미광이발소, 조사자 남찬원.

〈그림 164〉 60~70년대 미광이발소

모님과 어린 여동생들은 고향인 개풍군에 남고 국방군으로 입대하여 미리 남으로 내려왔던 그의 형들의 생사도 모른 채 그 역시 혼자 군하리에서 살게 된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먼저 월남했던 형들은 만났다.

"그래 가지고 아버지는 내 동생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하니까는 그때 해병대가 들락날락 했어요. 해병대가 들락날락 했다고. 이북으로 들어갔다가 저녁이면 나오고, 또 들어갔다가 중공군이 내려오면은 내려오고. 그런 틈에 나도 아버지하고 두 번인가 들어 갔드랬어요. 두 번인가 들어가니까는 인제 사태가 위험하니까 난 나가라 그러드라고. 난 나가라 그래서 난 나와 사는데, 그때 뭐 나이 한 예닐곱, 여덟 살 되니까는 그냥 집 생각만 나고 그러니깐 군인 따라서 집에 들어갔지. 집에 들어갔더니 그냥 밤이면 중공군들이 막 나와서 저거 하는데, 뒤에 몇 교육대 들어왔냐고. 그래서 그냥 긴급으로 해서 집에서 또 나왔어요. (혼자?) 혼자. (아버님은 거기 계시고?) 아버지는 거기 있고. 나 혼자 그렇게 나온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계속 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야 너는 나가면은 이 월곶면에서 꼭 살고 있어라.' (아, 찾아오신다고.) 응. 아무 때고 인자 또 만날 거니까. '넌 나가면 월곶면에서 꼭 살고 있어라.' 그래. 그래서 아버지는 거기 살고 난 여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이후론 못 보셨네.) (그게 마지막?) 마지막이지. (그 이후로 어머님, 동생, 아버님 다 못 보신 거 잖아요.) 거기 있죠. (내려와서 형님들은 만나셨어요?) 그럼요. 형들은 여기서 만났지. (아이구, 다행이다.) 형들은 어떻게 날 만났냐면, 개풍군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은 이 월곶면 아니면 대곶면에 많이 산다드라.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 인제 우리 형이 월곶면에 와서 호적을 펼치니까는, 월곶면에 말하자면 호병계장이지. 호병계장이 우리 고향에 호병계장 하던 사람이라. (개풍군 사람이고.) 거기서 공무원 하던 사람들이 여기 나라에서도 공무원 하더라고요. 그래 여기서 호병계장 하니까는 내 이름을 대니까는 대번 알았지 뭘. 그래 가지고 형들 다 만났어요.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네요.) 그럼. 그케 해가지고 형들 다 만났는데, 큰형 죽고 작은 형 하나 살고. 나하고 두 형제가 살아요. (방북 신청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했죠 왜 안 해. 했는데 해줘? 안 해주지. 안 해주는데. (아이구 안 돼셨구나.) 인제는 내가 나이가 좀 먹고 그래서 그런지 자꾸 허라고 그러는데, 우리 형이 '야 지금 만나서 뭐하냐. 다 그냥 벌써 다 잊어 버리고 말아야지 뭘 갖다 만나냐.'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 봐야죠.) 그게 마음은 그런데, 그것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돈 들어야 된다 그러고 또 그냥 만나면은 서로 그냥 눈물이나 흘리고 좋지 않은 사연 얘기나 듣고 하면은, 안 만난 거만 못하다는 거지. (마음만 아프고, 또 헤어져야 되고) 안 만난 거만 못하다니까는 안 하는거야. 시방도 하라고 5도청에 저기 저 (이북5도청?) 이북 저기 뭐야 5도민인가 거기서 연락이 와. 나 안 한다고. 날 했으면 좋갔나 봐. 거기선 자꾸 하라 그러는데, 어찌 됐든간에 만나면 좋긴 좋은데, 만나고 나면은 서로 좋지 않은 얘기나 하고 그냥 뭐 죽지 못해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글쎄. 게 시방도 우리 집사람이 죽은 지 이제 한 50일 쯤 돼. 한 60일 안 됐을 거야.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게 만나면 뭐 허냐.' 그러드라고. 그래서 그냥 나도 안 만났는데, 시방은 아이들이 '아버지 보내줄게. 한 번 이산가족 신청하라고.' (효자들이네) 아이들은 그래요. 게 안 만난다고. 속으로는 만났으면 좋지. 나도 속으로는 만났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드라고요. 만나고 나면 어는거지. 그냥 형들 다 나와가지고 뭐 국방군으로 나와가지고 뭐 저거 하고 동생들은 저거 하지 거기서 고생 그런 얘기도 해가면서 고생을 했을 거고, 자식들 길러가지고 자식을 일을 좀 이렇게 데리고 살만하니까 큰 아이들은 다 나가고, 집에 요런 것들만 있었으

〈그림 165〉 함께 고생한 차순하의 아내

니, 그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고것들 기르느라고 다 늙었는데. 말도 못하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쉰 두 살, 우리 어머니가 마흔 아홉이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한 팔 년 차인가 봐. 그때 아이들이 일곱 살, 여덟 살 그러니 그걸 언제 길러서 그거를 소도를 봐요. 고생한 건 뻔한거지 뭐. 고생하고 사는 거는. 그렇게 살았어요. (생사는 아세요?) 모르지 뭐. (여기 군하리 들어오셔서, 들어오자마자 이발관을 차리신 거예요?) 그렇죠. (고막리 있다가 옹정리 있다가 군하리 들어오시면서 바로 이 가게 이 자리에다가?) 아니지. 처음에는 이 아래 만리향 중국집이 있어요. 요기 시방. (거기서 하셨어요 처음에는?) 거기서 이제 먼저 하던 이발소 하던 양반한테 (아, 인수받아서?) 내가 일을 해주고 내가 인제 종업원이지. 종업원으로 있다고, 그 양반이 나이 먹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날 보고 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여기서 내가 세를 살았더랬어요. 세를 살다가 나를 인계시켜 주니까는 내가 어떻게 우물쭈물 하다가 형이, 어떻게 해서 형을 만났는데, 형이 돈이 뭐 조금 있었는지 어쨌는지 형한테 가서, 나 이 집을 사야할테니까는 돈 뭐 50만 원인가 해달라 그러니까 그걸 해 주더라고. 그래서 50만 원에 이 집을 산 거야. 돈 한 푼 없이. 사가지고 욜루 살면서 요 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해 가지고 집사람 하고 나하고 같이 벌어서 집사람이 화장품 장사하고 옷 장사하고 보따리 장사하고 해 가지고 둘이 벌어 가지고 이 집을 지은 거지 인제. 지어 가지고 얼마 동안 하다 보니까 집이 허술해가지고 한 푼 한 푼 해 가지고 이 집을 여 소방도로 나는 바람에 다시 이나마도 다시 짓고 깨끗하게 사는 거지. (그때 이제 종업원 하시다가 여기서 집을 사면서 이발소를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 중략 … (고향에 있는 가족들 보고 싶지는 않으세요?) 그렇지. 보고 싶지. 이제 와 만나면 뭐 하나 싶은데 애들이 보내준다고 가서 만나라고 해도 마음은 보고 싶지만 만나도 고생한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초기 그는 여러차례 이산가족 방북 신청을 했었으나 번번히 떨어졌다. 개성 관광이 활성화되었을 당시는 개성에 들어가 고향 인근까지 갔었으나 혹시라도 생존해 있는 여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차마 북한 안내원들에게 내 집이 이곳이라고 말하지도 못했다. 그렇게 그는 이북에 있는 그 어떤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지금껏 군하리에 살고 있다. 남쪽에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고생을 함께 하며 실향의 아픔을 달랬지만 이제 그 배우자마저 세상을 떴다. 자식들이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적극 권유하지만 이제 와 만나 봐야 마음만 아플 것이라고 한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처를 지닌 이산가족이 아직 고향이 가까운 군하리에 아직 살고 있다.

3) 군하2리 마을 정보의 보고(寶庫), 한우 어르신

군하2리에는 6·25때까지만 해도 4가구만 사는 작은 마을이었고, 6·25 이후 옆 마을에서 주민이 유입되면서 조금씩 마을이 커졌다. 한우 어르신의 아버님은 1930년대 초 이 마을에 들어와 정착을 하셨고, 이 마을에서 태어난 한우 어르신은 그래서 마을에 대한 오랜 기억과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유일한 분이다.

한우(남, 1939년생, 77세, 월곶면 군하2리)
조사일시: 2016년 7월 11일, 7월 12일
조사장소: 김포시 월곶면 군하2리 마을회관
조사자: 시지은, 남찬원

한우 제보자

난 몇 안 되는 군하2리 토박이에요.

난 1939년생, 토끼띠이고 올해 77세 됐어요. 여기 군하2리가 고향이고.

군하2리를 봉골이라고 해요.

군하 2리를 봉골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여기 봉화불을 폈거든요. 여기 봉오둑이라고 거기가 봉화피던 자리이고, 저기 하성면 봉성리도 그렇고. 강화에서 여기로 해서 봉성리로다가 그렇게 봉화가 전해지던 거에요.

이 마을에 처음엔 일본사람이 살았어요.

이 마을에 처음에는 왜놈이 와서 살았거든. 일제 강점기 때 왜놈이 살고. 원주민은 그때 여기 사는 게 몇 집 안 됐지. 우리하고 저 류지형 씨네하고 내가 알기론 그냥 몇 집 한 서너 집 그냥 그렇게 살았어.

일본사람이 살면서 내가 알기론 묘목을 키웠다고. 그래서 이제 조그마했을 때도 그 묘목 이렇게 세어 가지고 한 다발 묶으면 얼마 얼마, 사탕도 사 주고. 지금으로 하면 아르바이트처럼 이렇게 몇 개씩 몇 개씩 해서 다발로다가 묶어가지고. 봄이면 이제 묘목을 캐잖아. 그거를 이제 몇 갠지 숫자로 나눠 놔야 되는데, 그건 이제 애들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일곱 살 정도, 일곱 살이나 여섯 살이나 그랬을 거야.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쫓겨가면서 군하2리에 사람들이 좀 살러 들어온 거에요. 여기 지금 이 땅이 다 일본 사람 땅이었어. 그때 당시 대곶면 사람, 부면장 하던 사람이 이걸 맡아가지고 관리하고 접수를 했지.

6·25 지나고 나서 군하2리에 사람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집은 훨씬 전에 들어온 거예요.

일본 사람이 살기는 한 집이 살았는데, 저 쪽으로다가 다 묘목 밭이었어. 그러다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산 거는 6·25 때 군하리(군하1리)에 폭격을 당하니까 여기로 집단적으로 들어와 살게 된 거지. 해방 직후에는 이 마을에 4가구 있었어요. 6·25 때 오리정이 폭격을 당해서 거기 집이 모두 타 버리니까 이곳으로 모인 거고. 6·25 때 폭격으로 군하리보다 오리정에서 살던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왔지. 그래도 그 때 모두 해서 10여 가구 정도 됐지.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102살인데, 17살 때 여기를 들어왔다고 하셨으니까. 아버지는 그때 작은 할아버지가 여기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쫓아서 여기 들어온 거라 그랬구. 그 전에는 대곶에서 살다가 말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로 온 거지. 그러니까 해방되기 훨씬 전, 한 1930년 아니면 1931년에 들어왔나부다. 6·25 이전부터 살던 집은 류지형 씨네하고 우리밖에 없었지. 그 외는 6·25가 끝나고 들어온 사람들이야.

아버지는 해방 되고 개인 땅을 소유하게 되신 거예요.

그때는 그냥 소작농들 그냥 일본 사람 앞에서 소작농들 하고. 이제 외지 사람들이 땅 가지고 있으면 전부 소작농들을 했어. 그래서 소작 부쳐 먹고살다가 이제 해방 되면서 정부 들어서면서 토지개혁 해 가지고 다 개인 분배 했지. 자기가 하던 땅들은 개인 분배해서 자기가 땅을 만들게 된 거지.

봉오둑은 다 파괴돼서 흔적만 남았지, 뭐.

봉오둑이 6·25 때까지만 해도 다 제대로 있었는데, 거기 미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있을 때 파괴됐고, 지금은 거의 다 파괴돼서 흔적만 남았지. 6·25 때 폭격을 맞아서 그런 건 아니고, 거기 우물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부대가 들어와 가지고 다 망그라뜨려서 거의 없어. 봉화 피우던 데고 뭐 다... 지금 거기 가면 봉화 피우던 데라고 간판은 붙어있고, 못 들어가게 철망 쳐 놓고 해도 다 필요없다. 봉수대에 미군들이 들어오면서부터 훼손되고, 해병대들이 거기 주둔하면서 다 파헤치고 그래서 다 없어졌어.

〈그림 166〉 흔적만 남아있는 봉오둑

여기 석탄 캔다고 탄광도 팠었어요.

여기 양계장 위쪽에 이를테면 탄광이 있었다. 6·25 치른 다음에 하도 연료가 부족하고 땔 것도 없고 그런 시절에 석탄 나오나 본다고 탄광굴을 팠는데, 나오지 않으니깐 그냥 중단하고 말아버렸지. 석탄은 안 나오고 파다 만 굴 자리만 남아있는 거야.

마을에 열녀문이 있었다고 한다.

너머봉골에 열녀문과 산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없어졌어. 열녀문은 철거해서 오막살이 초가집 처마에 가져다 놨다 그러는데. 열녀문이라고 해서 열녀문으로 알고 있지, 어떻게 누가 열녀가 됐는지 자세한 건 몰라. 그래도 나 어렸을 때 봤으니까 1970~1980년대까지는 있었던 것 같애. 그 열녀문 뒤에 있었던 산소는 누구 묘인지 모르고, 산소도 없어졌어. 박씨네 집안에서 관

리했었으니 혹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구.

산에 여우도 노루도 많았었다.

전쟁 전에는 닭을 집에서 키웠는데, 닭장이 허술하니까 여우들이 와서 닭을 잡아가 버리지. 여우가 와서 닭을 잡아가니까, 어머니가 꽹과리를 치면서 쫓았던 것이 기억나. 해방이 되고 미군이 들어와서 여우와 노루를 잡으면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먹기 위해서 사냥한 게 아니라 놀이로 그냥 사냥을 한 거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연료가 없어서 동산에 나무뿌리까지 캐서 황폐해지니까 그런 동물들이 살 수 없는 여건이 돼 버린 거고. 60~70년도에는 여기 산들이 모두 민둥산이었고 황폐해서 사람이 오지 못 할 곳처럼 보이고 그랬는데, 조림(造林)을 해서 지금은 토끼도 고라니도 생겼어.

아우랑 도끼 하나로 나무를 하던 우스운 기억도 있다.

우스운 이야기가 있다. 어렸을 때 개를 좋아했는데, 아우랑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연장이 변변치 못했지. 미군이 키우던 개가 참 영리하고 컸었는데, 개가 밖으로 나오면 데리고 나무를 하러 가기도 하고. 아우랑 이쪽 저쪽 나누어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 내가 이쪽에서 도끼로 나무를 하고 개한테 도끼를 묶어 보내면 저쪽에서 아우가 도끼를 받아 나무를 하고 그렇게 개가 도끼를 양쪽으로 날라다주기도 했지. 그 땐 동산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서 진달래 뿌리, 가나무 뿌리까지 모두 캐다가 불을 때고 그랬어.

나무를 때다가 60년대 후반부터 연탄을 때기 시작했다.

70년대부터 주로 연탄으로 바뀌었지. 그런 후에 기름보일러로 바뀌고. 이 마을에는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고, 난방은 기름보일러나 심야 전기를 써. 심야 전기를 쓰면 겨울에 한 달에 요금이 30~35만 원을 내야 하니까, 요즘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항상 써요. 심야 전기가 기름값보다는 싸지만, 전기요금이 자꾸 올라서 많이 나와요."

〈그림 167〉 군하2리 마을입구 전경

나는 논농사, 인삼 농사를 지었는데 삼포에 일가견이 있었다.

나는 논농사와 인삼 농사를 했어요. 1950년대 말에서 1960년 초에는 김포가 인삼의 고장이었으니까. 그러다가 70년도 초쯤에 끝났지만, 처음에 인삼을 110칸을 심었어. 그리고 군대에 갔다 와 가지고 인삼을 캐니까 쌀 110가마가 나오는 거야. 농사를 지으면 쌀 30~40가마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쌀 110가마가 나오니까 확 달라져 버린 거지. 당시에 삼포를 한 사람들은 다 자리를 잡았다.

삼포 기술은 양석○이라고 개성에서 나온 분한테 배웠어. 그 사람이 지주들 모아서 삼밭을 하는데 난 그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웠지. 삼포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양을 받기 위해서는 115도 각으로 판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나는 군대 나침판을 가져다가 놓고 115도를 재서 판장을 만들고 삼포를 했어, 허허. 지금도 아마 그 각은 유지할 거야. 내가 삼포에 대해서 60~70년도에는 그래도 일가견이 있었는데. 화성군에 가서 시작해서 전매청에서 선진지 개발하는 사람으로 포창을 받기도 하고, 그때 내가 가르쳐서 삼포를 했던 사람들은 모두 부자로 살아.

노인회장은 꼭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노인 회장을 10년 정도를 했으니, 말하자면 독재이고 장기집권인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장기집권을 하면 인맥도 쌓이고, 마을에서나 관에서 인맥이 쌓이면 일 처리하기도 좀 수월하고. 동네 가로등 놓는 것 조차도 그러니.

사실은 할 사람이 없어. 나이가 먹으면 귀찮으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나도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나쁘고,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사실 난 회장직만 가지고 있지, 이장이 총무니까 이장이 다 하는 거에요. 난 뭐 오래면 오고, 우리 이장이 참 잘 하지.

4) 농사와 삼밭으로 일군 인생, 전순복 어르신

전순복 어르신은 군하1리 3대째 토박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농사일을 시작했고 큰 규모로 삼밭을 경작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굳은 의지로 인생을 알차게 꾸려온 전순복 어르신의 내력을 정리한다.

전순복(남, 1934년생, 82세, 월곶면 군하1리)
조사일시 : 2016년 7월 11일
조사장소 : 김포시 월곶면 군하1리 마을회관
조사자 : 시지은, 남찬원

전순복 제보자

나는 여기 3대째 토박이에요.

나는 1934년생 개띠로 83살이이에요. 고향은 여기 군하1리이고 토박이이고.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3대째 여기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이 마을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 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기억은 많이 없는 편이에요.

일제 강점기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지금 분진중학교 자리가 초등학교 자리였는데, 초등학교 자리를 팔아서 개인이 사고, 면사무소 뒤에 큰 부지가 있는데 그곳에 초등학교를 지은 거에요. 그 때 기억은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6·25는 서울에서 겪었는데 그 때 긴박함이란…

6·25가 일어났을 때는 서울 마포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서 휘문중학교 3학년 다닐 때에요. 그 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소달구지에 짐을 가득 싣고 밤섬에 있는 나루터로 갔는데, 그때는 여의도가 생기기 전이죠. 밤섬에서 배를 타고 건너야 하기 때문에 가져온 짐을 모두 밤섬에 내려놓았다가 기다려서 밤섬에서 배를 탔는데, 사람들이 정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비행기에서 기관총을 쏘면서 중앙청 쪽으로 날아가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우왕좌왕하고… 나루터를 50m 정도 남겨 놓고 배에 물이 들어와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아이가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앞에 아주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가는데 꼭 그 아주머니의 아이인 것 같아서, 친구랑 같이 아이를 아주머니에게 데려다줬지. 아주머니의 아이가 아니냐고 하자 그렇다고 하면서, 경황이 없어 아이를 데리고 올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 자기 자식인데, 사람이 죽을 위기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가 봐. 비행기하고 기관총이 오가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지. 사실은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하는데, 사람이 살 의지에 욕심은 그것이 아니더라고. 허허허.

피난길은 참 길었죠. 혼자 충청도 친구네로 피난 가서 40일을 걸어 고향에 다시 올 수 있었어요.

그때 고려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학생이 어디에 가느냐고 물어서 김포에 간다고 했더니, 김포에 벌써 인민군이 들어왔다고 하더라. 서울보다 먼저 용강리 용정포가 있는 애기봉 뒤로 인민군이 들어와서 못 간다고 하니, 친구랑 둘이 돈 한 푼도 없이 학교 가지고 다니던 책가방을 메고 피난을 갔어요.

영등포 뒤보둑을 내려가는데, 열차가 화통 둘을 끌고 화물차 곳간을 20개가 넘게 달고 내려왔

어요. 전투에서 다친 군인들, 부상자들, 사망자들을 태우고 내려가는 열차였는데, 열차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도 붙잡아 달라고 해서 겨우 타게 됐지요. 방직공장에 다니는 아주머니들도 보따리를 올려놓고 태워달라고 해서 잡아서 태워주고.

그 열차를 타고 천안을 가서 우리는 온양온천으로 가는 차를 바꾸어 타려고 내린다고 했더니, 아주머니는 부산에 있는 언니의 집으로 피난을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더라. 우리는 친구네 집으로 간다고 하자, 아주머니는 고맙다며 복숭아 한 바구니를 사 주어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온양온천 복숭아는 유명했는데.

친구네 집으로 갔는데 논 가운데 집이 있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갯벌에 말뚝을 박아 놓고 밧줄을 붙잡고 건너다니더라. 우리도 밧줄을 잡고 건너갔는데 사람들이 모를 심고 있었고, 친구 아버님이 모를 심고 있어서 못짐을 집어주고 그랬지. 나중엔 아버님이 낚싯대를 주면서 아들과 낚시를 하고 오라고도 하고.

충남 아산 옆이 합덕인데, 합덕에 김포 사람들이 많이 피난 와 있으니까 가서 알아보라고 해서, 몇 번을 나가보았는데 부모님을 만나지 못 했어요. 한번은 나가서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에 사는 면사무소 직원을 만나서 아버지를 못 보았냐고 하기도 했는데도 만나지 못 하고. 건넛마을에 99칸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그분이 언제 김포 쪽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분을 따라 가기로 했지.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없어, 친구에게 돈 좀 구해달라고 했더니, 친구 아버지가 돈은 바로 써 버리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쌀 한 말을 싸서 주시는 거야. 여비로 쓰라고. 그거 들고 길가 참외밭에서 참외를 따 먹기도 하면서, 당진에서 김포까지 40일을 걸어서 돌아왔지. 피난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온 거였어요.

고향에 돌아오니 난 죽은 사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우리 집 옆에 청자할머니라고 계셨는데 대를 붙잡았더니 쓰러졌다고, 내가 한강에서 배 타고 오다가 죽었다고 하더란다. 지금 분진중학교 자리에 밭이 있었는데, 형님이 밭에서 호밀을 베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 '너 죽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왔냐?' 그래서 '내가 왜 죽어요?' 하니까 청자할머니가 대를 붙잡았는데 쓰러졌으니 '한강에서 배 타고 건너오다가 빠져서 죽었다더라!' 그랬대는 거야. 뭘 보는 분은 아니었구, 내가 죽었나 살았나 대나무를 잡아봤다는 데 그냥 대가 쓰러진 거지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아휴~

고등학교 졸업하고 김포로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 피난 갔다가 오고, 서울에서 휘문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김포로 돌아와 살았어요. 배우려고 서울로 유학을 간 거고, 그때 여기 사람들은 인천으로 많이 갔지 서울로 간 사람은 많지 않았을 땐데. 김포에 와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버님께 농사를 배우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1·4 후퇴 때인가 마을이 불바다가 된 걸 본 적이 있어요.

고향에 돌아와서 얼마 안 돼 1·4 후퇴 때인가 폭격을 당했다. 그때 우리 마을에 인민군이 무척 많았는데, 하루는 아침 10시 쯤 비행기 한 대가 쭉 오더니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기름을 뿌리더라. 기름을 뿌리더니 쌕쌕이가 불을 뿜으며 폭격을 해서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격난을 겪고 살았다.

인민군을 죽이려고 한 건데, 그때는 육군 비행기보다는 미군 비행기였을 거다. 인민군을 죽이려고 한 거지만 주민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그 때 돌아가셨다. 이 근방에서 돌아가셨을 텐데, 유골을 찾을 수가 없다. 아직도 유골을 못 찾고 있고.

마을에 인민군은 인천상륙작전 때 다 나갔어요.

마을에 인민군이 많긴 했지만, 늘 서로 거리를 두고 있었지. 마을에 청년단이 있었는데, 밥을 안 해주면 총으로 쏘아 죽이기 때문에 밥은 해주어야 했고. 인민군이 돼지 잡는 걸 봤는데, 정말 잘하더라. 어떻게 털을 뽑나 했더니, 우물 옆에 닭장에서 호미를 갖다가 북북 밀어내니까 털이 밀려 내려가는데, 해 본 경험들이 있어 잘 하는 거 같았다.

인천상륙작전 때 해병대도 들어오고 육군도 들어오고… 삼양철물 박재덕 사장님 아버님이 제주도 분인데, 여기 소령인가 중령으로 해병대로 오셨다가 여기 분과 결혼을 한 거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농사일을 시작했어요.

20살 넘어서부터 논농사, 밭농사를 짓기 시작했어.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는 호미가 없어서 맨손으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기계로 지으니까 농사짓는 게 농사짓는 게 아니야. 근데 쌀값이 싸서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없으니, 예나 지금이나 농사꾼이 제일 불쌍하다. 제일 불쌍한 것이 농사꾼이야.

예전에 여기 삼밭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삼을 많이 심어서 이 근처가 모두 삼밭이었어요. 강화, 김포는 사실 인삼밭을 해서 잘 살게 된 거나 마찬가지에요. 나도 삼밭을 2,000~3,000평 정도 했으니까 꽤 크게 지었다.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건 아니고 내가 밭을 모두 장만한 거였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 8년 전에 그만뒀지. 돈을 아끼면 삼을 제대로 못 길러요. 돈을 아끼지 말고 밭에다 써야 하는데, 비료는 전혀 주지 말고 거름을 잘 주어야 해요. 산에 있는 갈잎 썩은 것을 사다가 거름으로 주면 최고로 좋고. 여러 가지 거름이 있는데, 곡초를 썰어서 넣는 사람도 있고, 재를 모아서 주기도 하고,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때고 재가 나오면 그걸 모아서 뿌리기도 했다.

강화나 김포나 피난 나온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당연해요.

보면 강화도 원주인은 살림이 어렵고, 개성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인삼밭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강화에서 제일 부자는 개성 사람이고, 김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원주민보다 피난민이 더 잘 사는 건 왜 그런지 다 원인이 있지. 그 사람들은 맨주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개성 사람은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김포 사람은 땅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살만 하니까 노력을 덜 해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잠을 4~5시간 밖에 안 자고 일을 해요. 머릿속에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절대 못 따라가요.

그래도 지금은 노력만 하면 모두 잘 살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6·25 사변이 나고, 8·15 광복이 되고, 미국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먹고 살았지, 미군이 안 들어 왔으면 모두 굶어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의 덕을 보고 살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사는 것이 말도 못했다. 지금은 내가 노력만 하면 못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못 사는 사람은 노력을 안 해서 못 사는 거지, 노력을 하면 모두 잘 살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열심히 살았고, 지금은 몸이 불편한 아내를 돌보고 있어요.

2남 1녀를 낳아서 며느리 2명을 보았고 큰아들은 분당에 살다가 강남 논현동에 살아요. 작은 아들은 공무원이고, 손녀도 대학교 3학년인데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발령이 났다고 해요. 집사람이 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한 지 8년 됐어요. 처음에 병원에 4년 있을 때는 간병인도 뒀고, 재활병원을 일곱 군데나 다녔는데, 의사 말이 완쾌는 힘드니 집으로 모시는 게 낫겠다 해서, 그래서 집으로 온 지 4년 됐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간병인이 하루에 네 시간씩 오고, 나머지는 내가 돌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5) 전쟁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간직한 황용군 어르신

황용군 어르신은 같은 연배 어르신들과 마찬가지로 6·25 전쟁에 대한 참혹한 기억을 하고 계시지만, 유난히 군하리 폭격과 전쟁 당시의 상황을 실감나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민족의 비극이지만 쓰여지지 않은 전쟁 일화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황용군 어르신의 이야기를 정리한다.

황용군(남, 1941년생, 75세, 월곶면 군하1리)
조사일시 : 2016년 7월 11일
조사장소 : 김포시 월곶면사무소 노인회 사무실
조사자 : 시지은, 남찬원

황용군 제보자

3대째 군하1리에서 살고 있는 토박이입니다.

난 1941년생 뱀띠이고, 고향은 군하1리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군하1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강화에서 사시다가 여기로 건너오신 건데, 김포로 오신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강화가 좀 열악했죠. 왜냐면 배로 건너 다녔고 강화에서는 걸어 다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버스가 다녔어요, 6·25 전에도. 서울, 인천 다니는 버스가. 그리고 6·25 전에 여기는 전기도 들어왔고.

같은 군하리라도 그 때 좀 차이가 있었죠.

요 근방 군하3리, 봉골 여기 항공대 있죠? 그 쪽에는 전기가 안 들어 왔고, 여기 군하1리 이 동네만 전기가 들어왔죠. 옛날에는 군하리 하면 군하1리, 저기 곰배 군하2리, 여기 봉골 군하3리 다 통틀어서 군하리라 그랬다. 근데 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법정리로 1리, 2리, 3리 이렇게 나눈 거지.

그 때 버스는 성동리까지 다니고, 강화대교 지나서 그 안에도 원래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가 버스 종점이었고, 거기 보구곶리 사람들은 어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부터 객지 생활하다가 1983년도에 고향에 돌아왔어요.

14살 때 인천으로 공부하러 나갔다가 객지생활 뺑뺑뺑 돌다가 83년도 3월 달에 들어왔어요. 그 때가 마흔 세 살 땐가 그랬을 거예요.

고향에 돌아와서는 도자기 회사를 다녔지요.

마흔 세 살 때 고향에 들어와서 특별히 뭐 할 게 없었어요. 저 통진 서암리에 도자기 회사 큰 게 있었어요. '삼보도기'라고 큰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했지요.

6·25는 열 살 때 겪었어요.

내가 6·25에 대해서 잘 안다기보다는, 내가 어릴 때 기억이 열 살 때거든요, 그 때가. 6·25 났을 때 여기 개성, 개성 그 쪽에서 포 소리가 엄청나게 들렸어요. 여기까지 구르릉 구르릉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나 여기 어르신들이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여기 인민군이 27일 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6월 25일에 터졌다고 그러니까, 여기 군하리에 이틀 만에 들어온 거죠.

그 때 인민군들 내려가던 모습이 잊혀지질 않아요.

근데 그때 내가 어렸을 때니까, 여기 허물어진 정미소 자리 거기가 그 땐 자전거포가 있었는데, 여름에 덥고 그러니까 바람 쐰다고 거기로 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근데 밤새도록 인민군들이 이리 나오는 거야. 이 강을 건너가지고 강을 건너서 나오는 거래. 그때 말 타고 구루마 같은 걸로도 끌고 내려가고, 인민군 장교들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가죽장화 신고 그러고 내려가더라구. 그게 이제 남쪽으로 서울로 들어갈려고 그런 거겠죠.

인민군들이 마을 지나면서 해꼬지하거나 그런 건 없고, 내가 기억나는 건 인민군한테 총 좀 보자고 그러면 총도 보여주고, 신기하다 그러고 우리한테 뭐 그러진 않았어요. 얼마 안 지나서 그 인민군들이 다 전선으로 내려 간 거지, 인제 밑으로.

북한 내무서원이 이쪽 건물 이층에 있었어요.

근데 그 내무서원이라고 왔어요. 그 사람들 복장은 약간 푸르스름한 옷을 입고 가죽장화 신고 완장차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인제 무서운 거야. 그 사람들이 인제 북한의 경찰인데, 어른들이 내무서원이라 그러더라구, 내무서원. 그게 어디 있었느냐 하면 요기 지서에서 학교 정문 왼쪽에 이층이라고 기와집 커다랗게 새로 지었어요. 거기가 일정 때는 주재소라 그랬지, 일본놈들 파출소, 주재소라 그랬어. 그 일본놈들 가고 나서 거기가 지서로 됐다가, 6·25 나고 나서부터 내무서원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 바로 뒤에 쪼끄만 유치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내무서원, 다시 우리가 밀고 오면 다시 지서 인제 그렇게 했어요.

군하리 폭격 맞았을 때가 아주 생생해요.

그때 군하리가 폭격을 당했어요. 그게 9월 15일이 인천상륙작전이죠? 인천상륙작전 하기 바로 전에 했어요, 내가 기억나는 거는. 그때 기억이 어떻게 나냐 그러겠지마는 내가 기억하는 것도 있고, 어른들한테 인제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저 위에 교회 올라가는 데에 큰 나무가 쭉 있었어요. 거기서 인제 놀고 있는데 하성에 폭격을 하더라고. 넉 대가 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우리는 어린 마음에 '야~ 멋있다, 야~멋있다' 그러는데 좀 있다가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저기 인민군들이 저 멀리서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종간나 새끼들. 뭐 멋있다고 그러냐고?' 그래 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가듯이 내려 왔어요.

그 날 저녁에 월곶한의원 가기 전에 고기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우리 할머니의 오라버니 집이야. 거기 가서 뭘 가져오라고 해서 동생하고 심부름을 가면서 굴렁쇠를 굴리면서 저 미광이발소 앞에서 쪽 내려오는데, 비행기가 쓰윽 지나가는 거야, 넉 대가. 어린 마음에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동생이랑 부리나케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인제 헐떡거리면서 있으니까 이상한 폭음소리가 오~옹 하고 나더라구. 우리 삼촌이 그 두꺼운 솜이불을 꺼내서 다 뒤집어쓰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폭탄 투하를 하는지 연방 오~옹 하면서 이 뿌래빠라 소리가 지붕을 훑어가는 그 소리가 역력해요. 흙집에 맞아서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 인민군들이 갖다 놓은 폭탄에 맞아서 터지는 소리… 어휴, 뭐 방바닥이 붕 떴다가 내려앉는 거 같았어요.

그러구 이제 비행기 소리가 안 나니까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막내 작은아버지가 같이 있었거든. 우리 아버지는 6·25 나니까 인민군들이 잡으러 다닌다고, 지게지고 농사꾼 마냥 해 가지고 인천으로 도망을 가고 없었고. 작은아버지가 바깥에 살살 나가서 보니까 초가집에 불이 다 붙어있고 비행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도망가라고 그래서 뛰어나와 가지고 전부 다 냇가로 도망간 거예요. 그 모래사장에서 우리가 많이 놀았는데, 거기로 도망가서는 지붕마다 불이 다 타는 게 어린 마음에 또 멋있어 보이는 거야. 남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자식아. 어떻게 그게 기억나냐?' 그러지만 난 사실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나요. 나만큼 기억 잘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태극기 그려서 달았다가 변을 당하기도 했어요.

여기 인민군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폭격 있기 전에 이상한 게, 국군이 내일 아침에 들어올 거니까 태극기를 그려서 준비하라고 이야기가 돈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태극기를 그리고 나도 태극기를 그려서 집집마다 태극기를 다 달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녁 쯤 오시더니 이상하다고 태극기 그린 걸 다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태극기를 단 집도 있고 안 단 집도 있는데, 밤에 그냥 인민군이 쫙 깔린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인민군인지 국군인지 누가 허위 정보를 퍼뜨린 거지. 그러고는 그 때 남로당계, 바닥 빨갱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네 태극기 달고 안 달고 다 조사를 해서 많이 잡혀 들어가서 죽다 살아나왔어요. 그렇게 인민군이 깔렸다가 퇴각할 때 또 인민군이 여기 몰렸다가 폭격을 당한 거야. 폭격 있고 나서 한 4~5일인가 일주일인가 있다가 미 해병대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도 사연이 많은 비극의 지역이에요.

저 군인들은 이 민간인들 상대로 해서 뭘 헌 게 없었어. 인민군도 마찬가지여, 내가 알기로는. 나중에 그놈들이 퇴각할 때 눈깔이 뻘개가지고 막 이랬는데 처음에 넘어 왔을 때는 괜찮더라고. 우리 쪽에서 올라 왔을 적에는 치안대라는 게 있어서, 여기다 완장을 차고 경찰도 아니고 뭐 가오잡기 좋아하는 동네 청년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지. 그렇게 말하자면 여기도 비극의 지역이고… 그러고 나서 군인들이 올라왔죠.

여기가 사연 많은 게 뭐냐면 지금 소방서 자리에 창고가 있었어요. 일정 때 만든 미곡창고인데 그게 6·25 때 감옥으로 쓰인 거죠. 저쪽에서 밀고 내려오면 여기 있는 사람 잡아다 넣고, 우리가 올라가면 여기 빨갱이들 잡아다가 거기다 넣고. 아까 그 고무래골 거기 가서 처형시켰어요. 새벽에 꽝꽝꽝 소리 나면 '아~ 오늘 또 몇 사람 죽이는구나' 그랬지.

1·4 후퇴 때는 피난을 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밖에 없었어요.

1·4 후퇴 때 여기 인민군, 중공군이 또 들어왔는데, 그 때 당시 전라도 군산까지 가야 산다고 그랬어. 여기 바닥 빨갱이들이 많았는데, 인민군들이 다시 내려왔으니 바닥 빨갱이들 말 듣고 잘못 해서 잡히면 다 죽는다고 그래서 전라도 군산까지 가야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내려가다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그 때 제2국민병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부터 막내 작은아버지까지 다 제2국민병으로 차출돼서 우리집에 남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작은어머니뿐이 없으니 멀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곡까지 갔다가 '야~ 우리는 내려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하고 다시 들어온 거야. 오히려 고생을 안 하고 났었지.

제2국민병이란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제2국민병이라는 게 있었죠, 제2국민병. 제2국민병 사건이 유명한 거예요. 그 방위군 사령관 그 나쁜 놈이 군인들 양식 다 떼먹고… 군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풀뿌리, 나무뿌리 캐 먹고, 굶어죽고 병 걸려 죽고… 그 때 젊은 군인들 엄청 굶어죽고 그랬다는데, 다행히 우리 아버지, 작은아버지는 살아오셨어요.

어버지가 오시니까 우린 좋아서 막 뛰는데 아버지는 '어!' 그러더니 밥, 밥만 달래는 거야. 그냥 김장김치에 밥을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월곶교회에 대한 기억은 어렴풋해요.

그 기억은 좀 어렴풋하긴 한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땐가 그럴 거예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왔더니 남동생이 무슨 노랠 부르더라구요. 탄일종이 울린다 뭐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구요. 그걸 어디서 배웠냐니까 '저기 교회 생겼어' 그러더라구요. 확실히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중학교 1학년 말이나 2학년 때 생겼을 거예요.

그 때는 교회가 저렇게 크지 않았는데, 리모델링해서 더 크게 늘리고 전도를 잘해서 그런지 이 동네 사람이 교회를 많이 갔어요.

그렇게 동네에서 지내다가 현재 대한노인회 김포시지부 월곶분회장을 하고 있어요.

대한노인회 월곶분회장은 올해 2016년 1월부터 맡게 됐어요. 임기는 4년. 월곶면에 경로당이 22개 있는데, 그 22개 경로당 회장들이 투표해서 선출된 거예요.

2. 군하리 마을 시집 온 여성의 삶

1) 애인 찾아 내려온 황해도 사리원 똑순이, 김수복 할머니

김수복 할머니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애인을 찾으러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전쟁으로 고향 사리원에 돌아가지 못하고 김포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피난민 여성이 살았던 굴곡진 삶을 흥미진진하게 들어본다.

김수복(여, 1924년생, 92세, 월곶면 군하1리)
조사일시 : 2016년 7월 10일
조사장소 : 김포시 월곶면 군하1리 마을회관
조사자 : 시지은, 남찬원

김수복 제보자

난 여기 본토백이가 아니고 실향민이에요.

이름은 김수복, 1924년 갑자생이니 지금 93살이네요. 난 실향민이에요. 진외가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 댁이 여기긴 해도, 고향은 황해도 사리원인데, 사실은 애인을 찾아 내려왔어요. 사리원에서 올 적에 참깨 두 되만 짊어지고는 남산인가 어딘가에 가면 다야짐 장사가 있었는데, 그 이북의 장사꾼 그 사람을 따라 넘어 왔어요.

내려와서 애인을 만나고 6·25를 겪었지요.

해방되고 3년 후에 애인을 찾아 남한으로 내려왔다가 6·25를 겪으면서 아랫녘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김포로 왔어요. 여기 내려와서 이태 있다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려와서 애인을 만나긴 했는데, 애인은 전쟁 통에 죽고 아이는 하나 있고 해서 사리원으로 다시 올라가지 못 하고 어머니 고향인 김포로 오게 된 거죠. 여기 와 보니 어머니도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을 와 계셔서 가

족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피난을 부안까지 내려갔었는데 험한 꼴도 많이 봤다.

애인을 찾으러 내려와서는 서울에 있었는데 6·25 전쟁이 나서 부안까지 피난을 내려갔어요. 부안까지 가서 별것을 다 봤는데, 빨갱이가 청년회장의 아이를 때려서 나무에 걸어 놓은 것도 보았으니…

원래 어미니 고향은 김포가 고향였는데 사리원으로 시집을 가신 거죠.

내 외가가 김포인 거는, 말하자면 할아버지가 이쪽에서 군수를 하셨더랬어요. 고을에서 심부름하는 김서방네 쪼그만 총각 아이가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고향인 사리원으로 돌아갈 때 그 총각을 데리고 가셨지요. 그 할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언니가 키우다시피 했는데, 그 신세를 못 잊어서 할아버지가 누이의 딸인 우리 어머니를 데려다가 처형의 며느리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사리원으로 시집을 가게 된 거니 아주 한 편의 드라마 같지요.

전쟁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고향인 김포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다가 아버지가 비행기 파편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남동생, 여동생을 데리고 외갓집인 김포로 오신 거고, 내가 애인을 잃고 아이를 업고 외가인 김포에 찾아오게 된 거고. 하필 이 곳에 자리를 잡아서 내 신세가… 담배 장사를 하더라도 부산까지 내려갔으면 지금보다는…

이 쪽에 미군이 주둔해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아이를 업고 오니 어머니가 외갓집에 계셨어요. 그래도 다행이었죠. 휴전 상태일 때 이 쪽에 미군이 주둔했었는데, 어머니와 미군 빨래를 해주며 먹고 살았어요. 미군이 여기 군하리, 저기 보구곶리, 애기봉 가는 길 쪽에도 있었고, 오리장에도 있고 적박골에도 있었어요. 어머니와 나는 미군 빨래를 해 주고, 남동생은 미군에 하우스백 말하자면 심부름하는 뽀이로 들어가서 일 하고, 동생이 3대대에 있을 때는 동생 덕에 미군 빨래감을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미군 빨래를 해서 먹고 사는 것도 쉽진 않았어요.

미군들이 주둔할 때 나쁜 짓을 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사람들 눈이 제일 무서웠어요. 한 번은 보구곶리에 있는 큰 우물에서 빨래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오더니 여기서 빨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요. 미군 빨래는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길래 내가 '당신 빨갱이 아니냐고,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데, 빨갱이 아니면 왜 여기서 빨래를 못 하게 하는 거냐? 당신 빨갱이지 뭐야' 그러니까 도망가더라.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데, 공동 우물 쓰면서 내가 돈을 벌고 그랬던 게 싫었던 거 같애요.

미군 빨래 해 주면 돈을 준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줬어요.

일을 하면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캔디, 통조림 이런 걸 줬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그 때 배급이 나왔어도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꾸러 왔어요. 내가 늘 현찰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담배, 시레이션, 캔디를 받으면 그거 팔아서 돈이 되고, 그 돈으로 쌀 사고 동생들이랑 먹고 산 거죠. 한 2년 정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월급으로 8만 원을 주기도 했던 거 같애요.

그 때 양주 장사도 꽤 괜찮았다.

세탁을 그만두고는 양주 장사를 했어요. 이를테면 5불 주고 사 와서 10불에 파는 격이죠. 영등포에 가면 양주 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는데, 그거 외상으로 사 와서 여기 김포에서 파는 거였는데, 그것도 미군이 나가게 돼서 한 1년 정도밖에 못 했어요.

전쟁통에 첫 남편을 잃고 실향민과 다시 혼인을 했어요.

애인을 찾아 내려와서 6·25 전쟁이 났을 때 딸 하나를 낳아서 김포에 들어왔잖아요. 딸 아이를 호적에 올려야 해서 시집을 가야 했고, 그래서 다시 시집을 가서 아이 넷을 더 낳았어요. 그 양반은 황해도 연백이 고향인 실향민이었고, 벌써 돌아갔어요.

어렸을 때 봤던 군하리 장은 정말 컸다. 그 옛날에 강화대교 놓는 것도 보고.

군하리에는 우체국 이쪽으로 우시장이 섰어요. 쌀가마 짜는 경연대회도 하고, 장터에 양조장도 있고. 왜정 때 군하리에 몇 번 와 보기도 했는데, 4살 때인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와 보고, 16살 때 할아버지 환갑이라 외삼촌 따라 와 보기도 했지요. 그 때 군하리 장이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해요.

강화대교 없을 때 나루터에서 버스를 실어서 강화를 다니던 때도 있었고... 강화대교는 우리 셋째 딸 낳던 날 짓기 시작해서 다리 짓는 걸 남편이랑 구경하기도 했어요. 그 아이가 지금 50이 넘었으니 50년도 더 된 일이죠.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은 여기 김포보다는 강화도에 많이 살았어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은 여기보다는 강화 교동 쪽에 많이 살았어요. 피난민들은 특히 연백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면 배타고 강화 넘어왔다가 전쟁 끝나면 빨리 돌아가려고 그랬으니까. 강원도 아바이마을이랑 똑같은 형국인 거예요. 그 사람들도 피난 나왔다가 금세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교동 사람들도 이북 사람이 많아요. 거기서 기다렸다가 빨리 돌어가려고 했었는데... 여기도 조강나루만 건너면 황해도로 갈 수 있는데, 이쪽엔 피난민이 많지 않아서 나도 다른 피난민은 만난 적이 별로 없고, 우리 할머니 수양딸 고모를 만난 적은 있어요.

여기는 이북하고 명절이 다르게 지내더라구요.

여기 내려오니까 이북이랑 명절이 다르더라구요. 이북에서는 3명절이라고 해서 한식을 꼭 챙겼는데 여기는 한식을 안 챙기더라구요. 이북에선 설, 한식, 추석이 3명절이었고, 어렸을 때는 명절마다 옷을 해 입었어요. 단오 때는 그네 뛰고, 씨름도 하고. 근데 여긴 단오 때도 그런 게 없더라고.

여기 내려와서 농사도 참 많이 지었어요.

할아버지랑 둘이 논농사 8,000평을 지었어요. 이 앞이 다 논이었는데, 할아버지랑 둘이서 경운기 가지고 갈고, 둘이서 타작도 다 하고 그랬어요. 둘이 실어다가 나는 옮기고 쌀 담으면 영감이 털고, 그렇게 지독하게 했어요. 이북사람이 그렇게 지독해. 그렇게 일을 많이 하다가 할아버지는 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북 사람들이 독하다고 하는데 그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 수 밖에 없었어요.

농사 그렇게 지은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황해도, 이북에서 온 사람들은 독하다고 하는데, 피난 나왔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독해지는 거예요. 내 고향을 버리고, 내 집을 버리고 나왔으니까. 아주 빈털털이로 나왔으니 억척같이 살아야지 어떡해요? 그러니 억척일 수 밖에 없어요. 정주영이도 다 실향민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 그렇게 악착같았던 거거든요.

강화다리 놓으면서 여기 장이 줄어들었다가 요즘 다시 작게 장이 서고 있어요.

여기 장이 그렇게 아주 컸는데, 강화 다리 놓으면서 장이 없어졌어요. 장 보러 다들 강화로 가니까. 그래서 여기 장 서는 게 줄더니 어느새 장이 안 서기 시작하더라구요. 몇 해 전부터 조금씩 사람들이 와서 장이 서는데, 한 십년 전부터 그렇게 장이 다시 서기 시작한 거 같애요.

암강화 수통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강화 사람은 여기 와서 오줌도 안 누고 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여기 왔다가도 오줌 마려우면 집에 가서 눈다는 거야. 여기로 이사와서 밥을 사 먹어도 여기서 안 먹고 강화 가서 사 먹는다는 건데… 여기 아무것도 보내주지 않는다지 거지.

암강화 수통진이라고, 강화 여자가 여기로 시집오면 잘 살아도, 여기 여자가 강화로 시집가면 못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전통이이에요, 전통. 강화 사람이 여기로 시집오면 잘 살고, 여기 여자가 강화로 시집가면 못 산다는 거야. 여기 여자는 협협하니까 그렇고, 강화 여자는 지적해서 잘 사는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여자가 강화로 시집을 많이 안 가요. 거기서 여기로 나오기는 해도 여기서 거기 들어가면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암강화 수통진이란 말이 있어요.

그 통진 비각인가 세우면서 우리 집이 결국 헐렸어요.

여기 비석을 모아 놓은 곳이 있어요.(통진 현감, 부사 선정비를 말함) 그거 다 여기 왔던 관리들 뭐 기록해 놓은 거라 그러는데, 그 비석들 다 모아서 세워 놓으면서 집을(비각을 말함) 지으면서 우리 집이 이만큼 들어갔어요. 우리집 지을 때 그 집도 같이 지은 건데, 그걸 알았으면 우리집을 그 때 안 지었을 건데. 2년 사이에 집 팔고 이사 가라고 해서, 몰라서 그렇게 지었더니 집 지어 가지고 헐려 버렸다. 영감님이 면장이랑 싸우기도 했는데 결국 집이 헐려 버려서, 그런 것두 잘 안 알아보고 일을 꼼꼼히 하지 않은 영감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래두 어떡해요. 집 짓고 거기로 이사갔다가 다시 또 이사를 나와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허허.

2) 황해도 연백에서 강화와 김포로 이어진 삶, 김옥자 할머니

황해도 연백이 고향인 김옥자 할머니는 6·25 때 가족들과 함께 강화 교동으로 피난을 왔다. 원래 장사를 하셨던 부모님께서 강화에서 장사를 하고, 김포로 이사 와서도 장사를 해서 가족들을 부양했다. 오래 전 강화와 김포의 생활이 김옥자 할머니의 삶에 녹아들어 있다.

김옥자(여, 1943년생, 73세, 월곶면 군하1리)
조사일시 : 2016년 7월 10일
조사장소 : 김포시 월곶면 군하1리 마을회관
조사자 : 시지은, 남찬원

김옥자 제보자

부모님도 나도 실향민이에요.

내 고향은 황해도 연백이에요. 올해 74살, 양띠이고. 부모님이 피난 나오셔서 처음에는 교동에 자리를 잡아서 난정리에 살다가, 대룡이에도 살고. 지난번에 「6시 내고향」 보니까 우리 대룡리에 살았던 집하고 시장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더라구. 교동으로 가는 다리가 생겼다 그래서 다리 건너서 한 번 가 봤거든요.

부모님도 고향이 이북이고 내 고향도 황해도 연백이죠.

두 분 다 고향이 이북인데, 아이들 데리고 피난 온 거죠. 친정아버지가 육촌오라버니와 같이 이남으로 피난을 나온 건데, 난 어려서 잘 모르지만 이북과 둑 하나만을 두고 밤에 왔다갔다 했다. 오라버니하고 친정아버지가 다 젊었을 때라 잡혀갈까 봐 이남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나왔다가 아버지가 돌아오지를 못 하니까 나중에 친정어머니가 딸 셋, 아들 하나 이렇게 애들 넷을 데리고 집안이 한꺼번에 피난을 내려온 거에요.

피난 나와서 부모님이 장사로다가 자식들 먹여 살렸어요.

피난 나오는 길은 정말 힘들었는데, 배도 못 타고 밤새도록 물 빠진 바닷가를 걸어 나왔어요. 증산을 나오니 전부 불에 타서 아무것도 없었고, 용매에 가서 가마떼기 하나를 놓고 온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앉았는데, 먹을 물도 하나 없고 그랬어요.

먼저 내려온 친정아버지가 인천으로다가 쌀장사를 하러 다녔다 그러는데, 배가 저만큼 떴는데 육촌오빠가 아버지는 저기 배타고 인천으로 쌀장사 가시는 거라고 말해줘서 알았죠. 거기서 배를 불러 피난 나온 집안사람 모두 배에 타고 나오는데, 교동까지 오는데 꽤 멀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쌀장사도 하고 배에서 사람들 밥도 해 먹이고, 이곳에 와서 5일장이니 시장에 다니며 그렇게 장사해서 먹고 살았어요.

예전에 군하리 장은 정말 컸어요.

우리들 시집올 때만 해도 군하리 장이 컸는데, 이 아래서부터 꼭대기까지 쭉~. 내가 62년도에 시집을 왔는데… 친정어머니가 장에서 옷장사, 비단 장사를 하러 다녔거든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군하리 장에서 가고 마성에도 다니면서. 부모님 두 분 다 고향이 이북인데, 이북에서도 비단장사를 했었던 거 같애요. 연안읍 장에서 비단 장사를 크게 한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나와서도 비단 장사를 시작했다가 그만 두고 아버지가 쌀장사 하러 간다고 그러시더라요.

강화다리가 생기고 나서 군하리 장이 차차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군하리로 시집와서 살기 괜찮다가 점점 사람도 많이 빠지고, 장도 없어지고… 장이 없어진 건 다리 놓고 하다보니 여기로 장꾼이 오지 않게 돼서 그렇죠. 다리 생기고 나니까 강화로 장들 보러 다니고, 강화장이 아주 크니까 물건도 싸고 좋고. 그리고 요새는 마트가 생기니까 강화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장이 차차 없어져 버리죠.

이웃집 할머니는 강화로 간장을 사러 간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사지 왜 강화로 가냐고 했더니, 강화가 더 싸니 돈이 남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비는 생각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역정을 막 내더라. 근데 김포 사람은 김포 것을 팔아주어야 해요.

우리도 반대 데모 해 봤잖아요.

우리도 데모 해 봤어요. 저기 레미콘공장(한성레미콘을 말함) 들어서면서 대공을 파면 지하수가 다 말라버리니까, 반대 시위를 몇 년 했는데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실패했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 약수터도 다 말라서 물이 안 나와요.

그거 한성레미콘에서 물 다 파서 쓰는 거고, 시멘트가루 날라와서 소나무도 다 죽고, 지금은 시멘트 막는라고, 포장 쳐 놓고 그러더라구. 그걸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러다가 유치장 가고, 감옥까지 갔다 오구.

그렇게 우리가 그 공장자리에서 시위를 몇 년을 하니까, 업자가 손 들려고 할 때에 시청에서 개입하면서 실패했잖아요. 깡패들 동원해서 똥물 끼얹고 강제로 끌어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 하나가 차에 치여서 죽고, 마을 사람들 유치장 가고 그러니까… 암튼 정부에서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어요.

군하리가 개발이 좀 돼야 하는데…

여기는 항공대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군부대 사격장도 있어서 개발이 안 되잖아요. 여기 항공대 들어설 때에 그 지역에 큰댁의 땅이 있었는데 주인 허락 없이 그냥 밀어붙이더라구요. 사드가 온다니까 TV에서 그거 반대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하는 말이, 사드도 반대해 봤자 못 이긴다 그러더라구. 일반인들이 정부를 어떻게 이겨요?

1962년에 시집와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피난 내려와서는 교동에 살다가 김포 오일장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이 장사를 하러 김포로 이사를 왔어요. 통진읍 마송에서 살다가 군하리로 시집을 왔고, 1962년에 선을 봐서 한양조씨네로 시집을 온 거죠. 한양조씨가 전라도에 많이 산다 그러던데, 여기 김포에 한양조씨가 있더라구요. 시집 와서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맺음말

시간의 영속성에 저항한 '의미 새기기' 작업,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마을지

인간은 시간의 영속성에 저항하여 '의미 새기기'를 끊임없이 수행해왔다. 고대 동굴의 손바닥 문양 벽화에서 시작된 기록 작업은 문자의 발명과 함께 일대 전환기를 맞는다. 문화를 통한 기록이 가능해지면서 공유할 만한 것들을 시간 위에 촘촘히 새기며 미래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이와 같이 문자를 활용한 의미 새기기가 모여 '역사'라 불리워 진다.

역사를 기록할 때 인간은 공간을 먼저 고민한다. 세상을 구성하는 공간은 층층이 쌓여있다. 거대한 공간이 있다면, 그 안에 작은 공간들이 존재하고, 다시 그 안에 더 작은 공간들이 있다. 각각의 공간들은 서로 끼어들고, 간섭하고, 재구성되고, 층층이 쌓이고, 때로는 충돌하면서 유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상당히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역사를 기록하기 용이한 일정한 범위 구획이 필요했다. 여러 가지 공간 구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문자 기록이 시작되고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범위 구획은 바로 '국가'이고, '지방'이고, '도시'이며, '마을'이다.

마을에 대한 기록은 '1+1+1+1+1=5'의 자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개인에 대한 자각이 우리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졌으며, 우리가 모여 도시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우리의 역사가 모여 국가의 역사를 완성한다는 자각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은 큰 의미를 갖는다.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는 2011년부터 '경기 마을 기록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 사업의 진행 배경은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특수성으로 아파트, 공장, 위락시설 등이 난개발 되다 보니 전통 마을의 공간 변화, 마을 주민의 생업 변화, 전통 신앙의 약화 등 막을 수 없는 사회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1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마을 기록을 시작으로, 2012년 '남양주시 조안면 봉안마을', 2013년 '남양주시 조안면 마재마을', 2014년 '용인시 처인구 오리골', 2015년 '시흥시 월곶동' 마을 기록을 진행하였다. 이번에 진행한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마을 기록 사업은 경기학연구센터에서 수행한 6번째 마을 기록 사업이다.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마을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의식주, 신앙, 의례, 놀이 등이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 만큼의 보존적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는 그곳에서 현재에도 삶을 영위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통해 계속 기억되고, 지켜져 나갈 것이다.

본 마을지는 군하리가 담고 있는 모든 가치들을 포괄하여 담지는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남아있고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할 관념적이거나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충실하게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노력을 토대로 김포 군하리 마을이 그 전통과 순수성을 오래도록 지켜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년 12월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장 윤여빈

경기도 문화유산과

김양희 (경기도 문화유산과장)
김동주 (경기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활용팀장)
송은미 (경기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활용팀 주무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윤여빈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장)
이지훈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조사연구부장)
김성태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수석연구원)
방문식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신창희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김포문화재단

최해왕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박형숙 (김포문화재단 문화유산팀장)
김한경 (김포문화재단 문화유산팀 주임)

자문위원

이하준 (김포문화원 원장)

집필진

남찬원 (경희대학교 강사)
남창근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연구원)
시지은 (경기대학교 강사)
신창희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옛 관청을 품고 있는 마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마을

발행일 | 제1쇄 2016년 12월 31일
제2쇄 2017년 2월 25일

발행처 | 경기도 문화유산과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김포문화재단 (10110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26)

제 작 | 경인문화사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445-1 경인빌딩 B동 4층)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와 김포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모든 내용 및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와 김포문화재단의 문서를 통한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으로 복사 또는 전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999-0066-2 93910

비매품